

경기다문화뉴스

The Gyeonggi Multicultural Family News

PAPAYA STORY

외국인주민을 위한 토달정보서비스 파파야 스토리

www.papayastory.com

지금 스마트폰에서 papayastory를 검색하세요

제305호 2025년 11월 16일 (격주간) 발행인 겸 편집인 송하성 등록번호 경기 다 50340 전화 031-8001-0211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죽전대로 444, 7층(주네브 썬월드 메디컬동) 8호 인쇄인 장용호 경기도 부천시 수도로 164 (주)아이피디 / danews1@daum.net 후원계좌 경기다문화뉴스 110-408-662725 신한은행 <1쇄>



△오산시가족센터(센터장 이병희)는 지난 11월 1일 오산시청 광장에서 '제13회 오산시 다하나한마음 대축제'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오산에서 만나는 세계"를 주제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세계 각국의 음식과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내외빈과 다문화가족, 오산시민 등 3천여명이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관련 기사 8면> 송하성 기자

외국인의 부동산거래, 임대가능 체류자격 확인 등 특히 주의해야

<사례1> 외국인 A씨는 국내 체류자격이 방문취업비자(H-2)에 해당해 부동산 임대사업을 할 수 없어요. 방문취업비자는 건설업 등 정부가 허용한 업종에서만 일할 수 있어요. 하지만 B씨는 한국에서 아파트를 매수해 월세 임대수입을 얻고 있어요. 이는 불법적인 수입으로 당국에 적발되었어요.

<사례2> 외국인 B씨는 서울 일대 총 4채의 주택을 매수하면서, 총 매매대금 17억 3500만 원 중 5억 7000만 원을 외화 반입 신고 없이 직접 들여오거나 지인들에게 환치기 방식으로 조달한 것으로 조사됐어요. 이번에 해외자금 불법 반입 의심 사례로 적발됐어요.

***한국 정부의 외국인 부동산 거래 감독?**

한국 정부기관인 부동산감독추진단은 11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부동

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열어 국토교통부, 국세청, 경찰청 등 각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불법거래 조사 현황과 향후계획 등을 점검했어요. 특히, 국토부가 적발한 외국인 주택 이상거래 210건에 대해 외국인 위법 거래 행위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최대한 강력한 조치를 하기로 했어요. 아울러, 자금조달계획서에 해외자금 조달내역도 포함하는 한편, 탈세 혐의에 대해서도 본국으로 적극 통보하기로 했어요.

***외국인 부동산 거래, 어떤 불법행위가 있었어?**

주요 사례를 보면 ▲외국국적 A가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거래대금 중 일부를 환치기 수법으로 현금조달하는 등 해외자금 불법 반입 ▲연소득 9천만원인 외국인 B가 125억원 단독주택을 구매하면서 자금 출처를 제대로 밝히지 않은 경

우 ▲외국국적 C가 여러 건의 부동산을 매수·매도하는 과정에서 중개업자가 매수·매도금을 대납·입금 받는 등 명의신탁 행위 등이 있어요.

***외국인 부동산 감독, 왜 이렇게 하는 거야?**

한국에서 부동산은 매우 중요한 자산이에요. 옛날부터 한국인들은 내 집 마련을 평생 가장 중요한 일 중의 하나로 생각했어요. 따라서 부동산 가격이 갑자기 오르면 내 집 마련을 할 수 없게 되고 반대로 부동산 가격이 갑자기 내리면 이미 마련한 집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어 정부를 원망하는 일이 많아져요. 특히 최근에는 외국인이 한국에서 부동산을 많이 거래한다는 소문이 퍼지고 집값을 끌어올리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요.

***외국인 부동산 거래, 어떻게 해야 해?**

한국에서 집을 사서 자신이 거주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어요. 하지만 임대를 주고 임대료를 받고자 한다면 자신이 가진 비자가 임대 행위를 할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그리고 부동산 거래자금은 반드시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므로 불법적인 방법으로 자금을 들여오는 일이 없어야 해요.

일부 내국인들은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 비중이 매우 낮음에도 외국인이 한국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따라서 관련 법률을 엄격히 지키는 것이 좋아요.

부동산감독추진단 관계자는 "외국인의 위법 거래행위는 국내 주택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시장 불안으로 국민의 심각한 고통을 야기할 수 있어 법무부 등 각 기관에서는 최대한 엄중히 조치해 달라"고 말했어요. 경기외국인SNS기자단

지자체별
지면 안내

헤드라인 1 경기도 2 수원 3~7 오산 8~9 구리 10~11 남양주 12~15 광주 16~18 양평 19 하남 20~21 평택 22~26 용인 27~29 연천 30 과천 31 화성 32~36

언어별
지면 안내

중국어(Chinese) 中文 13, 19, 25 베트남어(Vietnamese) Tiếng Việt 5, 13, 14 러시아어(Russian) Русский 11, 17, 23 태국어(Thai) ภาษาไทย 5, 28 영어(English) 11, 15 몽골어(Mongolian) Монгол хэл 17, 28, 33, 36 캄보디아어(Khmer) ខ្មែរ 18

섹션별
지면 안내

정책 Policy 2 생활정보 Information 6, 13, 18, 25, 28 나의 학습 My Study 9, 10 보건 Health 31 여가 Leisure 23 행사 Event 4, 8 육아 Child Care 26 이주배경청소년 3 도서관 Library 28 복지 Welfare 14 부동산 Real Estate 1 비자 Visa 17 경기외국인SNS기자단 14, 23 노동 Labor 5, 11, 15, 18, 33, 36 외국인근로자 2, 26, 29, 34 인권 5, 11, 13, 17, 25, 33 청년 19 국제교류 21, 24



했다. 이날 공개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기도에 거주하는 외국인 500명 중 66.2%가 '경기도의 이민정책이 정착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78.8%는 '생활에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만족 이유는 생활 편의성(31.0%), 일자리 기회(19.3%), 임금 수준(16.2%) 등이 꼽혔다.

도내 기업 500곳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74.6%가 '이민전담기구 설립이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경기도의 광역형 비자사업을 알고 있다고 응답한 기업도 67.4%에 달했다.

이민전담기구는 외국인과 이민자를 위한 비자·고용·정착지원·사회통합 정책을 통합 조정하는 조직으로, 법무부·고용노동부·행정안전부 등 부처별로 분산된 기능을 하나로 묶어 외국인 인재의 유입과

경기도, 글로벌인재·이민전담기구 유치를 위한 컨퍼런스...인재 유입과 안정적 정착 지원

경기도는 3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경기도 외국인 우수인재·이민 전담기구 유치 컨퍼런스'를 열었다고 4일 밝혔다. 외국인 인재의 안정적 정착을 돕고,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함께 이룰 협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다. 올해 8월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는 장기체류 외국인은 약 73여 명으로, 전국 212만 명의 34%를 차지한다. 경기도는 외국인 인력에 대한 입장과 요구를 수렴하고, 이를 경기도 내 이민전담기구 설치 기반으로 활용하기 위해 컨퍼런스를 기획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대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를 비롯해 김동희 경기도의원, 경기

도상공회소연합회장, (사)경기경영자총협회장, (사)경기도기업경제인협회장 등 경제인·기업인과 대학 관계자, 유학생, 시군 및 외국인센터 관계자 등 90여 명이 참석했다.

주요 프로그램은 △경기도 우수인재 유치정책 발표 △글로벌 인재 유치 및 경제활동 관련 설문조사 결과 공유 △귀화 외국인 강의 △외국인 정책 전문가 강연 △기업인-유학생 패널 토론 등으로 구성됐다.

경기도는 경기도지사 명의의 추천서를 통해 외국인이 특정활동(E-7) 비자를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경기도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과 경제·

산업계의 비자 수요에 맞춰 외국인력 취업 허용 분야를 신설·개선하는 민간 비자 제도 등을 통해 외국인 인재 유치 전략을 펼치고 있다.

경기도는 이러한 경기도 우수인재 유치정책을 발표하며 향후 기업-대학-지자체 협력을 통해 글로벌 인재를 양성·유치할 것을 밝혔다.

이후 귀화 외국인이자 러시아 출신 방송인 일리아 벨라코프가 연사로 나서 '글로벌 인재의 힘'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이민정책연구원 장주영 정책연구실장은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이주민과 도민에게 모두 매력적인 생활환경 조성'과 '인재 양성·훈련 프로그램 도입'을 강조

안정적 정착을 돕는 역할을 한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해 4월 광역지자체 가운데 최초로 이민전담기구 설치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9월 유치 희망 시군(안산, 김포, 화성, 광명, 고양, 동두천)과 간담회를 진행하는 등 유치 기반을 다져왔다.

김대순 행정2부지사는 "외국인 인재와 기업, 대학이 함께 협력할 때 경기도의 산업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이주민 정책을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이민전담기구는 가장 많은 외국인이 거주하고 접근성과 사회문화적 포용력이 우수한 경기도에 설치돼야 성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송하성 기자

강태형 의원, "경기도 건설 외국인노동자 지난해 44명 사망" 산재 등 대책마련해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강태형(더불어민주당, 안산5) 의원은 17일(월) 열린 2025년 종합행정사무감사에서 건설국, 교통국, 철도항만물류국 등을 대상으로 도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현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강 의원은 "최근 5년간 도내 건설현장에서 148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했으며, 특히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체불이나 산업 재해 규모조차 도에서 실태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 문제를 노동국이나 이민사회국으로 떠넘길 일이 아니라, 건설국이 주도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강 의원은 이미 제정된 「경기도 철도안전 지원 조례」에도 불구하고, 의정부경전철, 용인경전철 등에서 여전히 반복적인 안전사고와 운행장애가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부품 교체에만 의존하는 임시방편적 대응에서 벗어나, 철저한 원인 분석과 기후위기 대응형 안전관리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며, 도-시군-운영기관 간 상시 협의체 구축을 통한 종합적 대응체계 마련을 주문했다.

이어서 강 의원은 최근 대표발의한 「경기도 외상장애인 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를 설명하며, "도민 누구나 건강 상태나 거주지에 따라 차별 받지 않고 동등하게 이동권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서울시 등 타 광역자치단체와의 제도 비교를 통해, "경

기도 역시 조례 제정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표준지침 마련과 정보제공 확대 등 실질적 이행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강 의원은 "단순히 제도는 만들고 실행하는 식의 행정은 이제 멈춰야 한다"며 "현장의 문제를 있는 그대로 직시하고, 조례 제정 이후의 실행력 확보가 진정한 도민 권익 보호"라고 강조했다.

〈인터넷에서 파파야스토리를 검색하세요, 더 다양하고 많은 정보를 만날 수 있어요〉 송하성 기자



진로설계지원사업, 진로탐색 현장학습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자녀 대상 레고랜드 방문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유경선)는 지난 11월 1일 다문화가족 자녀들을 대상으로 강원도 춘천시에 위치한 레고랜드에서 현장학습을 진행했다.

이번 현장학습에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의 다문화 청소년 30명이 참여했으며, 직업탐색을 위한 현장학습 활동이 이뤄졌다. 현장학습을 통해 놀이공원 속 다양한 직업을 찾아보고 직업에 대한 넓은 시야를 가질 기회가 됐다. 현장학습에 참여한 학생들은 “레고랜드에서 유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고, 시간이 너무

짧아 아쉬웠다”라며 “놀이공원에 있는 다양한 직업을 알게 되어 좋았다”라는 소감을 전했다. 특히, 이번 프로그램에는 성인이 된 다문화가족 자녀가 봉사자로 함께 참여해 그 의미를 더했다.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진로설계지원사업 ‘(구) 다채움’을 통해 다문화가족 자녀를 위한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홈페이지 또는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영의 기자

가족 함께 문화체험하고 유대감 강화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 힐링캠프 진행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유경선)는 지난 10월 18일~19일 1박 2일간 경기도청소년수련원(안산시 소재)에서 다문화가족 힐링캠프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프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가족과 함께하는 문화체험의 경험이 적은 다문화 한부모가정 13가정(총 4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가족 간 유대 강화와 정서 회복, 가족 협동심 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마련됐다. 캠프 1일 차 오전에는 보호자를 대상으로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진행했으며, 오후에는 경기도청소년수련원 실내체육관으로 이동해 ‘다문화가족 운동회’가 열렸다. 이날 캠프는 가족 간 어색함을 해소하고 협동심을 기를 수 있는 다양한 신체 프로그램이 진행돼 대상자들의 만족도가 높았다. 특히 이번 가족 운동회에서

는 기관의 자체적인 후원을 통해 참가자 전원에게 푸짐한 경품을 제공했으며, MVP 가정을 선정해 소형 가전을 상품으로 증정했다.

MVP로 선정된 대상자는 “한국에서 아이를 키우며 살았지만 이렇게 큰 선물을 받은 적은 처음이다. 이 순간이 평생 잊히지 않을 것 같다.”고 밝혔다.

가족 운동회가 끝난 후 카라반에서 진행된 BBQ 파티에서도 각 가족끼리 단란한 시간을 보냈다. 운동회를 통해 친해진 가족들은 저녁 식사 후 자연스럽게 모여 자녀 양육 및 한국 생활의 노하우를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동안 아이들은 한데 모여 캠핑장을 운동장 삼아 축구하거나 학교, 공부, 교우관계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캠프 2일 차에는 제부도 서해랑 케이블카 체험과 가족끼리의 자유시간을 가졌다. 케이블카를 처음 타보는 가족들도 많아 이번 가족캠프의 만족도가 높았다.

캠프 종료 후 참가자들은 “이번 캠프를 통해 아이들과 함께하는 가족 캠프가 처음이라는 걸 깨달았다. 우리 가족에게 좋은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라며 “출근 일정을 조정하기가 어려워 포기할까 생각했는데 캠프에 참여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이들도 너무 좋아했다.”고 말했다. 김영의 기자

수원글청, 생애주기별 찾아가는 건강 증진 체험 프로그램 운영



수원시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센터장 운영민 요셉)는 지난 11월 7일 사단법인 희망그림의 ‘찾아가는 건강 증진 체험 프로그램’을 연계해 운영했다.

‘찾아가는 건강 증진 체험 프로그램’은 경기도 교육청에서 지원하며 AI기반으로 한 에듀테크 체험형 프로그램이다. 눈·귀 건강, 신체 측정, 흡연·마약 예방 교육을 했으며 이주배경청소년 60여 명이 참여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단순 교육이 아닌 AI를 기반으로 한 체험형 교육으로, 한국어가 서툰 이주배경 청소년들도 자신의 건강 상태를 데이터로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AI 기반 생애주기별 건강 변화와 자기관리 능력을 알 수 있도록 설계된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센터 관계자는 “이번 프로그램은 단순한 교육을 넘어 미래 건강기술을 도입한 체험 중심의 활동으로 진행되어, 한국어가 서툰 이주배경 청소년들에게도 높은 교육 효과를 보였다.”라며 “앞으로도 이주배경 청소년들이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건강 관련한 양질의 콘텐츠가 지속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센터(031-247-1324) 또는 홈페이지(www.swglobalyouth.com)로 문의하면 된다. 김영의 기자

수원페이 사용자, 11월 17일부터 5% 캐시백...우수 지자체 선정

수원페이를 사용하면 11월 17일부터 5% 캐시백을 받을 수 있다. 수원특례시는 17일부터 12월 31일까지 ‘수원페이 5% 캐시백 이벤트’를 연다. 수원페이 충전금으로 결제하면 5% 캐시백을 지급한다.

1인당 최대 5만 원을 지급하고, 예산이 소진되면 이벤트는 종료된다.

이벤트 기간에 받은 캐시백은 2026년 3월까지 사용할 수 있다. 수원시는 지역사랑상품권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추가로 국비를 확보했고, 캐시백 이벤트를 진행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수원페이 5% 캐시백 이벤트로 소비가 늘어나 지역 경제에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한편 수원특례시는 14일 아주대학교에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전세사기 예방 홍보 캠페인을 펼쳤다. 김영의 기자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공감하며 화합의 장 만들어요”

수원시외국인복지센터 재수원교민회, 화합의 장 ‘2025 명랑운동회’ 성황리에 열려

수원시외국인복지센터(센터장 양해규)는 지난 11월 8일 경기도인재개발원 체육관에서 재수원교민회 연합 ‘명랑운동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김은주 수원특례시 여성가족국장과 염태영 국회의원, 정영모 김은경 김기정 정종윤 수원특례시의원, 이정섭 수원시외국인복지센터 운영위원장 등 내외빈과 네팔·몽골·미얀마·방글라데시·베트남·일본·중국·캄보디아·태국·필리핀 등 10개국 이주민, 선주민, 자원봉사자 등 300여 명이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국적과 문화를 넘어 교류와 화합을 다지기 위해 마련된 이날 행사는 수원시외국인복지센터 라인댄스 교육 참여자들의 경쾌한 라인댄스 오프닝 공연으로 시작했다.

양해규 수원시외국인복지센터장 환영사를 통해 “오늘의 명랑운동회는 단순한 체육대회를 넘어, 이주민이 만

나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함께 웃으며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화합의 장”이라며 “앞으로도 이주민과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교류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염태영 의원은 “오늘 운동회는 경쟁보다 안전하고 즐거운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며 “모든 이주민들의 화합과 단합을 위해 다함께 파이팅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수원특례시의회 의원들도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수원의 상징적인 축제”라며 이주민들의 활발한 참여에 박수를 보냈다.

점심식사 후에는 각국의 특색이 담긴 국가별 댄스 공연이 펼쳐졌다.

▲네팔, 일본, 중국팀이 시범국가로 참여해 수준 높은 퍼포먼스를 선보였고, 참가자들은 서로의 동작을 따라하며 웃음꽃을 피웠다. 이어 진행된

명랑운동회에서는 ▲블루팀(미얀마·일본·중국·캄보디아·필리핀)과 ▲레드팀(네팔·몽골·방글라데시·베트남·태국)으로 나뉘어 ▲풍선탑쌓기 ▲대형공굴리기 ▲낙하산 레이스 ▲줄다리기 등 남녀노소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종목이 이어졌다.

체육관 가득 울려 퍼진 응원 소리와 웃음 속에서 참가자들은 서로 협력하며 화합의 의미를 되새겼다.

이날 행사장에는 이주민의 생활 편의를 돕기 위한 홍보부스도 운영됐다. ▲수원중앙병원과 치과다문치과는 다국어 의료통역지원 서비스를 안내하고, ▲전북은행은 다국어 은행업무 지원 정보를 제공해 참가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이번 행사는 국적과 문화를 넘어 하나로 어우러진 다문화 시민축제이자 지역사회와 함께 만들어진 따뜻한 나눔의 자리로 ‘다름을 존중하고 함께

살아가는 수원’의 가치를 보여준 행사로 기억됐다.

한편 이날 행사는 평소 이주민의 삶을 지원하는 지역사회의 폭넓은 후원을 통해 진행됐다.

▲강한의원(경옥환·소화제), ▲노스모크위드아웃파이어(드립커피), ▲맘스터치 망포점·울인교회 신용선 목사·수원중앙병원(식사 지원), ▲목우미술학원(외식상품권), ▲수원시자원봉사센터·김미영후원자(쌀), ▲지동 하나로축산(한우세트), ▲전북은행 수원외국인금융센터·김영환후원자(기념품), ▲치과다문치과(TV), ▲하울실용음악학원(전자레인지) 등이 다양한 물품과 서비스를 제공했다.

특히 수원중앙병원은 행사 당일 앰블런스와 의료진을 현장에 배치해 안전한 진행을 도왔다.

송하성 기자



Từ ngày 6 tháng 11, chế độ miễn nghĩa vụ thông báo được thực hiện, nhưng vẫn còn hạn chế... Cần có biện pháp cứu trợ thực chất hơn.

Tại Hàn Quốc, người nước ngoài cư trú bất hợp pháp luôn là đối tượng bị truy quét nên họ phải sống trong tâm trạng lo lắng, bất an. Đặc biệt, ngay cả khi làm việc mà không được trả lương, họ cũng rất khó tố cáo chủ sử dụng lao động lên Bộ Việc làm và Lao động. Nguyên nhân là do khi công chức phát hiện ra tình trạng cư trú bất hợp pháp của người nước ngoài trong quá trình thực thi nhiệm vụ, họ được quy định phải thông báo cho cơ quan xuất nhập cảnh.

Trước tình hình đó, Bộ Tư pháp Hàn Quốc đã công bố rằng, nhằm tạo môi trường làm việc ổn định cho lao động nước ngoài và giảm thiểu thiệt hại do nợ lương, cơ quan này đã sửa đổi "Quy tắc thi hành Luật Quản lý Xuất nhập cảnh" và sẽ thực hiện "Chế độ miễn nghĩa vụ thông báo đối với lao động nước ngoài bị nợ lương" bắt đầu từ ngày 6 tháng 11.

Theo quy định hiện hành của Luật Quản lý Xuất nhập cảnh, nếu công chức nhà nước hoặc chính quyền địa phương phát hiện người nước ngoài cư trú bất hợp pháp trong quá trình thực hiện nhiệm vụ, họ phải ngay lập tức thông báo cho Cục trưởng Cục

Quản lý Xuất nhập cảnh và Người nước ngoài tại địa phương. Do quy định này, đã có nhiều ý kiến cho rằng người lao động nước ngoài bị nợ lương hoặc chịu thiệt hại khác thường ngần ngại khiếu nại để bảo vệ quyền lợi của mình vì lo sợ bị trục xuất.

Trước tình hình đó, Bộ Tư pháp đã sửa đổi quy tắc thi hành, cho phép miễn nghĩa vụ thông báo của thanh tra lao động đối với những lao động nước ngoài bị thiệt hại như nợ lương.

Thực ra, trước đây cũng đã có quy định miễn nghĩa vụ thông báo đối với 5 trường hợp sau.

▲ Trường hợp người nước ngoài là học sinh mẫu giáo, tiểu học, trung học cơ sở hoặc trung học phổ thông ▲ Bệnh nhân tại các cơ sở y tế công cộng ▲ Trẻ em tại các cơ sở phúc lợi trẻ em ▲ Trẻ em được tư vấn tại trung tâm tư vấn và phúc lợi thanh thiếu niên ▲ Nạn nhân của tội phạm hoặc đối tượng được bảo vệ do bị xâm phạm nhân quyền. Trong lần sửa đổi này, người lao động nước ngoài bị nợ lương cũng đã được bổ sung vào các trường hợp được miễn nghĩa vụ thông báo.

Về vấn đề này, Bộ trưởng Bộ Tư pháp Jeong Seong-ho cho biết: "Việc thực hiện chế độ lần này đã tạo ra môi trường giúp người lao động nước ngoài được bảo đảm những quyền lợi cơ bản nhất", đồng thời nhấn mạnh rằng "Trong thời gian tới, Bộ Tư pháp sẽ tiếp tục chủ động đối phó với các vấn đề phát sinh tại nơi làm việc và nỗ lực bảo vệ quyền lợi của những người yếu thế trong xã hội."

Tuy nhiên, điều này không có nghĩa là vấn đề đã được giải quyết hoàn toàn. Bởi vì khi người lao động nước ngoài cư trú bất hợp pháp bị nợ lương tố cáo chủ sử dụng lao động lên Bộ Lao động và Việc làm, đôi khi chủ lao động lại trả đũa bằng cách báo cáo người lao động đó cho cơ quan xuất nhập cảnh. Khi đó, có những trường hợp người lao động nước ngoài sau khi hoàn tất việc điều tra về nợ lương đã bị bắt ngay trước trụ sở Bộ Lao động và Việc làm.

Vi vậy, cần có những biện pháp cụ thể hơn để người lao động nước ngoài cư trú bất hợp pháp bị nợ lương có thể thực sự được bảo vệ và đòi lại quyền lợi của mình. <한글 기사 33면> 경기외국인SNS기자단

จังหวัดคยองกี, จัดงาน "การเสวนาโยบายเพื่อสร้างระบบคุ้มครองสิทธิมนุษยชนของผู้ย้ายถิ่น" ...หรือเกี่ยวกับบทบาทและการเสริมสร้าง ระบบของรัฐบาลและหน่วยงานท้องถิ่น

เมื่อวันที่ 28 ตุลาคมที่ผ่านมา จังหวัดคยองกีได้จัดงาน "การเสวนาโยบายเพื่อสร้างระบบคุ้มครองสิทธิมนุษยชนของผู้ย้ายถิ่น" ขึ้นที่ห้องประชุมย่อยที่ 2 ของอาคารสภาแห่งชาติ โดยมีการหารือเกี่ยวกับแนวทางในการเสริมสร้างประสิทธิภาพของ "ข้อบัญญัติท้องถิ่น 3 ฉบับ" ว่าด้วยการคุ้มครองสิทธิมนุษยชนของผู้ย้ายถิ่น ซึ่งเป็นฉบับแรกของประเทศ การขยายการมีส่วนร่วมของผู้มีส่วนได้ส่วนเสียโดยตรง รวมถึงการสร้างระบบความร่วมมือระหว่างรัฐบาลและองค์กรปกครองส่วนท้องถิ่น

ข้อบัญญัติท้องถิ่น 3 ฉบับ ที่จังหวัดคยองกีประกาศใช้ในเดือนกันยายน ได้แก่ "ข้อบัญญัติว่าด้วยการห้ามการเลือกปฏิบัติทางเชื้อชาติและ การคุ้มครองสิทธิมนุษยชนของชาวจังหวัดคยองกีที่มีภูมิลำเนาจากการย้ายถิ่น", "ข้อบัญญัติว่าด้วยการคุ้มครองสิทธิมนุษยชนและการรับ ประกันการดำรงชีวิตขั้นพื้นฐานของผู้ลี้ภัยในจังหวัดคยองกี", "ข้อบัญญัติว่าด้วยการค้นหาและให้การสนับสนุนเด็กต่างชาติที่ยังไม่ได้จดทะเบียนเกิดในจังหวัดคยองกี"

งานในวันนั้นจัดขึ้นร่วมกับสมาชิกสภา พัด แซซอล และขอมมีฮวา (พรรคประชาธิปไตย), ยุน จงโอ และชนซอล (พรรคก้าวหน้า) โดยมีผู้เข้าร่วมประมาณกว่า 100 คน อาทิ คิม แดซุน รองผู้ว่าราชการจังหวัดคยองกีฝ่ายบริหารคนที่ 2, อี อินแอ สมาชิกสภาจังหวัดคยองกี, เจ้าหน้าที่จากคณะกรรมการสิทธิมนุษยชนแห่งชาติ และผู้อยู่อาศัยชาวต่างชาติ เป็นต้น

รองผู้ว่าราชการจังหวัดคยองกี คิม แดซุน กล่าวว่า "มีผู้

ย้ายถิ่นอาศัยอยู่ในจังหวัดคยองกีถึง 810,000 คน เกาหลีใต้กำลังก้าวเข้าสู่เส้นทาง ของการเป็นประเทศที่มีหลายเชื้อชาติและพหุวัฒนธรรมอย่างเต็มรูปแบบ" พร้อมเผยว่า "ต่อจากนี้ เราต้องก้าวไปให้ไกลกว่าการออก ข้อบัญญัติท้องถิ่น มุ่งสู่การเปลี่ยนแปลงที่เป็นรูปธรรมจริงๆ เนื้อหาที่ได้หารือกันในวันนี้จะถูกสะท้อนสู่การกำหนดนโยบาย เพื่อสร้างสังคม ที่ผู้ย้ายถิ่นสามารถใช้ชีวิตร่วมกันได้อย่างได้รับการเคารพและอยู่ร่วมกันอย่างกลมกลืน"

สมาชิกสภา พัด แซซอล กล่าวว่า "แม้ว่าระบบจะมีความก้าวหน้า แต่ความเป็นจริงที่ผู้ย้ายถิ่นต้องเผชิญในชีวิตประจำวันยังคงยากลำบาก อยู่มา" พร้อมเผยว่า "ผมจะพยายามมีส่วนร่วมในการสร้างสังคมที่ผู้ย้ายถิ่นได้รับการเคารพในฐานะสมาชิกของสังคมที่มีสิทธิเท่าเทียมกัน"

สมาชิกสภาจังหวัด อี อินแอ กล่าวว่า "ดิฉันจะทุ่มเทอย่างเต็มที่เพื่อเพิ่มประสิทธิภาพในการปฏิบัติของข้อบัญญัติท้องถิ่นทั้ง 3 ฉบับ ที่ประกาศใช้ในครั้งนี้" พร้อมเผยว่า "จะให้การสนับสนุนเพื่อให้ผู้ย้ายถิ่นสามารถเติบโตและตั้งรกรากได้โดยไม่ถูกกีดกันทางสังคม"

ประธานการประชุมในวันนั้นคือ อี จัสมิน ประธานองค์กรวัฒนธรรมหลากหลายของเกาหลี ส่วน ซอล ดงซุน ศาสตราจารย์จากภาควิชา สังคมวิทยา มหาวิทยาลัยชอนบุก ได้บรรยายภายใต้หัวข้อ "การเปลี่ยนแปลงของสังคมผู้ย้ายถิ่นในเกาหลีและความจำเป็นในการสร้างระบบ คุ้มครองสิทธิมนุษยชน"

ศาสตราจารย์ซอลกล่าวว่า "แม้ว่าเกาหลีจะถูกประเมินว่า

เป็นสังคมพหุวัฒนธรรมและสังคมผู้ย้ายถิ่นแล้ว แต่ระบบคุ้มครองสิทธิมนุษยชนยัง อยู่ในขั้นเริ่มต้น" พร้อมประเมินว่า "การออกข้อบัญญัติท้องถิ่นของจังหวัดคยองกีถือเป็นโมเดลนโยบายด้านสิทธิมนุษยชนที่ยอดเยี่ยม และสามารถเป็นมาตรฐานสำหรับการขยายไปทั่วประเทศได้"

ในการอภิปรายต่อมา มีการหารือเกี่ยวกับบทบาทของรัฐบาลกลางและรัฐบาลท้องถิ่น, ความยั่งยืนของระบบคุ้มครองสิทธิมนุษยชน, และแนวทางการปรับปรุงนโยบายโดยมุ่งเน้นจากพื้นที่ปฏิบัติจริง

นักวิจัย ชเว ซอริ จากสถาบันวิจัยนโยบายผู้ย้ายถิ่น เน้นย้ำถึงความสำคัญของการบริหารจัดการนโยบายผู้ย้ายถิ่นอย่างเป็นระบบ ของรัฐบาลกลาง และความสำคัญของการบูรณาการเชิงพื้นที่ของรัฐบาลท้องถิ่น

นาย โอคยองซอก ผู้อำนวยการศูนย์สนับสนุนการบูรณาการทางสังคมของผู้ย้ายถิ่น จังหวัดคยองกี กล่าวว่า "การทำให้เรื่องปกติธรรมดา เกี่ยวกับการคุ้มครองสิทธิมนุษยชนของผู้ย้ายถิ่นกลายเป็นกฎเกณฑ์นั้นไม่ง่ายเลย" พร้อมเผยว่า "ในการจัดทำข้อบัญญัติท้องถิ่นทั้ง 3 ฉบับ เราได้หารือกับหลายองค์กรสนับสนุนผู้ย้ายถิ่น, ชาวต่างชาติ, สมาชิกสภาจังหวัดคยองกี, ผู้เชี่ยวชาญด้านกฎหมาย, นักวิชาการ, และองค์กร ระหว่างประเทศมากกว่า 1 ปี และผลลัพธ์จากการหารือเหล่านี้ก็สามารถออกมาเป็นผลสำเร็จได้"

นายโอ ผู้อำนวยการศูนย์ กล่าวเพิ่มเติมว่า "เพื่อให้ข้อบัญญัติท้องถิ่นว่าด้วยการคุ้มครองสิทธิมนุษยชนของจังหวัดคยองกีมีประสิทธิภาพ... <중략, 한글 지난호 2면>

국내외 시를 배우고 이해하며 지역사회와 나눔 실천해요!

한국다문화교육상담센터 문학동아리 ‘위스토리 on!’ ‘시에 빠지다’ 우리들이야기 시화전

2025년 ‘늘배움학습동아리 지원사업’인 한국다문화교육상담센터 문학동아리 ‘위스토리 on!’의 시창작 교육 프로그램 ‘시에 빠지다’ 시화전이 지난 11월 1일, 수원 시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이날 시화전은 ‘제19회 수원시 평생학습축제’ 현장에서 회원 작품 41편을 판넬로 제작 전시해 진행됐다.

문학동아리 회원들은 5월 20일부터 9월 16일까지 수원시평생학습관 교육실에서 총 21시간에 걸쳐 문학교육과 창작에 열을 올렸다. 그 성과물이 ‘우리들 이야기’라는 주제로 완성된 것이다.

이번 시화전이 특히 의미 있는 것은 무료급식소 등 소외계층을 위한 문학 봉사활동(시낭송, 자서전 쓰기 교육, 바이올린 연주 등)을 통해 체득한 다양한 소재를 시

화 작품에 녹였다는 점이다. 시창작 교육 프로그램은 총 21시간에 걸쳐 시를 사랑하는 구성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문학교육과 글로벌시대의 경쟁과 공존을 위한 배움과 나눔을 실천하는 문학교육 및 봉사활동으로 구성됐다.

이를 통해 국내외의 시를 배우고 이해함으로써 글로벌한 시각과 문화적 공유를 통해 지역사회를 깊이 이해할 수 있었다. 또한 세계문화유산 도시인 수원을 시 쓰기를 통해 널리 알리고, 애乡심을 고취하는 문학 활동이 진행됐다.

이번 시화전은 소통과 화합을 위해 지역주민들과 더불어 지역사회를 이해하고 정서적 교류와 문화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서종남 대표는 “현대사회는 각박한 일상으로 인해 이웃 간의 소통이 부재하고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역사나 환경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거나 정보가 부족하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성인을 대상으로 ‘시 쓰기 교육’과 그 성과물로 하는 ‘시화전’을 통해 주변을 조명해 보고 지역민과의 관계 형성을 도모함으로써 수원시민으로서의 애乡심을 고취하며, 문화적 공유 및 행복한 지역사회 만들기에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제19회 수원시 평생학습축제에서 한국다문화교육상담센터 문학동아리 <위스토리on!(대표 서종남)>은 ‘수원을 새롭게 시민을 빛나게’ 비전 구현에 앞장서고 평생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공으로, 수원특례시장(이재준) 표창을 받았다. 송하성 기자



이주여성과 선주민여성 함께하는 소통

수원시외국인복지센터, ‘언니들의 수다’ 3차 활동 진행



수원시외국인복지센터(센터장 양해규)는 10월 23일 경기도 광주 화담숲에서 ‘공감소통역량강화 프로그램-언니들의 수다’ 3차 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이주여성과 선주민 여성이 함께 가을의 정취를 느끼며 소통하고 교류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 마련됐다.

참가자들은 단풍이 물든 화담숲을 함께 걸으며 자연을 감상하고, 서로의 삶과 문화를 나누며 이해의 폭을

넓혔다. 또한 팀별로 ‘가을을 담은 사진 미션’을 수행하며 각자의 시선으로 계절의 아름다움을 담아냈다. 웃음과 대화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참가자들은 자연스럽게 마음의 거리를 좁혀갔다.

산책 후 카페에서는 참가자들이 직접 촬영한 사진으로 ‘포토 콘테스트’를 열어 가장 인상 깊은 작품을 선정했다. 수상자에게는 소정의 상품이 전달되었으며, 참가자 모두가 서로의 작품을 보며 격려와 박수를 보냈다.

이어진 소감 나눔 시간에는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어 뜻깊었다”, “이주민 여성들의 밝은 모습에 힘을 얻었다” 등 다양한 소감이 이어졌다.

양해규 수원시외국인복지센터장은 “‘언니들의 수다’는 이주여성과 선주민이 함께 웃고 공감하며 진정한 이웃으로 성장하는 프로그램”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교류의 장을 통해 지역사회 통합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송하성 기자

한국다문화교육·상담센터, 달라서 더 아름다운 ‘다문화전시회’ 진행

수원시가 주최하고 ‘한국다문화교육·상담센터(센터장 서종남)’가 주관·운영한 ‘달라서 더 아름다운 다문화 전시회’가 지난 11월 1일 수원시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제19회 수원시평생학습축제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전시회는 다문화 관련 물품 전시 및 다문화 관련 이색 체험, 다문화 공연(몽골 전통춤) 등으로 꾸며졌다. 이 프로그램은 다양한 나라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생활용품을 관람하고, 전통 의상이나 모자 또는 액세서리 등을 외국인 강사의 해설과 안내로 직접 입어 보는 것은 물론 다문화 전통놀이 등을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한국다문화교육·상담센터 관계자는 “이러한 센터의 노력이 글로벌시대의 소통과 상생을 위해 내외국인이 타문화를 이해하고,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정서적 교류와 갈등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다문화시대의 상호교류와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송하성 기자



수원시청 1899-3300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031-257-8504 수원시외국인복지센터 031-223-0075 수원시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 031-247-1324
수원이주민센터 070-8671-3111 한국다문화교육상담센터 070-7523-3686 수원교육지원청 031-250-1335 수원여성의전화 031-232-7795
수원고용복지플러스센터 031-231-7864 범죠흐 112 수원서부경찰서 031-8012-0112 간첩신고 111 화재, 응급환자발생 및 병원정보 119 보건복지콜센터 129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1397 전기고장신고 123 수도고장신고 121 가스사고신고 1544-4500 법률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전국전화번호안내 114
세계시간안내 116 일기예보안내 131



이주민과 선주민 모두 지역사회와 어울려 공동체 의식 높여요!

오산시가족센터, '제13회 오산시 다하나한마음 대축제' 세계 각국의 음식과 문화를 체험

오산시(시장 이권재)와 오산시가족센터(센터장 이병희)는 지난 11월 1일 오산시청 광장에서 '제13회 오산시 다하나한마음 대축제'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오산에서 만나는 세계"를 주제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세계 각국의 음식과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이권재 시장을 비롯해 이상복 오산시의회 의장, 김동희 (사)나눔과 비움 이사장, 경기도의원, 오산시의원 등 내외빈과 다문화가족, 오산시민 등 3천여명이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병희 센터장은 "오산시가족센터가 2006년 개소해 내년이면 20주년을 맞게

된다. 지난 20년간 센터를 운영하며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쌓았다"며 "센터는 앞으로도 지역을 잇고 가족을 잇는 가족플랫폼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축제를 위해 수고한 오산시가족센터 종사자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도 오산시는 다문화가정이 지역사회 속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시민 모두가 행복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상복 의장은 "국적과 문화, 언어가 달라도 우리는 오산이라는 하나의 공동체"라며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배우는 오늘의 축제가 더 따뜻한 내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다양한 가족 지원이 공이 많은 센터 직원 등 유공자 12명에게 오산시장상과 오산시의회의장상, 국회의원상 등이 수여됐다. 이날 축제에서는 일본, 아프리카, 중국 등 10개국의 문화체험 부스가 운영돼 주말을 맞아 행사장을 찾은 시민들을 즐겁게 했다. 참가자들은 부스를 다니며 후우링 만들기, 드립커피 체험, 전통의상 착용 등 다양한 체험을 즐기고 각국의 문화를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었다. 또한 베트남, 멕시코, 미얀마 등 9개국의 전통음식 부스가 운영되어 시민들이 세계 각국의 맛을 경험했다.

무대에서도 다양한 공연이 펼쳐졌다. 라온제나의 바이올린 합주, 댄스 및 난타 공연 등 각 단체에서 춤과 연주를 선보였다. 이날 행사장을 찾은 한 시민은 "작년보다 날씨가 화창하고, 행사 규모도 커진 것 같다"며 "나라와 인종 상관없이 다 함께 즐길 수 있어서 재미있었다. 오산에서 세계를 만난 느낌이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오산시민과 다문화가족, 외국인 모두가 지역사회와 어울려 소속감과 공동체 의식을 높이는 뜻 깊은 행사가 됐다. 송하성 기자





가족친화문화프로그램 '우리가족 나들이' 일상에서 벗어나 가족 소중함 느껴요

오산시가족센터는 지난 11월 8일 가족친화문화프로그램 '우리가족 나들이'를 캐리비안베이 및 에버랜드에서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총 42가족, 169명이 참여하여 가족 간 정서적 소통과 함께하는 즐거움을 경험하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우리가족 나들이'는 오산시 내 가족들의 자녀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가족 간 유대감을 강화하기 위해 진

행됐다. 가족 구성원이 함께 체험활동을 즐기며 일상에서 벗어나 가족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도록 구성됐다.

오산시가족센터 관계자는 "가족친화문화프로그램 '우리가족 나들이'는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가족들이 아이들과 함께 여가 활동을 즐길 기회를 제공하여, 부모와 자녀 간 관계 개선에 긍정적인 변화를 끌어냈다"라고 전했다. 한편, 2025년 가족친화문화프로그램은 가족의

형태가 다양해지고 있는 사회적 변화에 맞추어,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가족 갈등을 완화하며, 자녀 양육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운영된다. 오산시가족센터는 앞으로도 가족 구성원이 함께 체험하고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이지은 기자

오산시가족센터, 다문화가족과 함께하는 '문화로 하나되는 김장체험' 모집

오산시가족센터(센터장 이병희)는 11월 25일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오산종합운동장 내 식당(경기동로 15)에서 결혼이민자 10명을 대상으로 '문화로 하나되는 김장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2025년 다문화가족초기정착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한국의 대표적인 겨울철 전통문화인 '김장'을 함께 체험하며 다문화가족이 지역사회 속에서 자연스럽게 한국문화를 이해하고, 이웃과의 정을 나누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기획되었다. 이번 김장 체험에는 결혼이민자 10명(한국 거주 5년 이내 우선 선정)이 참여하며, 신청

은 11월 12일(수)부터 11월 20일(목)까지 오산시가족센터 홈페이지 또는 홍보지의 QR코드를 통해 가능하다. 참여 확정자는 모집종료 후 개별 연락으로 안내될 예정이다. 참가자들은 이날 현장에서 양념 버무리기, 김치 포장 등의 과정을 직접 체험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 오산시지회 관계자는 "매년 김장철에 이웃을 위한 나눔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라며 "올해는 다문화가족과 함께 김장하며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산시가족센터

관계자는 "김장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이웃과 마음을 나누는 문화"라며 "이번 체험을 통해 결혼이민자가 한국의 따뜻한 정(情)을 느끼고 지역사회와 한층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다문화가족이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 받으며 지역사회 안에서 조화롭게 어우러질 수 있도록 돕는 데 의의를 두고 있다. 오산시가족센터는 앞으로도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과 문화적 소통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문의 070-4336-1406

이지은 기자

2025년 결혼이민자 정착지원사업 지원페이지

드림봉사단과 함께하는 테라리움 만들기 체험

대상 다문화가족 25명 (부모, 자녀 모두 참여 가능 / 선착순)
일정 2025.11.22.(토) 10:00~12:00
장소 오산시가족센터 프로그램실 2 (오산시 성호대로 83)
비용 무료
내용 나만의 작은 정원 '테라리움 만들기'
신청기간 2025.11.10.(월) ~ 11.20.(목) 18시까지
신청방법 오산시가족센터 홈페이지 신청
 * 참여하는 가족 구성원 모두 개별 신청해야 합니다.
 * 부모와 자녀 각각 따로 신청해주세요.

2025년 다문화가족초기정착지원사업

문화로 하나되는 김장체험

일시 11월 25일 화요일 오전 9:00-10:00
진행장소 오산종합운동장 내 식당 (경기동로 15)
오전 8:30까지 오산시가족센터로 모여주세요!
(센터 차량을 타고 함께 이동합니다)
대상 결혼이민자 10명 (우선순위▶한국 거주 5년 이내)
신청방법 QR코드 혹은 오산시가족센터 홈페이지 '신청' (참여확정은 개별안내)
신청기간 11월 12일 (수) ~ 11월 20일 (목)
문의 070-4336-1406 가족지원2팀

경기도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경기도청 핫라인으로 알려주세요!

긴급복지 핫라인 ☎ 010-4419-7722
긴급복지위탁상담 콜센터 ☎ 031-120
경기복G톡 (카카오톡에서 채널추가 후 채팅상담 가능)
☑ 긴급복지 콜센터 홈페이지 (https://www.gg.go.kr/welfarehotline)



경기도 7개 지역 결혼이민자 가족의 문화로 이어진 교류

구리시 여성예비 창업자 행복마켓 입주자 모집해요

구리시(시장 백경현)는 2026년 여성행복센터 행복마켓(창업체험실) 내년도 신규 입주자를 오는 11월 17일부터 24일까지 모집한다. 결혼이민자도 창업을 준비 중이라면 구리시의 행복마켓 입주를 고려해볼만 하다.

행복마켓은 구리시에 거주하거나 사무소를 둔 만 18세 이상 여성 초기 예비 창업자에게 창업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공간이다. 입주자는 지정 점포 내에서 냉난방 설비와 기본 사무용 가구를 지원받으며, 실제 창업 운영 전 과정을 직접 경험할 수 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행복마켓은 초기 창업자들의 첫걸음을 안전하게 지원하는 든든한 발판이다. 이번 모집을 통해 열정이 가득한 여성 초기 창업자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돕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여성행복센터 행복마켓의 입주 기간은 1년이며, 운영 평가 결과에 따라 최대 1년 연장이 가능하다. 공간 사용료는 월 10만 원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리시 여성행복센터(☎ 031-550-8303)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구리시는 창업혁신공간 조성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공간은 예비 창업자부터 7년 이내 창업기업까지 성장 단계별 입주 공간을 제공한다.

“다름을 넘어, 함께 춤추다” 구리시가족센터, 위대한 댄서 성과보고회 개최



구리시가족센터는 지난 11월 9일 구리아트를 유채꽃 소극장에서 결혼이민자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문화 소통 프로그램 ‘위대한 댄서’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위대한 댄서’는 결혼이민자 자녀들이 케이팝 댄스를 함께 배우며 세대·국적·지역의 경계를 넘어 소통하고 화합하는 문

화 배움 프로그램이다. 이번 사업은 세계 교육문화원 위카의 후원으로 ‘경기 북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구리시가족센터)’가 주관했으며, 구리시가족센터는 이번 행사를 통해 경기 북부 거점기관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경기도 각 지역과 협력하는 다문화 교류 기관으로서의 위상을 한층 강화했다.

성과보고회에는 경기도 내 7개 지역(구리시, 동두천시, 안산시, 안성시, 이천시, 부천시, 과천시)이 참여했으며, 결혼이민자 가족들이 그동안의 배움을 공유하고 공연으로 교류하는 뜻깊은 시간으로 꾸며졌다. 무대에서는 지역별 참가팀의 케이팝 댄스 공연이 이어지며 관객들

의 뜨거운 호응을 받았다. 윤성은 구리시가족센터장은 “다문화가족이 지역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자리 잡고, 자녀들이 세계화 시대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문화교육 확대와 지원에 힘쓰겠다”라며 “앞으로도 다문화가족의 성장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영상 축사를 통해 “이번 행사가 결혼이민자 가족들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함께 어울리며 성장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며 “경기도 내 7개 지역이 교류와 소통의 장을 구리시에서 함께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고 전했다. 송하성 기자

1인가구지원사업

구리농수산물공사와 함께하는 **식생활 개선 다이닝**

- 교육대상: 구리시 및 도내거주 1인가구 8명
- 교육장소: 구리농수산물공사 내 쿠킹스튜디오 (구리시 동구릉로 136번길 90)
- 교육일시: 11/24(월), 12/1(월) 10:00~13:00 중 택1
- 교육내용: 소갈비찜 만들기
- 신청방법: QR코드 신청 및 전화신청
- 문의: 070-8830-9009

◆ 신규 참여자 및 구리시 거주 우선 선발
◆ 모든 프로그램 무료
◆ 중복참여X

신청링크

문의의 중심
기회의 광기

구리시 구리시가족센터 GURIS FAMILY CENTER

2025 아빠와 자녀가 함께 하는 체험형 소통 프로그램

아빠랑 나랑 노랑

<아빠랑 만들기 소통 2>

올 한 해, 아빠와 함께한 추억을 되돌아보며 서로의 마음을 나누어요!

대상: 구리시 거주 초등, 중등 자녀를 둔 아빠와 자녀 30명

주제: 아빠와 크리스마스 디저트 캔들 & 석고 방향제 만들기

가정당 캔들 1P+석고방향제 2P

일시: 2025.11.22(토) 10:00~12:00

장소: 구리시 여성행복센터 행복동 5층 대교육장

← QR 코드 신청

구리시가족센터 GURIS FAMILY CENTER

문의: 070-8895-9263

공동육아나눔터 "꿈도담터"

꿈도담터 운영위원회 및 부모교육

행복한 우리 가족의 달콤한 과자집 만들기

- 모집대상: 꿈도담터 이용아동 및 부모(자녀와 함께 참여)
- 모집기간: 11월 17일(월) ~ 11월 26일(수)
- 교육일시: 11월 29일(토) 9:30~12:00
- 진행장소: 아차산로 453-1 구리시여성행복센터 5층 대교육장
- 신청방법: 구리시가족센터 홈페이지 > 프로그램 안내 > 프로그램 신청 > 꿈도담터 부모교육 클릭 (부모와 참여 자녀 모두 신청)
- 신청문의: 031-557-3874

구리시가족센터 GURIS FAMILY CENTER

Gyeonggi Province is proud to have the most advanced immigration policy in the country! 전국에서 가장 앞선 이주민 정책 제도화, 경기도가 자랑스럽다!

On October 28, Gyeonggi Province held a policy discussion meeting on establishing a human rights protection system for immigrants in the 2nd small conference room of the National Assembly Members' Hall to discuss ways to strengthen the effectiveness of the "Three Major Ordinances on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for Immigrants," the first of its kind in the nation, expand the participation of stakeholders, and establish a cooperative system between the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The three major ordinances enacted in September in Gyeonggi Province are the 'Gyeonggi Province Ordinance on Prohibition of Racial Discrimination and Guarantee of Human Rights for Residents with Migrant Backgrounds,' the 'Gyeonggi Province Ordinance on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Guarantee of Basic Living for Refugees,' and the 'Ordinance on Discovery and Support of Unregistered Foreign Children Born in Gyeonggi Province.'

The event, held together with National Assembly members Park Hae-cheol and

Seo Mi-hwa (Democratic Party), and National Assembly members Yoon Jong-oh and Son Sol (Progressive Party), was attended by approximately 100 people, including Gyeonggi Province 2nd Vice Governor Kim Dae-soon, Gyeonggi Province Council member Lee In-a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ficials, and foreign residents.

Deputy Governor Kim Dae-soon said, "There are 810,000 immigrants living in Gyeonggi Province alone. Korea is already on the path to becoming a multi-ethnic, multicultural nation." He added, "Now is the time to move beyond enacting ordinances and move toward real change. We will reflect the content discussed today in our policies to create a community where immigrants can live together with respect." Congressman Park Hae-cheol stated, "Despite institutional progress, the reality immigrants face on the ground remains dire. I will contribute to creating a society where immigrants are respected as members of society with equal rights."

Provincial Council Member Lee In-ae stated, "I will do my utmost to enhance

the enforcement of the three major ordinances enacted this time," adding, "I will support immigrants so they can grow and settle without social exclusion."

The event was moderated by Jasmin Lee, President of the Korea Cultural Diversity Organization.

Professor Seol Dong-hoon of the Department of Sociology at Chonbuk National University presented on the topic, "Changes in Korea's Immigrant Society and the Need for a Human Rights Guarantee System."

Professor Seol stated, "While Korea is already considered a multicultural and immigrant society, its human rights protection system is still in its infancy." He added, "Gyeonggi Province's ordinance serves as an excellent model for human rights policy and can serve as a benchmark for nationwide expansion." The ensuing discussion addressed the roles of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the sustainability of the human rights protection system, and field-focused policy improvement measures.

Choi Seo-ri, a research fellow at

the Korea Immigration Policy Institute,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the central government's systematic management of immigration policies and the integration of local governments' field-oriented policies.

Oh Gyeong-seok, director of the Gyeonggi Immigration and Social Integration Support Center, said, "It wasn't easy to standardize the common sense of guaranteeing migrant human rights." He added, "We spent over a year discussing the three ordinances with numerous migrant support organizations, foreign residents, the Gyeonggi Provincial Council, the legal community, academia,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as a result, we were able to achieve results."

Oh also stated, "To ensure the effectiveness of the Gyeonggi Province Human Rights Guarantee Ordinance, national-level institutional reform and the establishment of a metropolitan governance structure are necessary. I am proud of Gyeonggi Province, which is leading the nation in institutionalizing and implementing migrant policies."

〈중략, 한글 기사 지번호 2면〉

경기외국인SNS기자단

Иностранцы-нелегалы, пострадавшие от невыплаты зарплаты, меньше боятся депортации... Необходимы реальные меры защиты

В Южной Корее иностранцы-нелегалы постоянно живут в страхе из-за проверок. Особенно трудно, если они не получают зарплату за выполненную работу — им сложно пожаловаться на работодателя в Министерство труда. Это связано с тем, что чиновники обязаны сообщать в иммиграционную службу, если в ходе выполнения своих обязанностей узнают о нелегальном пребывании иностранца.

В связи с этим Министерство юстиции сообщило, что в целях создания стабильных условий труда для иностранных работников и минимизации ущерба от невыплаты зарплаты с 6 ноября будет введен а система освобождения от обязанности уведомления в случаях, когда иностранцы пострадали от невыплаты заработной платы. Согласно действующему закону

об управлении иммиграцией, если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или муниципальный служащий в ходе исполнения своих обязанностей узнаёт о факте незаконного пребывания иностранца, он обязан незамедлительно сообщить об этом руководителю местного управления иммиграционной службы.

Из-за этого иностранные рабочие, ставшие жертвами невыплаты зарплаты и других нарушений, часто боятся подавать жалобы, опасаясь принудительной депортации.

Поэтому Министерство юстиции внесло поправку, освобождающую инспекторов по труду от обязанности уведомлять и иммиграционные органы в случаях, когда иностранцы стали жертвами невыплаты зарплаты и других трудовых нарушений.

На самом деле ранее уже существова-

ло правило об освобождении от обязанности уведомления для пяти категорий:

▲иностранцы, обучающиеся в детском саду, начальной, средней или старшей школе ▲пациенты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медицинских учреждений ▲дети, находящиеся в детских домах ▲несовершеннолетние, проходящие консультации в центрах поддержки подростков ▲жертвы преступлений и нарушений прав человека.

Теперь к этим категориям добавлены и иностранцы, пострадавшие от невыплаты заработной платы.

Министр юстиции Чон Сон Хо заявил: «Введение этой системы создаёт условия, в которых иностранные рабочие смогут получать гарантии хотя бы минимальных прав. Министерство и дальше будет активно реагировать на проблемы, возни-

кающие на рабочих местах, и прилагать усилия для защиты прав социально уязвимых групп».

Однако это ещё не решает проблему полностью. Если иностранцы-нелегалы, не получившие зарплату, сообщают на работодателя в Министерство труда, некоторые работодатели, в отместку, сами доносят на этих работников. В результате иностранцев, пришедших для расследования факта невыплаты зарплаты, иногда задерживают прямо перед зданием Министерства труда.

Поэтому необходимы более конкретные меры, чтобы иностранцы-нелегалы, не получающие зарплату, могли реально защитить свои права.

Иностранные SNS-журналисты провинции Кёнгидо 〈한글 기사 33면〉



학업 스트레스 해소 및 네트워크 형성
남양주시가족센터, 결혼이민자 학업지원반 워크숍

남양주시가족센터는 지난 10월 22일 양평 외갓집체험 마을에서 ‘2025년 학업지원반 워크숍 및 하반기 평가회의’를 가졌다.

결혼이민자 학업지원반 15명이 참여한 이날 워크숍 외갓집체험마을에서 진행됐고 평가회의는 남양주 제2청사 별관 2층 한국어교실에서 진행됐다.

이날 행사는 조별 협력 활동을 통해 학업지원반 참여자간 교류와 유대감을 형성하고 2025년 운영 성과 점검 및 향후 학업지원반 운영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외갓집체험마을 워크숍에서는 솔뚜껍에 전부처 먹기, 군고구마 구워먹기 등 먹거리체험과 팻목타기, 낙엽

으로 손수건 물들이기, 농사체험(토마토 따기) 등 활동 체험을 진행했다.

남양주시청 2청사로 이동한 뒤 진행된 하반기 평가회의에서는 올해 학업지원반 운영 성과 및 검정고시 합격 현황 등을 공유하고 문제점 및 개선과제를 논의했다.

남양주시가족센터 관계자는 “이번 워크숍을 통해 참여자의 학업 스트레스 해소 및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에 큰 도움이 됐다”며 “평가회의를 통한 운영 성과 점검 및 향후 추진 방향 논의도 앞으로 학업지원반을 운영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하성 기자



겨울 맛이 따뜻한 손길 사랑의 김장 나누기

남양주시는 11일부터 12일까지 이틀간 마을공동체관에서 남양주시새마을회 주관으로 ‘사랑의 김장 나누기’ 행사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겨울을 앞두고 지역 내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정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매년 새마을지도자들과 함께 김장 나눔을 이어가며 나눔과 상생의 공동체 문화를 확산하고 있다.

행사에는 남양주시 16개 읍·면·동의 남·여 새마을지도자 250여 명이 참여했다. 참여자들은 무와 파수확부터 양념 속 준비, 배추 절이기, 포장까지 모든 과정을 직접 진행해 정성이 가득한 김치를 완성했다. 행사장을 찾은 주광덕 시장은 새마을지도자들을 격려하며 직접 김장에 참여해 온정을 더했다.

이틀 동안 정성껏 담근 약 4,000포기의 김치는 홀몸 어르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지역 내 취약계층 700여 가구에 전달됐다.

남양주시는 이번 행사를 통해 시민의 자발적인 나눔이 지역사회에 온기를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덕우 회장은 “이웃을 위해 솔선수범하며 나눔을 실천하는 새마을지도자들의 헌신에 감사드린다”며 “김장 김치 나눔을 통해 ‘나보다 우리’를 먼저 생각하는 공동체 정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주광덕 시장은 “시민이 직접 참여해 나눔을 실천하는 모습이 시의 가장 큰 자랑”이라며 “앞으로도 시는 민·관이 함께하는 나눔 문화를 확산해 따뜻한 공동체가 활성화되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남양주시새마을회는 된장·간장 나누기, 사랑의 밑반찬 나누기, 사랑의 송편 빚기, 하천정화활동, 교통안전 캠페인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이어가며 이웃사랑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 송하성 기자

남양주시민의 맞춤형 가족서비스

남양주시 가족센터

행복한 오늘과 든든한 내일을 보장하는 생애주기별 프로그램을 알려드립니다.

연령에 상관없이

- 가족사랑의날
- 개인·부부·가족상담
- 취약위기가족사례관리
- 가족캠프
- 한국어교육
- 다문화가족관계항상지원
- 결혼이민자 정착단계별 지원패키지
- 결혼이민자취업준비교육
- 통번역지원사업
- 다문화가족서포터즈
- 문화소통프로그램
- 다문화가족동아리(100, 200명)
- 다문화신문 구독지원

* 일부 프로그램은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합니다.

01 임신·출산

- 부모·부부역할지원
- 임신, 출산관련 및 정보제공

02 영유아

- 부모·부부역할지원
- 아이돌봄서비스
- 언어발달지원(미취학)
- 이중언어 교육지원
- 방문교육, 방문학습지(미취학)
- 공동육아나눔터(다산, 73사단)
- 다문화이해교육(기관)

03 학령기

- 부모·부부역할지원
- 다문화자녀진로지원
- 다문화가족자녀 교육활동비
- 청소년돌봄지원
- 언어발달지원(취학)
- 방문교육, 방문학습지(취학)
- 이중언어 교육지원
- 중도입국자녀프로그램

04 청년기

- 1인가구 식생활개선다이닝
- 1인가구 생활꿀팁바구니

05 중장년

- 부부역할 지원
- 중년부부 상담프로그램
- 1인가구 건강돌봄
- 1인가구 식생활개선다이닝
- 1인가구 생활꿀팁바구니

06 노년기

- 노부모 부양가족 맞춤프로그램
- 1인가구 건강돌봄
- 1인가구 생활꿀팁바구니



남양주시가족센터

문의 : 031-553-8211 / 553-8261

가장 앞선 이주민 정책 제도화, 경기도, '이주민 인권보장체제 구축 정책토론회'

Chính sách dành cho người nhập cư tiên tiến nhất cả nước, tự hào Gyeonggi!

Vào ngày 28 tháng 10 vừa qua, tỉnh Gyeonggi đã tổ chức "Hội thảo chính sách xây dựng hệ thống bảo đảm quyền con người cho người nhập cư" tại Phòng họp số 2, Nhà Quốc hội, nhằm thảo luận về việc tăng cường hiệu quả thực thi của "3 điều lệ bảo đảm quyền con người cho người nhập cư" được ban hành lần đầu tiên trên cả nước, mở rộng sự tham gia của các đối tượng liên quan và xây dựng cơ chế hợp tác giữa chính phủ và chính quyền địa phương.

Ba điều lệ được ban hành tại Gyeonggi vào tháng 9 gồm: "Điều lệ về cấm phân biệt chủng tộc và bảo đảm quyền con người đối với người dân có xuất thân di cư tại Gyeonggi", "Điều lệ về bảo vệ quyền con người và đảm bảo cuộc sống cơ bản cho người tị nạn tại Gyeonggi", và "Điều lệ về phát hiện và hỗ trợ trẻ em nước ngoài chưa đăng ký khai sinh tại Gyeonggi".

Buổi sự kiện hôm đó, được tổ chức cùng với các nghị sĩ Quốc hội Park Hae-cheol và Seo Mi-hwa (Đảng Dân chủ), Yoon Jong-oh và Son Sol (Đảng Tiến bộ), đã có sự tham dự của khoảng 100 người, bao gồm Phó Thống đốc Hành chính thứ 2 tỉnh Gyeonggi Kim Dae-soon, nghị sĩ tỉnh Gyeonggi Lee In-ae, đại diện Ủy ban Nhân quyền Quốc gia và cư dân nước ngoài.

Phó Thống đốc Kim Dae-soon cho biết: "Chỉ riêng tại tỉnh Gyeonggi đã có 810.000 người nhập cư sinh sống. Hàn Quốc đã đi trên con đường trở thành một quốc gia đa chủng tộc, đa văn hóa," đồng thời nhấn mạnh: "Bây giờ, chúng ta cần tiến xa hơn việc ban hành điều lệ để tạo ra những thay đổi thực chất. Những nội dung được thảo luận hôm nay sẽ được phản ánh vào chính sách để xây dựng một cộng đồng

nơi người nhập cư được tôn trọng và cùng chung sống."

Nghị sĩ Park Hae-cheol cho biết: "Mặc dù các chế độ đã có những tiến triển, nhưng thực tế mà người nhập cư phải đối mặt tại hiện trường vẫn hết sức nghiêm trọng," đồng thời nhấn mạnh: "Tôi sẽ đóng góp vào việc xây dựng một xã hội nơi người nhập cư được tôn trọng như những thành viên xã hội có quyền bình đẳng."

Nghị sĩ Lee In-ae của tỉnh cho biết: "Chúng tôi sẽ nỗ lực hết sức để tăng cường hiệu quả thực thi của 3 điều lệ vừa được ban hành," đồng thời nhấn mạnh: "Chúng tôi sẽ hỗ trợ để người nhập cư có thể phát triển và định cư mà không bị loại trừ xã hội." Chủ tọa buổi sự kiện hôm đó là Giám đốc tổ chức Đa dạng Văn hóa Hàn Quốc, ông Lee Jasmine. Giáo sư Seol Dong-hoon, Khoa Xã hội học, Đại học Jeonbuk, đã trình bày báo cáo với chủ đề "Những thay đổi trong xã hội nhập cư Hàn Quốc và nhu cầu xây dựng hệ thống bảo đảm quyền con người."

Giáo sư Seol nhận định: "Hàn Quốc đã được đánh giá là một xã hội đa văn hóa và nhập cư, nhưng hệ thống bảo đảm quyền con người vẫn đang ở giai đoạn đầu," đồng thời đánh giá: "Việc ban hành điều lệ của tỉnh Gyeonggi là một mô hình chính sách về quyền con người xuất sắc và có thể trở thành chuẩn mực để lan tỏa trên toàn quốc." Trong phần thảo luận tiếp theo, các vấn đề được bàn luận bao gồm vai trò của chính quyền trung ương và địa phương, tính bền vững của hệ thống bảo đảm quyền con người, cũng như các phương án cải thiện chính sách dựa trên

thực tiễn tại hiện trường.

Nghiên cứu viên Choi Seo-ri của Viện Nghiên cứu Chính sách Di cư nhấn mạnh tầm quan trọng của việc quản lý chính sách di cư một cách hệ thống của chính quyền trung ương và sự tích hợp dựa trên thực tiễn tại hiện trường của chính quyền địa phương.

Ông Oh Kyung-seok, Giám đốc Trung tâm Hỗ trợ Hội nhập Xã hội Người nhập cư tỉnh Gyeonggi, cho biết: "Việc chuẩn hóa những nhận thức phổ quát về bảo đảm quyền con người cho người nhập cư không hề dễ dàng," đồng thời nói thêm: "Quá trình soạn thảo 3 điều lệ đã kéo dài hơn 1 năm với nhiều cuộc thảo luận cùng các tổ chức hỗ trợ người nhập cư, cư dân nước ngoài, Hội đồng tỉnh Gyeonggi, giới luật pháp, học thuật và các tổ chức quốc tế, và kết quả là chúng tôi đã đạt được thành quả như ngày hôm nay."

Ông Oh cũng cho biết: "Để nâng cao hiệu quả thực thi của điều lệ bảo đảm quyền con người tại Gyeonggi, cần cải thiện các chế độ ở cấp quốc gia và xây dựng cơ chế quản trị ở quy mô khu vực," đồng thời nhấn mạnh: "Tỉnh Gyeonggi tự hào là nơi đi đầu cả nước trong việc thể chế hóa và hiện thực hóa chính sách dành cho người nhập cư."

Dựa trên những nội dung được thảo luận tại hội thảo lần này, tỉnh Gyeonggi dự kiến sẽ thúc đẩy việc tăng cường hiệu quả thực tiễn của chính sách bảo đảm quyền con người cho người nhập cư, xây dựng cơ chế quản trị thông qua việc mở rộng sự tham gia của người nhập cư, và thiết lập hệ thống hợp tác giữa chính phủ và chính quyền địa phương.

<한글 기사 지난호 2면> 경기외국인SNS기자단

移民子女也可以使用的京畿道照护·医疗·教育项目! 경기도 이주민도 이용해요~

幼儿园24小时安心照护体系

京畿道将24小时照护机构'언제나 어린이집'从现有的11个扩大到了14个。

360° 随时照护的"언제나 어린이집"不仅是平日,周末、公休日、夜间及凌晨365天(24小时)运营的保育设施,紧急状况或家庭照护出现空缺时,任何时间都能放心托育的紧急照护设施。《照片为京畿道》

14所幼儿园位于▲富川市▲南杨州市▲金浦市▲河南市▲利川市▲高阳市▲安山市▲安养市(2所)▲议政府市▲抱川市(2所)▲军浦市▲光明市等。居住在京畿道的婴幼儿(6个月以上7岁以下学前)的监护人,无论是在家庭养育子女还是上幼儿园,是否居住在不同地区,任何人都可以不受限制地使用"언제나 어린이집"。

运营时间为24小时,预约一次最多可连续申请5天。使用费用是每小时3000韩元。申请可以咨询"儿童随时照顾中心(010-9979-7722)",但是夜间、凌晨照护需要在前一天下午6点之前提前预约。

监护人(申请人)应携带身份证、可以确认与婴幼儿关系的身份证复印件或家庭关系证明书(外国人需携带外国人登记事实证明书),并需准备子女所需的物品(尿不湿、个别床上用品、备用衣服、零食等)。

随时安心就医:月光儿童医院

京畿道运营了37所"月光儿童医院",为儿童夜间·节假日门诊提供稳定的就诊环境。

月光儿童医院提供平日夜间(23时)和周末、公休日18时)的门诊服务。京畿道通过扩大指定医院并强化支援,将数量从2021年的5处提升到2025年的37处。

月光儿童医院在夜间和节假日为轻症儿童提供诊疗,减少急诊室的拥堵,使重症儿童能及时接受治疗。

随着月光儿童医院的扩大运营,构建了将小儿重症患者引导到小儿应急责任医疗机构(盆唐车医院、亚洲大学医院、国民健康保险一山医院),将轻症患者引导到月光儿童医院及脆弱地区诊疗机构的联系体系。通过这一措施,构建了医院间作用明确的阶段性小儿应急诊疗体系。

培养全球视野的特别英语体验

京畿道终身教育振兴院京畿未来教育坡州校区为迎接即将到来的圣诞节,将运营帮助儿童提升全球感知力的特别英语体验项目。

活动从11月15日到12月13日的5周,每周六进行,分为幼儿对象"幼儿班"和小学对象"小学班",主要节目是和外教一起的体验课以及和家人一起享受的创作英语音乐剧。

体验课活动内容有以圣诞节为主题制作曲奇,以及用英语沟通的"烹饪课堂"和亲自制作圣诞装饰品的"艺术课堂"。由在美国、英国等英语国家学习戏剧或音乐剧、或拥有相关经验的外籍教师参与演出,通过歌唱和故事让孩子们自然接触英语。

所有课程都可以通过现场报名参加,各项目的人数上限是▲烹饪班(幼儿班20名,小学班20名)▲艺术班(幼儿班20名,小学班20名)等。参加费是1个项目1万韩元(1人),英语音乐剧是1万2千韩元(1人)。具体日程请登录京畿道终身教育振兴院官网(gill.or.kr)确认。<한글 기사 25면>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여러분, 혹시 겨울 난방비가 걱정되나요?

Hỗ Trợ Chi Phí Sưởi Ấm Mùa Đông 'Sarang ON' 겨울철 난방비 지원 사업 '사랑ON'

Bạn là người nước ngoài đang sinh sống tại Hàn Quốc đang gặp khó khăn với chi phí sưởi ấm trong mùa đông này? Đừng lo lắng! Tổng công ty Cấp nhiệt Khu vực Hàn Quốc (KDHC) sẽ hỗ trợ bạn có một mùa đông ấm áp!

***'Sarang ON (溫) Heating Bill' là gì? :** Đây là dự án đóng góp xã hội của KDHC nhằm hỗ trợ chi phí sưởi ấm mùa đông cho các cá nhân có thu nhập thấp, cơ sở phúc lợi xã hội và doanh nghiệp xã hội.

***Ai có thể đăng ký? :** Các cá nhân (bao gồm người nước ngoài cư trú tại Hàn Quốc) và gia đình đang gặp khó khăn về chi phí sưởi ấm trong mùa đông này.

Người nước ngoài cần nộp "Giấy chứng nhận đăng ký người nước ngoài" hoặc "Giấy chứng nhận nơi cư trú trong nước."

***Mức hỗ trợ là bao nhiêu? :** 500.000 Won với mỗi cá nhân hoặc gia đình đăng ký

***Thời gian nộp đơn :** Từ ngày 27 tháng 10 năm

2025 (Chủ Nhật) đến ngày 23 tháng 11 năm 2025 (Chủ Nhật)

***Cách thức đăng ký :** Truy cập trang web chính thức: www.kdhc-loveon.com

Nhấn vào '사업신청' (Đăng ký dự án) ▶ '신청서접수' (Nộp đơn đăng ký), Điền và nộp đơn trực tuyến.

***Công bố danh sách được chọn vào ngày 11/12/2025 (Thứ Tư)**

Chi trả chi phí hỗ trợ dự kiến vào 23/12 (Ngày chi trả có thể thay đổi và sẽ được thông báo riêng)

***Thông tin liên hệ :** Văn phòng Hỗ trợ Chi phí Sưởi ấm Sarang ON (溫) (do KDHC điều hành) 1555-6029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으로서 이번 겨울 난방비가 걱정되시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한국지역난방공사(KDHC)가 여러분의 따뜻한 겨울을 응원합니다!

***'사랑ON 난방비'는 무엇인가요? :** 한국지역난방공사(KDHC)의 사회공헌 활동으로, 저소득층 개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적 기업의 겨울철 난방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이번 겨울 난방비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한국 거주 외국인 포함) 및 가구.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제출 필수.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 신청하는 개인 또는 가구당 500,000원

***신청 기간 :** 2025년 10월 27일 (일) ~ 2025년 11월 23일 (일)

***신청 방법 :** 공식 웹사이트 접속: www.kdhc-loveon.com

'사업신청' 클릭 ▶ '신청서접수' 클릭,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주요 일정**

선정 결과 발표: 2025년 12월 11일(수) / 지원금 지급 예정일: 12월 23일 (지급일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별도 안내 예정)

***문의처 :** 사랑ON(溫) 난방비 지원 사무국(KDHC 운영) 1555-6029 이유미 기자 경기외국인SNS기자단

한국지역난방공사의 함께하는 2025 사랑ON 난방비
Hỗ Trợ Chi Phí Sưởi Ấm 2025!

Người nước ngoài tại Hàn Quốc cũng có thể đăng ký!
Bạn đang gặp khó khăn với chi phí sưởi ấm mùa đông? Tổng công ty Cấp nhiệt Khu vực Hàn Quốc (KDHC) sẽ hỗ trợ bạn có một mùa đông ấm áp!

경기외국인 SNS 기자단

Đối tượng & Mức hỗ trợ!
Gia đình/cá nhân gặp khó khăn về kinh tế, khó khăn về chi phí sưởi ấm mùa đông.
※ Bao gồm người nước ngoài

- Cá nhân**: 500.000 Won
- Cơ sở phúc lợi xã hội**: 1.000.000 Won
- Doanh nghiệp xã hội**: 1.000.000 Won

경기외국인 SNS 기자단

Thời gian Đăng ký

Thời gian nộp đơn:
27. 10. 2025 (CN) ~ 23. 11. 2025 (CN)

Công bố kết quả:
11. 12. 2025 (Thứ Tư)

Ngày thanh toán:
23. 12. 2025 (Thứ Ba) (Dự kiến)

※ Đăng ký trực tuyến không theo thứ tự ưu tiên, mà theo thời gian quy định.

경기외국인 SNS 기자단

Cách thức Đăng ký \$ Giấy tờ cần thiết

Cách Thức Đăng Ký (Online)

1. Truy cập trang web chính thức: www.kdhc-loveon.com
2. Đăng ký thành viên với tư cách cá nhân.
3. Nhấn '사업신청' (Đăng ký dự án) -> '신청서접수' (Nộp đơn đăng ký).
4. Điền đơn và đính kèm các tài liệu cần thiết.

Giấy tờ Cần Thiết Bắt Buộc

- (Đối với cá nhân nước ngoài): Giấy chứng nhận đăng ký người nước ngoài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Hoặc Giấy chứng nhận nơi cư trú trong nước (국내거소사실 증명서)
- Ảnh chụp môi trường sống và thiết bị sưởi ấm (Lò hơi, bộ điều chỉnh nhiệt, v.v.)
- Đơn đồng ý thu thập thông tin cá nhân (Có sẵn trong mẫu đơn đăng ký)

경기외국인 SNS 기자단

Thông tin liên hệ

Trang web chính thức (Đăng ký): www.kdhc-loveon.com

Mọi thắc mắc liên hệ:
Văn phòng 'Sarang ON (溫) Heating Bill' ☎ 1555-6029 (Thứ Hai ~ Thứ Năm, 10:00 ~ 17:00)

Đừng bỏ lỡ cơ hội! Hãy nộp đơn trước ngày 23/11 để có một mùa đông ấm áp nhé!

경기외국인 SNS 기자단

1599 0903 .or.kr

지금 예약하기

인터넷(모바일) 접속 www.15990903.or.kr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599-0903**



이주민의 지역사회 안정 정착 지원! 남양주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지난 10월 21일 '2025년 제2차 남양주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홍지선 남양주시 부시장을 비롯한 남양주북부경찰서, 남양주외국인복지센터, 남양주시 가족센터, 외국인근로자 및 이주여성 등 7명의 위원들이 참석했다.

회의는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가족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올해 추진사업의 성과를 점검하며 2026년 추진계획을 심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위원들은 △2025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주요사업 추진실적 보고 △2026년 지원계획 심의 △사업 개선방안 및 기관별 협조사항 등 다양한 주제를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홍지선 부시장은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은 우리 지역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이다"라며, "소통과 협력을 통해 다양한 문화가 존중받고 시민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남양주를 만들기 위해 시와 각 기관이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남양주시는 이번 회의에서 제시된 의견을 적극 반영해 내년도 다문화정책을 보완하고 '인권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안전한 남양주' 및 '다문화가족과 모든 가족이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라는 비전으로 △이민자 사회통합을 위한 복지 지원 △문화 다양성 존중과 다문화 감수성 향상 △다문화 아동·청소년 맞춤형 성장지원 △결혼이민자 정착 및 자립지원 등 9개 중점과제 아래에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지은 기자

남양주시, 건강한 결혼생활 위한 '2025 청년 결혼학교'

남양주시는 지난 8일 청년창업센터 4층 교육실에서 '2025 청년 결혼학교'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2025 청년 결혼학교'는 청년들의 결혼에 대한 심리적 불안감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결혼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남양주 청년의 제안으로 올해 처음 시행한 청년정책사업이다. 이 프로그램은 다문화가정 예비부부에게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교육은 11월 1일과 8일, 총 2회에 걸쳐 진행됐으며, 30여 명의 청년 부부와 커플 또는 결혼에 관심있는 청년들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결혼생활 및 준비에 대한 현실적인 고민을 나누고, 행복한 결혼생활을 위한 다양한 교육과 체험도 함께했다.

1회차에서는 △기질 및 성격검사로 상대방 이해하기 △부부 재정 설계 등을 진행해 '우리'를 알아보고 결혼생활의 기초를 배웠다.

2회차에서는 △부부·부모 준비 △선배 부부와의 만남 △손편지 작성 △우리만의 소품 제작 등 소통과 체험 중심의 프로그램이 이어져 참여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날 교육에 참여한 한 예비부부는 "결혼은 서로에 대한 이해와 준비의 과정이라는 걸 다시 생각해 보게 됐다"며, "이번 프로그램이 결혼 준비와 앞으로 결혼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주광덕 시장은 "소중한 관계일수록 많은 관심으로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서로 배려하며 건강한 가정을 이뤄가길 바라고, 시에서는 청년들이 있는 곳에 항상 함께하며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Illegal aliens who suffered wage arrears have lessened their fears of forced eviction... Substantial relief measures must be put in place

In Korea, illegal aliens are constantly targeted for crackdowns and live in fear. It's especially difficult to report employers to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if they haven't been paid for their work.

This is because civil servants are required to report illegal aliens to the Immigration Office if they learn of their employer's presence while performing their duties.

Accordingly, the Ministry of Justice announced that it will revise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Immigration Control Act' to create a stable work environment for foreign workers and minimize damage from wage arrears and implement the 'Exemption System for Foreigners Who Are Victims of Wage Arrears' starting November 6.

The current Immigration Control Act stipulates that national or local government officials who become aware of a foreigner's illegal stay while performing their duties must immediately report the matter to the head

of the regional immigration office or foreigner detention center.

This has led to concerns that foreign workers who have suffered damages, such as wage arrears, are hesitant to report their rights for fear of being deported.

In response, the Ministry of Justice revised the enforcement regulations to exempt foreign workers who have suffered damages, such as wage arrears, from the labor inspector's reporting obligation.

In fact, there were already regulations exempting the notification requirement for the following five categories: ▲Foreigners enrolled in kindergartens, elementary, middle, or high schools; ▲Patients at public health and medical institutions; ▲Children receiving counseling at youth counseling centers; ▲Victims of crime and those receiving relief for human rights violations. Foreign nationals with unpaid wages are now included in this category. Regarding this, Minister of Justice Jeong

Seong-ho stated, "With the implementation of this system, an environment has been created in which foreign workers can be guaranteed minimum rights," and "Going forward, the Ministry of Justice will actively respond to problems that arise in the workplace and strive to protect the rights of the socially vulnerable."

However, this doesn't solve the problem. When undocumented foreign residents report their employers to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the employers sometimes retaliate by reporting the foreign workers.

This can lead to foreign workers being arrested in front of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after investigations into unpaid wages.

Therefore, more concrete measures are needed to ensure that undocumented foreign residents can effectively protect their rights. <한글 기사 33면>

PapayaStory



광주시가족센터 삼리초와 함께 세계 문화 행사 체험부스 운영

광주시가족센터는 지난 10월 28일 광주 삼리초등학교에서 열린 '2025 삼리 한울타리 축제'에 참여해 학생·지역주민이 세계 문화를 직접 만나볼 수 있는 특별한 체험의 장을 마련했다. 이번 행사에는 볼리비아, 몽골, 필리핀, 중국 출신의 결혼이민자 활동가 5명이 참여해 각 나라의 전통 의상과 생활 물품을 소개하며 세계 전통문화체험 부스를 운영했다.

참여 학생들은 전통 의상을 입어보고 물품을 만져보며 자연스럽게 세계 문화를 이해했다. 또한, 세계 여러 나라의 상징과 문화를 판박이 스티커로 체험하는 부스를 함께 운영했다.

행사 참가자들은 부스에서 전통 의상을 직접 착용해 보거나 전통 물품을 체험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또 문화 요소 판박이 스티커를 붙이며 배운 세계의 인사말을 활용해 보고 문화 이해도를 높일 수 있었다. 이번 축제에서는 광주시가족센터뿐 아니라 학생·학부모가 준비한 문화 부스도 함께 운영됐다. 학생들은 자신이 준비한 음식을 소개하고 친구와 이웃에게 배운 문화를 설명하는 모습을 통해 지역사회가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한울타리의 의미를 보여주었다. 이번 행사는 삼리초와 광주시가족센터가 함께 마련한 다문화 이해 교육의 결실이다. 김영의 기자

광주시가족센터(센터장 이수희)는 지난 10월 25일부터 11월 6일까지 초등학교 3~6학년 다문화가족 자녀를 대상으로 한 역사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우리 역사와 문화유산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체험 중심의 학습을 통해 자긍심과 정체성을 함양하는 것을 목표로 총 3회기 운영됐다.

1회기에서는 'ঐ(사)통팔달' 역사 강의를 통해 한국사의 기초와 조선 시대 문화, 선사시대의 유물 등을 배우며 역사에 대한 흥미를 높였다. 2회기에서는 '경복궁 체험'이 진행되어 어린이들이 직접 궁궐 곳곳을 탐방하고 왕실 문화를 체험하며 조선 시대의 생활상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다. 마지막 3회기에서는 '국립중앙박물관

선사관 탐방'을 통해 선사시대의 유물을 관람하고, 유물 속에 담긴 조상들의 지혜를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한 참여자는 "교과서에서만 보던 경복궁을 직접 걸어보니 신기했고, 옛날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더욱 궁금해졌다"고 말했다. 부모들 역시 "아이들이 한국 역사에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게 되어 좋았다"고 했다.

이수희 센터장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직접 체험하며 정체성과 자긍심을 키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070-4706-3618

김영의 기자

다문화언어발달지원사업 부모교육

말이 트이면, 마음도 트인다.

우리 아이와의 대화 할 미래를 직접 경험해보세요!



프로그램

인사말
또래 조음(발음)발달기준
가정 내 발음촉진방법
문해력 발달기준
가정 내 문해력촉진방법
사회적기술
가정내 사회적기술촉진방법
질문 & 답



일정 및 장소

- 2025년 11월 21일 (금) AM 10:00 - 12:00
- 광주시가족센터 제1교육장 (본관2층)

참가방법

- 사전 신청 필수
- 신청 방법: 전화접수 및 대면접수

신청 및 문의

- 강사: (현) 광주시가족센터 언어발달지도사
- Tel: 070-4706-3627



광주시가족센터

광주시공동육아나눔터 프로그램

슬라임파티

12월 11일(목)



*2022년생~2016년생

참여대상 4세~10세 자녀를 둔 5가정
(부모 자녀 함께 참여, 자녀 수 대로 제품 제공)

* 우선 순위: 1. 품앗이 회원 가정
2. 신규가정

신청기간 11/13(목) 10시 ~ 11/23(일) 23시

일시 12/11(목) 16:00~17:00 (총 1회기)

장소 광주시가족센터 2층, 1교육장
주소: 경기도 광주시 통미로 52번길 19

내용 슬라임 놀이
*강사없이 슬라임제품 제공되는 프로그램입니다.
부모 자녀 자유롭게 활동하시면 됩니다~~^^

신청방법 광주시가족센터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신청!

- 센터 홈페이지 접속 (<https://gggj.familynet.or.kr>)
- 센터 홈페이지 회원 가입
- 프로그램 안내 - 프로그램 신청 - '슬라임파티' 신청

*부모, 자녀 각각 아이디로 로그인 후 신청 (부모, 자녀 모두 신청 필수)

[필수사항] 프로그램 참여 확정 후 취소 및 당일 불참 시, 추후 센터 프로그램 참여에 제한이 있습니다. 다수의 참여자가 신청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참여 확정 연락을 받지 않을 시 신청이 취소됩니다.

문의전화 070-4706-3616
(점심시간: 12:00~13:00)



광주시가족센터

Солонгос судлалын чиглэлээр мэргэшсэн, солонгос хэлний чадвар өндөртэй гадаадын иргэдийн хувьд Гёнги аймагт нэвтрэх нь илүү хялбар болно

Цаашид Солонгос судлалын чиглэлээр мэргэшсэн, TOPIK 6-р түвшний чадвартай гадаадын иргэд Гёнги аймагт нэвтрэхэд илүү хялбар болох юм.

Хууль зүйн яам (сайд Жон Сон Ху) нь гадаад руу өргөжин гарч буй Гёнги аймгийн болон Солонгосын компаниудын дэлхий дахинд өрсөлдөх чадварыг сайжруулах зорилгоор гадаадад буй ирээдүйтэй чадварлаг боловсон хүчнийг дотоодын дадлагын хөтөлбөрт оролцуулах хэрэгтэй гэсэн аж үйлдвэрийн салбарын шаардлагад нийцүүлэн гурван төрлийн шинэ журам боловсруулж, 10-р сарын 29-нөөс хэрэгжүүлж эхэлнэ гэж мэдэгджээ.

1. ① Гадаадын их сургуулийн Солонгос судлалын чиглэлээр мэргэшсэн, солонгос хэлний чадвар хамгийн өндөр (TOPIK 6-р түвшин) иргэд болон

② Дэлхийн их сургуулийн чансаанд 200-д багтсан сургуулийн төгсөгчдийн хувьд ажил хайх болон хөдөлмөр эрхлэх визний шаардлага хөнгөлөгдөх буюу чөлөөлөгдөж, Гёнги аймаг болон Солонгост илүү чөлөөтэй ажил хайх, ажиллах боломж олгоно. Эдгээр эрийн дотор Вьетнам, Хятад, Тайланд, Япон, Энэтхэг, Индонез, Малайз, Сингапур, Филиппин зэрэг 9 улсын QS чансаанд 1,000-д багтсан инженер, технологийн чиглэлийн их сургуулиуд ч орно. Эдгээр хүмүүст ажил хайх (D-10-1) виз мэдүүлэх үед онооны систем болон санхүүгийн шаардлагаас чөлөөлөгдөж,

тусгай үйл ажиллагааны (E-7) виз мэдүүлэхэд мэргэжил, ажлын туршлагын шаардлагаас чөлөөлөгдөнө.

Мөн ③ 29 наснаас доош залуусын хувьд, дээр дурдсан 9 улсын QS чансаанд 1,000-д багтсан инженерийн чиглэлээр бакалавр ба түүнээс дээш зэрэгтэй бөгөөд TOPIK 2-р түвшинд хүрэхүйц солонгос хэлний чадвартай бол D-10-1 виз мэдүүлэхэд 20 оноо нэмэлтээр авах, E-7 виз мэдүүлэхэд ажлын туршлагын шаардлагаас чөлөөлөгдөх боломжтой.

2. ① Гадаад дахь Солонгос болон Гёнги аймгийн компаниуд тухайн орны их сургуулиудтай хамтран дэмждэг, сургадаг бакалаврын 3-р курс ба түүнээс дээш (магистр, доктор оюутнууд орно) гадаад оюутнууд болон, ② Гадаад дахь салбартаа ажилд орсон гадаад мэргэжилтнүүд Гёнги аймаг дахь төв оффист дадлагад оролцож, мэргэжлийн ур чадвараа хөгжүүлэх боломжийг олгох зорилготой “Компани тохирсон дадлагажигч (K-Trainee)” хөтөлбөрийг шинээр нэвтрүүлжээ.

Энэ журам нь дээр дурдсан Ази тивийн 9 улсыг хамрах бөгөөд 2 жилийн хугацаанд туршилтаар хэрэгжүүлсний дараа өргөтгөх эсэхийг шийдвэрлэх юм.

Энэхүү хөтөлбөрийг гадаад иргэд шууд мэдүүлэх боломжгүй бөгөөд зөвхөн Гёнги аймаг болон Солонгост байрлах компаниуд өөрийн байршлын харьяа

цагаачлал, гадаад иргэдийн газарт мэдүүлэг гаргах ёстой.

3. Гёнги аймгийн их сургууль төгссөн гадаад оюутнуудын ажил эрхлэлт болон дасан зохицох орчныг дэмжинэ. Хууль зүйн яам Гёнги аймаг болон дотоодын их сургуулийг төгссөн гадаад оюутнуудын ажил хайх болон суурьших дэмжлэгийг сайжруулахын тулд ажил хайх (D-10) визний журамд шинэчлэлт хийжээ. Өмнө нь ажил хайх (D-10) визээр 2 жил л оршин суух боломжтой байсан бол, одоо 3 жил хүртэл оршин суух боломжтой болж, мөн ажил хайх зорилготой дадлагын хугацааг сунгах гэх мэт ажлын талбараас гарсан санал хүсэлтийг тусгасан байна.

Жон Сон Ху Хууль зүйн сайд хэлэхдээ, “Бид салбарын дуу хоолойг сонсож, Гёнги аймаг болон манай компаниудын хүсэл буй ирээдүйтэй мэргэжилтнүүдийг бэлтгэх, ажилд авахад дэмжлэг үзүүлэхийн тулд олон төрлийн ур чадвартай хүмүүсийг татах замыг нээж өглөө. Мөн гадаад дахь салбартаа мэргэжилтнүүдийг буцаан илгээж, компаний өрсөлдөх чадварыг нэмэгдүүлэх бодлого боловсруулсан.” мөн цааш нь, “Ирээдүйд ч аж үйлдвэрийн салбарын бодит хэрэгцээг тусган, олон улсын авьяастнуудыг татах, тэдний Гёнги аймаг болон Солонгост суурьших орчныг сайжруулах бодлого боловсруулна” гэж мэдэгджээ.

경기외국인SNS기자단

Кенгидо - самое передовое институционалирование политики в отношении мигрантов в стране! 경기도 이주민 인권보장 토론회

Провинция Кёнги 28 октября в зале №2 Национального собрания провела «Политическую дискуссию по созданию системы защиты прав мигрантов», на которой обсуждались усиление эффективности впервые в стране принятого «комплекта из трёх постановлений о защите прав мигрантов», расширение участия самих мигрантов, а также меры по формированию системы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между правительством и местными органами власти.

Три постановления, принятые в сентябре в провинции Кёнги, — это «Постановление о запрете расовой дискриминации и обеспечении прав человека для жителей провинции Кёнги с миграционным происхождением», «Постановление о защите прав беженцев и обеспечении базовых условий жизни в провинции Кёнги», «Постановление о выявлении и поддержке иностранных детей без регистрации рождения в провинции Кёнги».

В мероприятии, проведённом совместно с депутатами Национального собрания Пак Хэчхоль и Со Михва (Демократическая партия), а также Юн Чонго и С

он Сол (Партия прогресса),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заместитель губернатора провинции Кёнги по административным вопросам №2 Ким Тэсун, депутат провинциального собрания Ли Инэ, представители Национальной комиссии по правам человека, иностранные жители и другие — всего более 100 человек.

Заместитель губернатора Ким Тэсун отметил: «В одной только провинции Кёнги проживает 810 тысяч мигрантов. Корея уже вступила на путь многорасового и мультикультурного государства» и добавил: «Теперь нужно перейти от принятия постановлений к реальным изменениям. Мы отразим результаты сегодняшнего обсуждения в политике и создадим сообщество, где мигранты живут с чувством уважения».

Депутат Пак Хэчхоль сказал: «Несмотря на развитие институциональной системы, реальность, с которой сталкиваются мигранты на местах, остаётся сложной», подчеркнул: «Мы будем содействовать созданию общества, где мигрантов уважают как равноправных членов».

Депутат провинциального собрания Ли Инэ заявил:

«Мы сделаем всё возможное, чтобы повысить эффективность исполнения трёх вновь принятых постановлений» и добавил: «Мы будем поддерживать мигрантов, чтобы они могли расти и закрепляться в обществе без социальной изоляции».

Председателем заседания в этот день выступила И Джасмин, председатель правления Корейского института культурного разнообразия. Профессор кафедры социологии Национальн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Чонбука Соль Донхун выступил с докладом на тему «Изменения иммиграционного общества Кореи и необходимость создания системы защиты прав человека».

Профессор Соль отметил: «Хотя Корею уже оценивают как мультикультурное и иммиграционное общество, система защиты прав человека всё ещё находится на начальной стадии», и подчеркнул: «Принятие постановлений провинцией Кёнги — великолепная модель правозащитной политики и может стать эталоном для распространения по всей стране».

〈중략, 한글 기사 지난호 2면〉

경기외국인SNS기자단

'이주민 다문화 인식 개선' 조사

광주시, 나라 사랑 보훈 문화 행사서 실시



광주시는 지난 1일 호국보훈공원에서 열린 '2025년 순국선열의 날 기념 나라 사랑 보훈 문화 행사'에서 광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주민다문화분과가 주관한 '이주민·다문화 인식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순국선열의 날(11월 17일)을 앞두고 일상 속 보훈 실천과 나라 사랑의 의미를 되새기며 지역사회 내 다문화 인식 현황을 파악하고 상호 이해 증진을 위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행사장 내에 설치된 설문 부스에서는 이주민다문화분과 위원들이 시민들을 대상으로 ▲이주민 및 다문화에 대한 인식 수준 ▲이주민·다문화 지원 정책 인지도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개선 방안 등을 주제로 조사를 진행했다. 참여 시민들에게는 지역 내에서 한방 진료를 통해 지역 주민 건강 증진에 앞장서고 있는 더좋은한방병원이 후원한 50만 원 상당의 파스가 기념품으로 제공돼 지역사회 나눔 실천에도 뜻을 더했다.

광주시는 이번 행사를 통해 순국선열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는 보훈정신과 더불어 다문화 사회로 나아가는 지역사회의 포용성을 동시에 강조했다.

이주민다문화분과는 수집된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이주민 지원 정책 개선 및 다문화 인식 제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황용 광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은 "순국선열의 희생과 헌신으로 지켜진 대한민국에서 이제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이주민들과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야 한다"며 "이번 행사가 보훈정신을 기리는 동시에 다문화 사회의 상생과 통합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성숙한 반려 문화 조성 앞장

광주시, 29일에 반려동물 산책 교실 개최

광주시는 반려동물에 대한 올바른 인식 제고와 성숙한 반려 문화 조성을 위해 오는 11월 29일 '2025년 반려동물 산책 교실'을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반려동물을 기르는 다문화가족도 참여해볼 만 하다.

이번 산책 교실에서는 반려견 전문 훈련사들이 교육 강사로 참여해 △반려견 행동 교정 교육 △올바른 산책 시연 △펫티켓(반려동물 예티켓) 홍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보호자와 반려견이 함께 배우고 소통하는 시간을 갖는다.

특히, 훈련사는 일상속에서 자주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예시로 시연하며 보호자들이 직접 참여하는 실습 중심의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실습 종료 후에는 Q&A 시간을 마련해 반려견의 문제행동 원인과 해결 방법 등 평소 궁금했던 점을 전문가에게

자유롭게 묻고 답변을 들을 수 있다.

프로그램은 11월 29일 오전 11시부터 90분간, 청석공원 파크골프장 옆 잔디밭에서 진행된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참가자는 총 30명으로 제한되며 3개 조로 나눠 순차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참가 대상은 반려동물 등록을 완료한 광주시민으로 14일 오전 9시부터 선착순 30명까지 신청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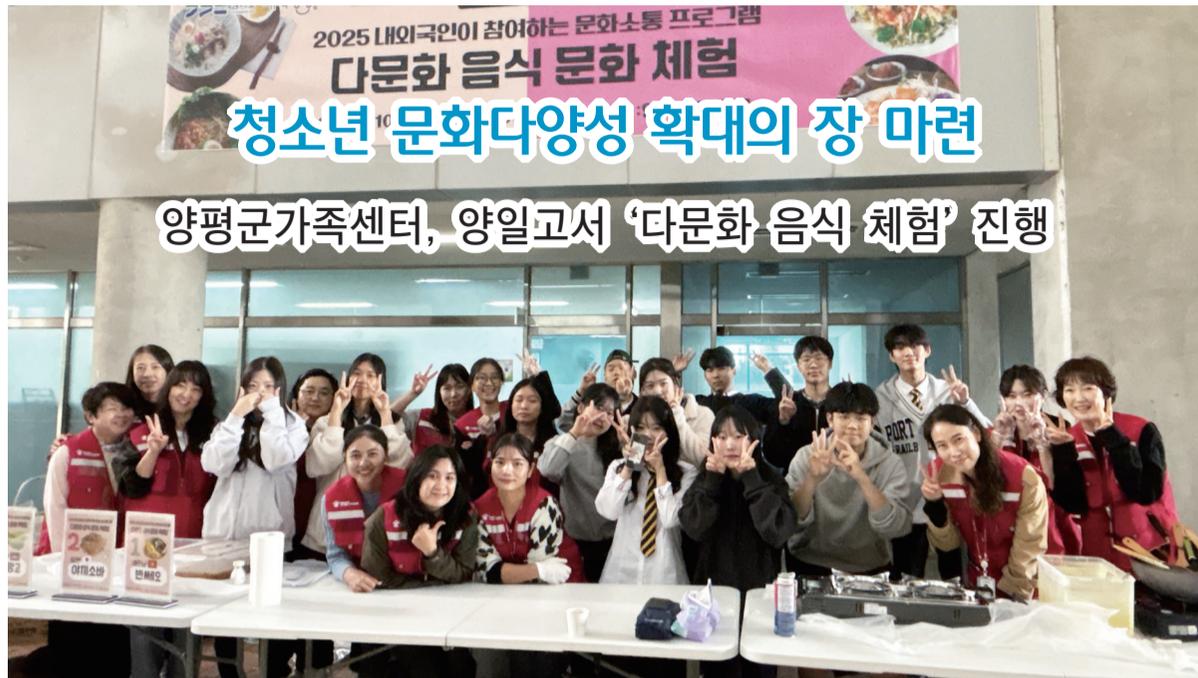
신청은 광주시 반려동물 산책 교실 전용 홈페이지(www.breedeeding.com) 또는 QR코드를 통해 온라인 사전 접수로 진행된다.

이와 관련 방세환 시장은 "이번 반려동물 산책 교실을 통해 반려동물과 반려인, 비반려인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행복하고 안전한 반려 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중소기업의 성장 동력인 인재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경기외국인SNS기자단



양평군가족센터(센터장 박우영)는 지난 10월 24일, 양일고등학교 전교생을 대상으로 중국, 일본, 베트남, 캄보디아 등 다양한 나라의 전통 음식을 체험할 수 있는 다문화 음식 체험 프로그램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내·외국인이 함께 어울리며 문화를 공유하고 상호 이해를 넓히기 위한 문화소통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특히 결혼이민자 문화다양성 활동가를 중심으로 한국어교육 수강생과 양일고 국제교류동아리 '웜디(WarmD)'학생들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해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참여 학생들은 각국의 전통 음식을 배우고 직접 시식

하면서, 다양한 문화의 매력을 체험하고 다름을 존중하는 태도와 문화적 감수성을 자연스럽게 익혔다. 또한 결혼이민자들이 직접 들려주는 자국의 음식이야기와 조리 과정을 통해 생생한 문화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양평군가족센터는 지난 7~8월에도 지역 내·외국인 가족을 대상으로 다양한 나라의 요리 및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교류하는 장을 꾸준히 마련해 왔다. 이번 행사는 그 연장선상에서 결혼이민자들의 문화다양성 인식 제고 활동을 중심으로 기획되었다.

박우영 센터장은 “청소년 시기부터 다양한 문화를 접하고 소통하는 경험이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으로 이어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내 문화다양성 확산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행사는 다문화 사회로 나아가는 지역사회의 포용적 모델로 평가받고 있으며, 다양한 세대와 계층이 함께 어우러진 문화 교류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송하성 기자

양평군, '두배드림 청년통장' 11월 21일까지 참여자 모집

양평군은 청년들의 자립과 미래 설계 기반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두배드림 청년통장 참여 청년을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대상자는 거주지와 직장이 모두 양평군인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으로,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근무 이력이 있고 주 36시간 이상 근무에 월 급여가 250만원 이하여야 한다. 다문화가정 청년도 이 기준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다.

지원은 대상자가 매월 20만원을 1년간 적립하면, 군에서 동일 금액인 20만원을 1대 1 매칭 방식으로 적립해 만기시 총 480만원의 마련하는 방식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은 오는 11월 17일 오전 9시부터 21일 오후 6시까지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전진선 군수는 “이번 사업이 청년들의 자립 준비에 실질적 도움이 되길 기대하며, 양평 정착과 성장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통합접수시스템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양평군청 가족복지과 청소년청년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송하성 기자

“架起一座异国他乡的沟通桥梁” 杨平郡家庭中心积极推进结婚移民者翻译服务

杨平郡家庭中心(中心长 朴佑煥)为帮助郡内结婚移民者以及多文化家庭稳定融入韩国生活,提供多种语言的口译和笔译服务,为应对地区社会的变化,促进活跃发展做出了贡献。

杨平郡家庭中心目前聘用了中文和越南语翻译,致力于为结婚移民者及多文化家庭提供快速且精准的语言翻译。与此同时,中心也积极的联系其他中心扩大对其他国家语言的口译与笔译服务,通过多样化的翻译服务,有效提升了多文化家庭之间的沟通能力,并为其提供行政、居住、法律、医疗、教

育等多个领域的信息,积极支持多文化家庭在社区内的自立,同时也促进了他们的社会参与。

此外,家庭中心不仅通过翻译人员帮助宣传韩语教育等多文化家庭相关活动,还向有关公共机构提供口译,并承担郡内各教育机构家庭通知书等各类笔译工作,翻译人员积极参与地区各领域事务,在地区社会之间架起了一座沟通的桥梁,发挥了重要的作用。

使用过口译服务的结婚移民者表示:“以前去医院时因无法理解内容感到困惑和无助,但在翻译老师的帮助下,能够顺利的理解复杂信息。”还有的

说:“自己去办理政府事务时也不再害怕,有翻译人员的陪同,给了我很大的帮助。”

朴佑煥中心长表示:“希望通·翻译服务能成为结婚移民者在陌生环境中克服语言障碍、搭建沟通与心灵链接的桥梁。”还着重指出:“未来也将持续为多文化家庭的稳定定居提供有力支持,助力他们在地区社会里开启自主、积极的生活篇章。”

有关结婚移民者翻译服务的申请与支援活动,以及韩国初期生活方面的相关咨询,可以通过电话联系,获得详细的介绍。咨询电话:031-775-5950

(양평군가족센터 제공)



가족 기능 강화 및 문화체험 기회 확대 하남시가족센터, 내외국인 '피어나다 플라워클래스'

하남시가족센터(센터장 문병용)는 지난 8월 19일부터 10월 30일까지 다목적가족소통교류공간에서 상시프로그램 피어나다 플라워클래스를 성공적으로 운영했다고 밝혔다.

'피어나다'는 다문화·비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화요일과 목요일 2개 반으로 나누어 총 9회기 동안 진행됐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7개국 출신 16명의 참여자(연인원 144명)가 참여했으며, 출석률 100%, 평균 만족도 4.92점(5점 만점)을 기록하며 높은 호응을 얻었다.

특히 참여자 중 12명은 하남시가족센터 프로그램을 처음 이용한 시민으로, 이번 과정을 통해 센터 홍보 및 신규 이용자 발굴 효과도 거두었다.

플라워클래스는 ▲반구형 꽃바구니 ▲오아시스 리스 ▲행잉볼 꽃꽂이 ▲화관 만들기 ▲스파이럴 꽃다발 ▲화병꽂이 ▲부케 ▲리스 등 총 9가지 주제로 구성되어, 화기마다 계절감을 살린 다채로운 작품을 선보였다.

수업에서는 다문화와 비다문화가정이 함께 어울리며 다과 시간을 통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다. 만족도 조사 결과, 모든 참여자가 프로그램 내용과 강사진의 진행에 '매우 만족' 한다고 응답했

으며, 참여자 전원(16명)이 재참가 의사를 밝혔다.

참여자 안 모 씨는 "모두 다문화가족이라는 오해로 시작된 첫 수업이었지만, 꽃이 주는 행복감이 정말 컸다. 내가 만든 꽃을 보며 자존감이 높아졌고, 집 안 분위기도 따뜻해져 행복한 3개월이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참여자 윤 모 씨는 "하남에 이렇게 많은 다문화가족이 있다는 사실을 새롭게 알게 됐다. 손재주가 없어 걱정했지만, 이번 수업을 통해 '나도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느꼈다."고 했다.

'피어나다 플라워클래스'는 가족서비스 기능 강화 및 문화체험 기회 확대를 목표로 기획된 상시프로그램으로, 참여자들은 직접 만든 꽃 작품을 가정으로 가져가 가족과 함께 감상하며 자연스럽게 대화와 교류의 시간을 이어갔다. 이번 프로그램은 가족센터의 다목적가족소통교류공간을 활용해 진행됐다. 문병용 센터장은 "이번 플라워클래스를 통해 가족 간의 소통뿐만 아니라 다문화와 비다문화가정이 함께 어우러지는 포용적 지역문화가 확산되었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상시프로그램을 지속해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031-792-2993 김영의 기자

쓰면 돌려주는 착한 소비 하남시 하머니 5% 캐시백 연말 소비촉진

하남시(시장 이현재)는 연말 소비 활성화를 위해 오는 11월 17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역사랑상품권 '하머니' 결제 금액의 5%를 캐시백 형태로 환급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다문화가족도 하머니를 이용해 보자. 이번 행사는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사업' 집행 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데 따른 추가 인센티브 확보를 계기로 마련됐다. 하남시는 효율적인 예산 집행과 지역경제 활성화 노력을 인정받아 전국 33개 우수 지자체 중 하나로 선정돼 이번 인센티브 대상에 포함됐다.

행사 기간 동안 하머니 충전금으로 결제한 금액의 5%가 캐시백 형태로 지급된다. 인센티브나 정책수당(소비쿠폰 포함) 결제분은 제외되며, 1인당 누적 최대 3만 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캐시백은 개인별 캐시백 포인트 형태로 지급되며, 결제 시 유효기간이 짧은 순으로 자동 차감된다. 환급된 포인트는 경기지역화폐 어플 메인화면의 '이용내역'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지급받은 캐시백 사용기한은 2026년 3월 31일까지다.

하남시는 이번 행사를 통해 연말 소비심리를 회복하고 지역 내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관내 9,500여 개 가맹점에서만 사용이 가능해 지역 내 소비 순환과 자금 역외 유출 방지 효과가 크다.

하남시 관계자는 "이번 5% 캐시백은 정부 인센티브로 확보한 예산을 시민에게 직접 돌려주는 정책으로, 연말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많은 시민들께서 혜택을 놓치지 않고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머니 5% 캐시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031-790-5970로 문의하면 된다. 김영의 기자

2025년 가족축제

1부, 기념식 및 한국어 수료식
2부, 음악회 '마음을 물들이다'

일시 2025년 11월 21일(금) 10:30
장소 하남시가족어울림센터
대상 하남시민 누구나

가족센터 하남시가족센터

법무부

해외에서 가볍게 대마 한번?

돌아와서 무겁게 처벌됩니다!

대마를 수입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마를 수반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

에너지바우처
문의해주세요

카카오톡 채널, 홈페이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에너지공단



하남시가족센터, '기아 하모니움x런피아노 음악회' 진행...이동형 콘서트 프로젝트

하남시가족센터(센터장 문병용)는 지난 11월 9일 오후 3시 하남시가족센터 및 하남시 소재 복합문화공간 더릿에서 '기아 하모니움x런피아노 음악회'를 개최했다.

이번 음악회는 이동식 피아노 무대 '런 피아노(Run Piano)'를 통해 '음악이 필요한 순간, 필요한 사람에게 다가가는' 이동형 콘서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이동형 콘서트 프로젝트는 음악의 접근성을 높이고, 일상 속에서 음악이 전하는 치유와 공감의 경험을 확산하기 위해 기획됐다. 오는 12월까지 매월 1회씩 전국 각지에서 이어질 예정이다.

하남 공연에는 다문화가족을 비롯해 하남시가족센터 가족합창단 단원과 가족 등 50여 명이 참여해, 음악으로 하나 되는 따뜻한 시간을 나눴다.

공연에 앞서 진행된 사전 인터뷰에서는 주인공 김*준 아들과 가족은 서로의 속마음을 전하며 음악과 함께 성장해 온 가족의 이야기를 유쾌하면서도 감동적으로 들려주었다. 특히 음악을 매개로 가족 간 유대와 사랑을 이어가는 이들의 사연은 현장 관객들에게 깊은 울림을 안겼다.

메인무대 '기아 하모니움x런피아노 음악회'는 “장소와 국경을 초월해 음악으로 마음을 치유하고, 다문화 가정 아이들에게 함께 꿈꿀 용기를 전한다”는 메시지 아래 하남의 아름다운 야외 공간에서 펼쳐졌다.

이번 공연에는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기악과 박종화 교수를 비롯해 다양한 뮤지션들이 참여해 총 6곡의 연주를 선보였다. 클래식 품격과 즉흥적 협연이 어우러진 무대는 관객들의 큰 호응을 끌어냈으며, 연주가 끝

날 때마다 박수가 이어졌다. 공연의 하이라이트는 주인공 김*준 군의 요청으로 아버지가 무대에 올라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를 부른 순간이었다. “아빠의 노래를 직접 듣고 싶다”는 아들의 바람에 아버지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화답하며, 다문화가정이라는 경계를 넘어 하나의 가족으로서 깊은 감동을 선사했다.

문병용 센터장은 “이번 음악회는 지역사회 다문화가정을 위한 소통과 공감의 장이 되었으며, 음악을 매개로 서로를 이해하고 연대할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하남시가족센터는 지속 가능한 지역공동체의 성장을 도모하고, 모든 가족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기획·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의 기자

글로벌 문화 국제교류 협력 논의

하남시, 미국 글렌데일시 대표단과 다양한 교류 시작

하남시(시장 이현재)는 지난 1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글렌데일시 대표단이 하남시를 방문해 양 도시 간 경제·문화 교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아라 나자리안(Ara James Najarian) 글렌데일 시장을 비롯해 루빅 골라니안 부시장, 이창엽 글렌데일 자매도시위원장 등으로 구성된 대표단이 찾아왔으며, 양 도시 간 지속적인 협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첫 교류의 자리였다.

글렌데일시는 드림웍스 애니메이션, 마블 애니메이션 등 글로벌 콘텐츠 기업과 '아메리카나 옛 브랜드'(Americana at Brand) 등 대형 복합쇼핑몰이 위치한 LA 카운티 내 주요 경제도시로, 문화·산업적 경쟁력을 갖춘 도시다.

양측은 간담회를 통해 ▲K-스타월드 등 대형 개발사업에 대한 투자·참여 기회, ▲글렌데일의 애니메이션 산업 인프라를 활용한 교육·연계 프로그램 추진, ▲양 도시 공동 문화행사 개최 등 다양한 협력 방안을 폭넓게

논의했다. 이현재 시장은 “하남시는 행정혁신을 통해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4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고, 전국 최초로 2년 연속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도시”라며 “교통·문화·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검증된 행정역량을 바탕으로 글로벌 교류를 확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하남시의 핵심 프로젝트인 'K-스타월드'를 직접 소개하며, “K-콘텐츠 시장 300조 원 시대를 선도할 복합문화 중심지로 육성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으며, “대한민국 유일의 애니메이션교가 있는 하남시의 젊은 인재들이 글렌데일의 드림웍스, 마블 애니메이션 등 제작사를 체험할 수 있는 협력 사업을 통해 하남시와 글렌데일이 함께 문화 산업 중심지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보자”는 제안을 통해 글렌데일 대표단의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냈다. 대표단은 간담회 후 유니온타워 전망대에서 K-스타월드 사업 부지를 둘러봤다.

김영의 기자

하남시가족센터, “한 해 성과 나누고, 가족의 의미 되새겨”

하남시가족센터(센터장 문병용)는 오는 11월 21일 오전 10시30분, 하남시다문화가족후원회 후원으로 하남시가족어울림센터 2층 대회의실에서 '2025년 가족축제(성과보고회)' 및 '한국어수료식'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한 해 동안 추진한 주요 사업의 성과를 지역사회와 공유하고, 한국어교육 과정을 성실히 마친 수료생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1부 성과보고 및 표창, 2부 축하공연으로 구성되며, 문병용 센터장의 개회사와 인사말을 시작으로 내빈소개, 유공자 표창, 한국어교육 수료식이 진행될 예정이다. 2부에서는 하남시가족센터 가족합창단 '다가치하모니'의 축하공연이 무대를 채울 예정이다.

문병용 센터장은 “이번 가족축제를 통해 2025년 한 해 동안 함께 노력해준 직원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라며 “센터의 다양한 사업 성과를 함께 돌아보며 뜻깊은 시간을 갖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영의 기자



결혼이민자 취업역량 강화 및 자립 지원 평택시가족센터, '모두잡(JOB)고! 프로젝트' 수료식

평택시가족센터(센터장 김성영)는 지난 10월 29일 2025년 결혼이민자 취업지원사업 '모두잡(JOB)고! 프로젝트' 수료식을 진행했다.

평택시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의 취업역량 강화와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진행된 이번 사업은 4개월에 걸쳐 직업사전교육(기초소양교육, 실버인지능이지도사) 및 직업훈련교육(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과정) 과정으로 운영됐다.

이날 수료식에는 전 과정을 이수한 네팔, 캄보디아, 일본, 베트남, 중국 등 다양한 국적의 결혼이민자 12명이 참여했으며, 이 중 11명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성과를 거뒀다.

김성영 센터장은 "수영을 할 수 있는 사람에게 바다

는 즐거움이고, 고기를 잡는 사람들에게 바다는 돈을 버는 곳일 것이다. 하지만 물을 무서워하는 사람에게 바다는 두려움이다."라며 "어려운 교육과정을 포기하지 않은 여러분에게 한국이 더 이상 두려운 바다가 아닌 수영할 수 있는 즐거운 바다이길 바란다. 어려운 교육과정이었지만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완주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고 참여자들을 격려했다.

평택시가족센터는 이번 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결혼이민자들의 안정적인 취업 기회 확대와 경제적 자립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평택시가족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김영의 기자

해군제2함대 초청 안보견학 평택시가족센터 다문화가족

평택시가족센터(센터장 김성영)는 지난 11월 8일 해군제2함대 부대 개방의 날 행사 일환으로 개최된 '다문화가족 초청 행사'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서해수호관, 천안함 견학, 배 승선 순서로 진행됐으며, 다문화가족 15가정이 참여했다. 다문화가족 구성원들은 이를 통해 분단 상황의 한국 안보 현실과 문화를 심도 있게 이해할 수 있었다.

한 참여자는 "한국이 분단국가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힘쓰는 군인들의 노력을 더 잘 알게 되어 좋았다. 해군제2함대에서도 간식을 비롯해 많이 준비해 주셔서 알찬 프로그램이 되었다."고 만족을 나타냈다.

김성영 센터장은 "평택은 서해를 수호하는 해군제2함대가 주둔한 곳으로서 군인가족들도 많이 살고 있다. 지역 다문화가족을 위해 프로그램을 준비해 준 해군제2함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센터에서도 군인가족의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평택시가족센터는 매년 관내 다양한 유관기관 및 단체와 지역사회 교류 및 주민 참여의 장 마련을 위해 지역사회 네트워크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김영의 기자

평택시가족센터, 다문화가족 자조모임 전체모임 진행해

평택시가족센터(센터장 김성영)는 지난 11월 12일 다문화가족 자조모임 구성원 15명을 대상으로 전체모임을 진행했다.

이날 활동은 '천연 핸드크림 만들기 체험'이 진행됐으며, 구성원 전원이 참여해 함께 소통하고 교류하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

참여자들은 직접 시향을 통해 자신에게 어울리는 향을 선택하고, 개별 취향에 맞는 핸드크림을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향기로운 재료와 천연성분을 이용한 제작 과정을 통해 참가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프로그램 한 참여자는 "공방 체험을 자조모임 구성원들과 함께 해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 또한 나만의 핸드크림을 만들어볼 수 있었던 경험이어서 뜻깊었다."고 말했다.

김성영 센터장은 "다문화가족이 서로 교류·소통할 수 있는 공간인 다가온을 통해 서로 시간을 공유하고 다양한 활동들을 진행하면서 자조모임이 활성화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평택시가족센터는 앞으로도 다문화가족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서로를 지지할 수 있는 모임을 꾸준히 이어갈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김영의 기자

가족캠프서 잊지못할 추억 가득 채워요

평택시가족센터, 가족캠프 '가족心쿵, 부산愛 빠지다'



평택시가족센터(센터장 김성영)는 지난 10월 31일~11월 1일 1박 2일간 온가족보듬사업 추천 대상자 14가족 38명과 함께 경주, 부산으로 가는 가족캠프 '가족心쿵, 부산애 빠지다'를 진행했다.

이번 캠프는 복합적인 어려움에 직면한 가족들이 일상에서 벗어나 가족 간 소통과 정서적 회복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경기도 자동차 정비사업 조합 평택지회에서 후원금 300만원을 지원해 주어 프로그램이 더 풍성하게 진행됐다.

가족캠프 일정은 유네스코 문화유산인 경주 불국사를

방문해 관광해설사와 함께 역사와 전통문화를 체험하고 부산에서 스카이라인 루지를 즐겼다. 저녁에는 가족 레크리에이션을 통해 가족 간 협동심과 즐거움을 나눴다. 다음날은 해동용궁사를 견학해 가족사진을 촬영하고 요트 체험하면서 탁 트인 바다에서 색다른 행복과 여유를 만끽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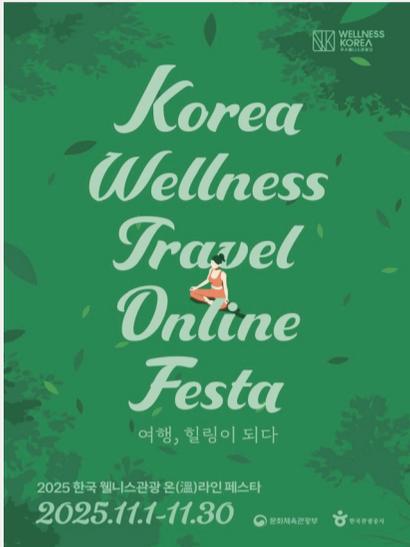
프로그램에 참여한 가족들은 "센터 도움으로 가족과 함께 여행할 수 있어 감사하고 행복했다."라며 "요즘 힘든 날들을 보내고 있었는데 가족과 함께 캠프에 참여하며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김성영 센터장은 "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가족과 함께 한 좋은 추억들을 기억하면 힘이 나는데, 이번 여행의 추억으로 인생의 어려움을 잘 헤쳐 나갔으면 좋겠다. 가족이 행복한 모습을 보니 내년에도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평택시가족센터는 평택시민과 함께 하는 글로벌 행복파트너라는 미션으로 다양한 가족에 대한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자세한 프로그램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김영의 기자

Провинция Кёнгидо проводит «Онлайн-фестиваль оздоровительного туризма». Скидки до 60 000 вон! 경기도 '온라인 웰니스 관광 페스타' 최대 6만원 할인!



Провинция Кёнгидо и Организация туризма Кёнгидо в течение ноября проводят онлайн-фестиваль «2025 Gyeonggi-do Wellness Tourism Festa».

Мероприятие организовано для того, чтобы жители провинции и туристы могли насладиться осенней атмосферой и провести время в отдыхе и восстановлении. В рамках фестиваля на девяти туристических объектах, связанных с велнес-туризмом, предоставляются скидки до 60 000 вон.

Понятие «велнес-туризм (Wellness Tourism)» отражает современный образ жизни, ориентированный на здоровье, счастье и отдых, объединяя в себе well-being (благополучие), fitness (физическую активность) и healing (исцеление). Этот формат путешествий направлен не просто на отдых, а на восстановление физического и ментального здоровья, что делает его всё более популярным.

Участники фестиваля могут получить скидочные купоны до 50 000 вон в рамках программы «Онлайн-фестиваль велнес-туризма Кореи», организуемой Корейской туристической организацией. К этому добавляется дополнительный купон на 10 000 вон, предоставляемый провинцией Кёнгидо. Таким образом, посетителям доступна общая экономия до 60

000 вон (около 69%).

В фестивале принимают участие девять туристических локаций:

1. музей современного искусства Моран (모란미술관) в Намъянджу-мастер-класс по созданию брелочков;
2. клуб Мирине Хилл (미리내힐링클럽) в Янпхёне-проживание в караване;
3. отель Блум Виста (블룸비스타의 호텔) в Янпхёне-проживание в гостинице;
4. ботанический сад Утреннее спокойствие (아침고요수목원) в Капхёне — входной билет;
5. спа Аквафилд (아쿠아필드 찜질스파) в Кояне;
6. уроки серфинга в Вейв Парк (웨이브파크) в Сихыне;
7. программа темпл-стей «А-ча сон-мёнджан» в храме Юкчичансса (육지장사) в Янчжу;
8. арт-пространство Тривиум (트리비움) в Пхёнхэке;
9. велнес-маршрут с розовым мюлли на острове Хёрб-Айленд (허브아일랜드) в Почхоне.

Скидочные купоны можно приобрести и использовать с 1 по 30 ноября через туристическую платформу «여기어때». Подробная информация доступна на официальном сайте и в мобильном приложении платформы, на специальной странице, посвящённой фестивалю велнес-туризм

а. Провинция Кёнгидо надеется, что это мероприятие позволит жителям и туристам отвлечься от повседневности и насладиться отдыхом в пространствах, где сочетаются природа и искусство. Кроме того, ожидается, что фестиваль повысит узнаваемость концепции «велнес провинции Кёнгидо» и станет стимулом для развития местной экономики.

Чан Хянджон, начальник отдела туристической индустрии провинции Кёнгидо, отметила:

«С этого года мы активно развиваем велнес-направление и совместно с Корейской туристической организацией подготовили этот фестиваль, чтобы представить лучшие туристические объекты региона. Благодаря дополнительным скидкам мы надеемся, что многие смогут путешествовать по Кёнгидо, восстанавливая силы и тело, и душу».

Онлайн-фестиваль «2025 Gyeonggi-do Wellness Tourism Festa» предлагает не просто путешествие, а новую модель оздоровительного туризма, сочетающего здоровье, исцеление и искусство.

Благодаря системе скидочных купонов вы можете попробовать разнообразные велнес-программы по доступной цене!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는 11월 한 달 동안 온라인 축제 "2025 경기도 웰니스 관광 페스타"를 개최합니다.

이 행사는 지역 주민과 관광객 모두가 가을 정취를 만끽하며 휴식과 재충전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기획되었습니다. 축제 기간 동안 9개 웰니스 관광 명소에서 최대 6만원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웰니스 관광은 건강, 행복, 그리고 휴식에 중점을 둔 현대적인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하며, 웰빙, 피트니스, 그리고 힐링을 결합합니다. 이러한 여행 형태는 단순한 휴식이 아닌 신체적, 정신적 건강 회복을 목표로 하여 점점 더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축제 참가자는 한국관광공사가 주관

하는 '코리아 웰니스 관광 온라인 페스타' 프로그램을 통해 최대 5만원 상당의 할인 쿠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에서 제공하는 1만원 쿠폰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어 최대 6만원(약 69%)까지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번 페스타에 참여하는 관광지는 총 9곳입니다.

1. 남양주 모란미술관의 키링 만들기 체험
2. 양평 미리내힐링클럽의 카라반 숙박
3. 양평 블룸비스타의 호텔 숙박
4. 가평 아침고요수목원 입장권
5. 고양 아쿠아필드 찜질스파
6. 시흥 웨이브파크 서핑 레슨
7. 양주 육지장사의 '我 아-차 선명상' 템플스테이
8. 평택 트리비움의 아트스페이스 체험
9. 포천 허브아일랜드의 핑크몰리 힐링 코스 등이다.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관광 플랫폼 '여기어때'에서 할인 쿠폰을 구매하고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식 웹사이트와 모바일 앱, 그리고 웰니스 관광 축제 전용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경기도는 이번 행사를 통해 지역 주민과 관광객들이 일상에서 벗어나 자연과 예술이 어우러진 공간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경기 웰니스"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장항정 경기도 관광산업과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올해부터 웰니스 분야를 적극적으로 육성해 왔으며, 한국관광공사와 협력하여 지역 최고의 관광 명소를 소개하는 이번 축제를 준비했습니다. 추가 할인 혜택을 통해 많은 분들이 경기도를 여행하며 몸과 마음에 활력을 되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축제 "2025 경기도 웰니스 관광 페스타"는 단순한 여행 그 이상의 경험을 제공합니다. 건강, 치유, 예술이 어우러진 새로운 웰니스 관광 모델을 제시합니다.

할인 제도를 통해 다양한 웰니스 프로그램을 저렴한 가격으로 체험해 보실 수 있습니다! wellnessfesta.kr

이엘레나 기자

경기외국인SNS기자단

다문화 자녀, 이중언어 실력 향상!

평택시가족센터, 이중언어 교육지원사업 종강식 진행

평택시가족센터(센터장 김성영)는 지난 11월 13일 평택시 관내 18세 이하 자녀를 둔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이중언어 교육지원사업 종강식을 진행했다.

이중언어 교육지원사업은 부모·가족코칭과 이중언어 교육 총 2개 영역으로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이중언어 교육은 중국어 3개반, 베트남어 2개반, 일본어 1개반 등 총 6개반이며, 다문화가족 자녀 총 66명이 교육에 참여했다.

센터는 학생들의 다양한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2025년 이중언어 교육은 온라인반과 오프라인반으로 나누어 진행했다. 각 반 70시간의 언어교육 및 해당 나라의 문화체험 등이 이뤄졌으며, 총 420시간의 교육이 진행됐다. 수강생 부모를 대상으로 한 부모·가족코칭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해 부모코칭 18차

시, 부모·자녀상호작용교육 51차시, 이중언어 활용프로그램 18차시 등 총 87차시의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다문화가족 59가정이 참여했다.

참여자 한 부모는 “이중언어 교육을 통해서 아이가 모국어 실력이 향상되는 게 눈에 보여서 너무 기쁘다. 또한 부모코칭을 통해서 이중언어 환경 조성의 강점을 설명해 준 부분이 도움이 됐다.”라며 “센터에서 이중언어 교육을 장기적으로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평택시가족센터는 앞으로도 다문화가족 자녀 이중언어 실력 향상을 목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기타 관련된 사항은 평택시가족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김영의 기자



자조모임으로 가족 소통과 성장 지원

평택시가족센터, 아버지 자조모임 ‘가족 나들이’ 진행



평택시가족센터(센터장 김성영)는 지난 11월 1일 평택시 관내 포레스트 도원에서 아버지 자조모임 12가족 총 45명을 대상으로 ‘가족 나들이’를 진행했다.

이번 나들이는 한 해 동안 함께해 온 자조모임 가족들이 교류하고, 가족 간 유대감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포근한 가을 힐링과 가족 소통’을 주제로 진행됐다. 당일 오전 가족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레크리에이션이 진행돼 온 가족이 함께 게임을 즐기며 웃고 응원하는 모습이 이어졌으며, 가족 간 협동과 소통의 즐거움을 나누는 시간이 됐다. 클럽핑장에서의 바비큐

체험은 가족들이 직접 고기를 굽고 음식을 나누며 자연 속 여유로운 식사 시간을 즐겼다. 마무리로는 ‘우리 가족 소원나무 만들기’ 활동을 통해 가족별로 아라우카리아 묘목을 심고, 각자의 소망을 적은 메시지를 매달며 한 해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참여 가족들은 “자연 속에서 가족과 함께한 시간이 힐링이 되었다”라며 “아이들과 특별한 추억을 쌓을 수 있어 좋았다.”고 말했다.

김성영 센터장은 “이번 나들이를 통해 아버지 자조모임 가족들이 서로의 가족 문화를 이해하고, 자연 속에서 편안하게 교류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길 바란다. 앞으로도 아버지들의 자조모임을 통해 가족 간 소통과 성장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평택시가족센터 아버지 자조모임은 11월 15일 최종 평가회를 끝으로 올해 활동을 마무리했다. 센터는 앞으로도 지역 내 아버지들의 긍정적인 양육 문화 확산과 가족 친화적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김영의 기자

부모교육 ‘꾸중의 심리학’ 진행 평택시가족센터 온가족보듬사업

평택시가족센터(센터장 김성영)는 지난 11월 11일 온가족보듬사업 부모교육 ‘꾸중의 심리학’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좋은 꾸중과 잘못된 꾸중의 예를 들어 습관적인 꾸중 대신 자녀의 행동을 과학적으로 이해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수정하는 구체적인 기술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단순히 ‘화내지 않는 법’을 넘어 행동수정 이론을 기반으로 자녀가 바람직한 행동을 스스로 선택하고 유지하도록 돕는 실질적인 접근법을 다루었다.

교육에 참여한 부모들은 “앞으로 어떻게 꾸중해야 할지 감이 잡힌다. 실질적인 예를 통해 더 도움이 되었다.”라며 “아이들을 양육할 때 느끼는 혼란에 대한 답을 찾은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성영 센터장은 “‘꾸중의 심리학’은 부모에게 훈육의 목적을 달성하는 새로운 도구를 제공하여, 아이와의 관계를 해치지 않으면서도 효과적으로 행동을 개선할 수 있도록 돕는다.”고 올바른 꾸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평택시가족센터는 앞으로도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주제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확대할 예정이다.

김영의 기자

평택시, 일본 마쓰야마시 방문 문화·산업·청소년 등 분야 교류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양 시 간 우호 교류 2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지난 11월 14일부터 3박 4일 일정으로 일본 에히메현 마쓰야마시(松山市)를 공식 방문해, 문화·산업·청소년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대표단은 정장선 시장을 단장으로 시청, 시의회, 국제교류재단, 체육회, 평택포럼, 평택국제교류협회 등 총 22명으로 구성되었으며, 2004년 우호 교류 협약체결 이후 20년간 이어온 교류의 발자취를 되돌아보고 미래 협력의 새로운 방향을 함께 모색했다.

구체적으로, 14일에는 우호 교류 20주년 기념식이 열려 20년간 이어온 교류의 역사와 시민의 우정을 되새겼다. 이 자리에서 양 시는 그동안 쌓아온 신뢰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문화·청소년·산업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또한 마쓰야마시 최대 시민축제인 ‘산업축제’ 개최식에 참석해 산업·문화 교류의 의미를 되새겼다. 특히 해당 행사에 평택 농악 공연단이 초청 공연을 펼치며 현지 시민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아울러 국제아동미술교류전 시상식을 개최하여 지난 6월 평택에서 열린 전시회에 참여했던 마쓰야마시 어린이들에게 상장과 기념품을 전달했다. 두 도시는 예술을 통한 미래세대 간 교류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향후 청소년 문화캠프, 도서관 교류, 예술교류전 정례회 등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김영의 기자

이주민 자녀도 이용할 수 있는 경기도의 돌봄 의료 교육 프로그램!

24시간 안심돌봄체계, '언제나 어린이집'과 밤에도 휴일에도 안심 '달빛어린이병원' 등



24시간 안심돌봄체계, 어린이집

경기도는 24시간 돌봄시설인 '언제나 어린이집'을 기존 11개에서 14개로 확대했어요

360° 언제나돌봄 '언제나 어린이집'은 평일뿐 아니라 주말과 공휴일, 야간 및 새벽까지 365일(24시간) 운영하는 보육시설로, 긴급상황이나 가족 돌봄 공백 등으로 돌봄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긴급돌봄시설이에요. 14곳 어린이집은 ▲부천시 ▲남양주시 ▲김포시 ▲하남시 ▲이천시 ▲고양시 ▲안산시 ▲안양시(2개소) ▲의정부시 ▲포천시(2개소) ▲군포시 ▲광명시 등에

있어요. '언제나 어린이집'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영유아(6개월 이상 7세 이하 취학 전)를 둔 보호자라면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더라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더라도, '언제나 어린이집'과 거주지역이 달라도 제한 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요.

운영 시간은 24시간이며, 1회 예약 시 최대 5일까지 연속 신청이 가능해요. 이용 요금은 시간당 3천 원이에요.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아동언제나돌봄센터(010-9979-7722)'로 문의하면 돼요. 단, 야간 새벽 돌봄은 전일 오후 6시까지 사전 예약이 필요해요. 보호자(신청인)는 신분증, 영유아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를 지참해야 하며, 자녀에게 필요한 준비물(기저귀, 개별침구, 여벌 옷, 간식 등)도 개별적으로 챙겨야 해요.

언제나 안심, 달빛어린이병원

경기도가 '달빛어린이병원' 37곳을 운영하며 소아 야간·휴일 진료의 안정적 기

반을 마련했어요. 달빛어린이병원은 평일 야간(23시)과 주말·공휴일(18시)까지 외래 진료를 제공해요. 경기도는 지정 확대와 안정적 운영을 적극 지원해 2021년 5개소에서 2025년 37개소로 늘렸어요.

달빛어린이병원은 야간과 휴일에도 경증 소아환자를 진료함으로써 응급실 혼잡을 줄이고, 중증환자가 제때 치료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어요.

달빛어린이병원이 확대 운영되면서 소아 중증환자는 소아응급 책임의료기관(분당차병원, 아주대병원,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으로, 경증환자는 달빛어린이병원 및 취약지 진료기관으로 유도하는 연계체계가 구축됐어요. 이를 통해 병원 간 역할이 명확한 단계별 소아응급 진료체계를 구축한 것이예요.

글로벌 감각 키우는 특별 영어체험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경기미래교육과 주캠퍼스가 다가오는 크리스마스를 맞아 어린이들의 글로벌 감각을 키울 수 있는 특별 영어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요.

11월 15일부터 12월 13일까지 5주간 매

주 토요일에 진행되며, 유아 대상 '키즈반'과 초등 대상 '초등반'으로 나뉘어요. 주요 프로그램은 원어민 교사와 함께하는 체험 수업과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창작 영어 뮤지컬이에요.

체험 수업에서는 크리스마스를 주제로 쿠키를 만들며 영어로 소통하는 '쿠키 클래스', 크리스마스 장식품을 직접 제작하는 '아트 클래스'가 운영·홍상.

미국·영국 등 영어권 국가에서 연극·뮤지컬을 전공했거나 관련 경력을 쌓은 원어민 강사들의 창작 영어뮤지컬 공연도 진행돼, 노래와 이야기를 통해 자연스럽게 영어를 익힐 수 있어요.

모든 수업은 현장 접수를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별 정원은 ▲쿠키 클래스(키즈반 20명, 초등반 20명) ▲아트 클래스(키즈반 20명, 초등반 20명) 등이예요. 참가비는 프로그램 1개 1만원(1인)이며 영어뮤지컬은 1만2천원(1인)이에요. 세부 일정은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누리집(gill.or.kr)에서 확인하세요.

<중국어 13면, 태국어 28면>

경기외국인SNS기자단

京畿道举行“构建移民人权保障体制政策讨论会”... 讨论强化政府·地方自治团体作用及制度

京畿道10月28日在国会议员会馆第二小会议室举行了“移民人权保障体制构建政策讨论会”，讨论加强全国首次制定的《移民人权保障三大条例》的实效性、扩大当事人参与、并探讨政府与地方自治团体间的合作体系建设方案。

京畿道9月制定的三大条例包括“禁止京畿道移居背景道民种族歧视及人权保障条例”、“京畿道难民人权保护和基本生活保障条例”、“京畿道未登记出生外国儿童发现及支援条例”等。

此次活动由共同主办的国会议员朴海哲、徐美华(共同民主党)、尹钟五、孙率(进步党)等出席，现场共有京畿道行政2副知事金大顺、京畿道议员李仁爱、国家人权委员会相关人员、外国居民等约100

人参加。金大顺副知事表示：“仅京畿道就有81万名移民居住。韩国已经走上了多种族多文化国家的道路”，“现在应该从条例的制定走向实质性的变化。并将把今天讨论的内容反映到政策上，打造移民在尊重中共同生活的共同体。”

朴海哲议员表示：“尽管制度有所进步，但移民在现场面临的现实依然严峻”，“将致力于建设一个移民作为平等社会成员受到尊重的社会。”

道议员李仁爱表示：“为了提高此次制定的三大条例的执行力，将尽最大努力”，“在没有社会排斥的情况下，支援移民成长和定居。”

当天活动的首席由韩国文化多样性机构理事长李贾斯敏担任。全北大学社

会学系教授薛东勋(音)以“韩国移民社会变化和构建人权保障体制的必要性”为主题进行了发言。

薛教授评价道：“虽然韩国已经被评价为多文化、移民社会，但是人权保障体制还处于初期阶段”，“京畿道的条例制定作为人权政策的典范非常优秀，可以成为全国推广的基准”。

在接下来的讨论中，以中央政府·地方政府的作用、人权保障制度的可持续性、以现场为中心的政策改善方案进行了讨论。

移民政策研究院研究委员崔瑞利强调了中央政府系统性的移民政策管理和地方政府现场中心统合的重要性。

京畿道移民社会综合支援中心代表

吴京锡(音)表示：“规范保障移民人权的常识并不容易”，“为制定3个条例，经过1年以上的时间，与很多移民支援团体和外国居民、京畿道议会、法律界、学界、国际机构等进行了讨论，最终取得了成果”。

吴代表还表示：“为了京畿道人权保障条例的实效性，有必要从国家层面改善制度和构建广域单位治理”，“为在全国率先实现移民政策的京畿道感到自豪”。

京畿道计划以此次讨论会上讨论的内容为基础，加强移民人权保障政策的现场实效性、通过扩大移民参与构建治理体系、建立政府和地方自治团体之间的合作体系等。〈한글 기사 지난호 2면〉

경기외국인SNS기자단



평택시청 031-8024-5000 평택시가족센터 031-615-3959 평택시외국인복지센터 031-652-8855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평택출장소 031-8024-9600 평택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 031-618-1366 평택국제교류재단 031-692-4301~3 송탄보건소(외국인 진료) 031-8024-6615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031-492-9347 범죄신고 112 간첩신고 111 화재, 응급환자발생 및 병원정보 119 보건복지콜센터 129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이주여성 긴급지원센터 1577-1366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1397 전기고장신고 123 수도고장신고 121 가스사고신고 1544-4500 법률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전국전화번호안내 114 세계시간안내 116 일기예보안내 131



평택이주민연합회, 이주민 450명 '평택이주민체육대회'...내외국인 즐거운 하루

평택이주민연합회(대표 이민기 목사)는 지난 11월 9일 국제대학교 창조관 실내체육관에서 ‘평택이주민체육대회’를 개최했다.

평택을 중심으로 오산까지 이주민교회와 비영리단체가 참여한 이날 행사는 아프리카, 네팔, 튀르키예,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중국, 인도, 필리핀, 말레이시아, 몽골,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등 다양한 국적의 이주민 45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1부 예배 행사에서는 외국인선교교회 아프리카 찬양팀이 찬양했으며 유종만 평택시온성교회 원로, 국제이

주자선교회 이사장이 설교했다. 점심식사 후 진행된 2부 체육대회는 최범식 목사(평택성서교회)의 진행으로 신발던지기, 단체줄넘기, 피구, 팔씨름, 릴레이3종경주, 줄다리기, 가스펠트럭 선물나눔, 행운권 추첨 및 시상 등 다양한 체육활동이 진행돼 참가자들을 즐겁게 했다.

이날 행사는 기쁜교회, 다산방주교회, 부평감리교회, 청북은혜교회, 사단법인 위드다문화, 남부전원교회, 이룸교회, 수원성교회(안광수 원로목사), 천안 착한이웃교회(가스펠트럭), 청과의료재단 송탄중앙병원, 합정종합사회복지관, 밀도베이커스, 슬로가든(진위), 평택이주민

선교학교2기팀, MICK연구회 등 교회와 기관 그리고 개인까지 많은 이들이 후원했다.

평택이주민연합회는 2018년부터 2023년까지 기쁜교회(류승빈 목사 담임)에서 ‘설날 외국인잔치’를 4회 진행했으며 작년부터 ‘평택이주민체육대회’로 전환하여 올해 2회째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한 이주민은 “작년 체육대회에 이어 두 번째 참여했다. 이주민과 선주민 모두 함께해 너무 즐겁고 행복한 하루였다.”며 “내년에도 꼭 참여할 것”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이지는 기자

평택시가족센터 공동육아나눔터 1~4호점, 돌봄품앗이 활동가 양성교육 진행해



평택시가족센터(센터장 김성영) 공동육아나눔터 1-4호점은 지난 11월 4일 품앗이 활동에 관심 있는 평택시 거주 보호자 28명을 대상으로 ‘2026년 돌봄품앗이 활동가 양성교육’을 실시했다.

‘돌봄품앗이 활동’은 마을 사람들이 농사일을 번갈아 도와주는 품앗이를 통해 일손을 덜었던 것처럼 이웃들이 자녀를 함께 돌봄으로써 육아 부담을 덜고 공동체 정신을 함양하는 공동 활동이다.

이번 교육은 보호자들이 품앗이 활동의 취지와 운영 방법을 이해하고, 실생활에서 직접 적용할 수 있도록 진행됐다.

교육 1회차는 ‘돌봄품앗이 활동의 운영 및 실제’를 주제로 품앗이 활동의 개념, 역할, 운영 규정, 활동가의 자세 등을 공유하며, 활동가로서의 역량을 키우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보호자들은 품앗이에 대한 궁금증을 질의응답 형식으로 해소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2회차는

돌봄품앗이 활동가 양성교육 품앗이 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아이템으로 ‘반미 샌드위치’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참여자들은 이를 통해 품앗이 활동의 핵심 가치인 협력과 상호 지원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었다.

한 참여자는 “아이들 함께 돌보며 배우는 품앗이 문화가 얼마나 따뜻한지 느낄 수 있었다. 앞으로 이웃과 함께하는 품앗이 활동을 적극 실천해 보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평택시가족센터 공동육아나눔터는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지역사회에서 돌봄공동체 사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김영의 기자

평택시, 수요 맞춤형 외국인 숙련기능인력(E-7) 설명회...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기대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12일 지역 내 중소기업 및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역특화형 비자 및 숙련기능인력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평택시와 중소기업진흥회, 평택산업진

흥원이 협업하여 추진했으며, 설명회에서는 지역특화형 비자 및 숙련기능인력 지자체 추천제(E-7-4/E-7-4R)에 대한 제도 설명과 질의응답이 있었으며 50여 명이 참석했다.

지역특화형 비자 및 숙련기능인력 지자체 추천제란 법무부가 일정한 기준을 충족한 외국인에게 장기체류 비자를 발급하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들은 체류자격 변경 후 배우자·미성년 자녀의 국내 체류가 가능해져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및 상주인구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장선 시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관내 기업에 우

수 외국인 인력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지길 바라며, 비자 취득 외국인 정착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중소기업진흥회 외국인기능인력지원단은 중소기업의 만성적인 인력난을 해소하고, 외국인 기능인력이 합법적이고 체계적으로 국내 산업 현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문 기관이다.

중소기업의 수요에 맞춘 외국인 숙련기능 인력의 안정적인 배치를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전화(02-6344-5570)로 문의하면 된다.

김영의 기자



실무교육 강화로 돌봄서비스 향상 기대
용인시가족센터, 27기 신규 아이돌보미 오리엔테이션

사회복지법인 지구촌사회복지재단 용인시가족센터(센터장 유지영)는 2025년 3차 신규 아이돌보미 채용과 함께 27기 아이돌보미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했다. 이번 3차 신규 아이돌보미 채용은 돌봄 공백 해소와 안정적인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해 9월 10일부터 25일까지 15일간 진행되었으며, 아이돌보미 양성 교육·감면교육 수료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지원을 받아 서류심사, 인·적성검사, 면접, 현장실습 등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선발했다. 최종 선발된 아이돌보미들은 11월부터 현장에 투입된다.

아이돌보미 27기 오리엔테이션에서는 아이돌봄 서비스의 실제 적용사례, 아동의 안전관리, 돌봄 관련 서비스 모니터링 절차 등이 안내되어 현장 적응력을 높였다. 또한, 아이돌보미로서의 역할 및 서비스 내용, 고객 응대 방법, 조직 내 커뮤니케이션 방식 등도 설명되어 신규 아이돌보미 전문성과 책임감을 다질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생후

3개월부터 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방문해 하원 동행, 놀이지도, 식사 및 간식 챙기기 등 일상 돌봄을 지원하는 제도로,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최대 85%까지 요금 지원을 한다. 맞벌이, 다자녀, 한부모 등 다양한 가정을 대상으로 지역 사회 돌봄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

용인시가족센터 유지영 센터장은 “아이돌봄 서비스는 양육 친화적인 지역 환경 조성을 위한 핵심 역할을 하며, 앞으로도 시민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전문 아이돌보미 인력 양성에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한편, 용인시가족센터는 용인시에서 설립하고 사회복지법인 지구촌사회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가족복지시설로, 용인시 가족복지증진을 위하여 가족관계, 가족돌봄, 가족생활, 가족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등의 전문 가족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송하성 기자

용인시, 지역화폐 결제 시 5% 특별 캐시백 1인당 최대 5만원



용인시는 오는 17일부터 12월 31일까지(예산소진 시 조기 종료) '용인와이페이' 결제 시 5% 특별 캐시백을 지급한다고 14일 밝혔다. 다문화가족도 다양한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용인와이페이를 이용해 보자.

이번 캐시백 지급은 시가 정부 제1차 추경 우수 집행 지자체로 선정돼 확보한 특별 지원금을 활용한 것이다.

행사 기간 중 용인와이페이 사용자 충전금으로 결제하면 결제금액의 5%가 자동으로 캐시백이 지급된다. 1인당 지급 한도는 5만원이며, 캐시백 유효기간은 2026년 3월 31일까지이다.

용인와이페이 가맹점 어디서나 사용 가능하며, 공공배달앱 등 비대면 결제 시에도 동일하게 혜택이 적용된다.

용인시는 이번 특별 캐시백으로 연말 지역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상일 시장은 "정부 특별 지원 인센티브를 시민에게 환원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앞으로도 지역화폐를 통한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지역상권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하성 기자

"세계 문화, 학교에서 밥상까지!" ...'고림 다함께樂(락) Part.1 다함께 놀자 세계 한마당'



고림초등학교(교장 하경자)는 지난 11월 12일, 학부모회가 주관하는 '고림 다함께樂(락) Part.1 다함께 놀자 세계 한마당' 행사를 운영했다. 이 행사는 학년별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학생들이 놀이와 체험을 통해 다양한 문화를 즐겁게 배울 수 있도록 했다.

'다문화'를 주제로 준비된 이번 행사는 다양한 문화를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기르기 위해 전



교생이 함께 참여했다. 학부모회는 각 반대표, 학년 대표들과 4개의 체험 부스를 운영했으며, 학생들은 세계 여러 나라의 전통 놀이, 의상 등 부스를 돌며 유익한 경험을 했다.

세부 테마 활동으로는 ▲아메리카(멕시코)의 전통 의상 체험 및 로테리아 놀이 ▲아시아(베트남, 일본 등)의 틱택토·와나게·코코넛 밟기 등 전통 놀이 ▲유럽(이탈리

아) 테마의 카니발 가면 만들기 ▲다양한 국가의 메시지를 장식하는 '다함께 지구' 부스가 진행되어 학생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이번 행사는 교실이나 체험 부스에만 머무르지 않고 학생들의 삶과 연계됐다. 학생들은 세계 테마 음식을 맛보며 오감을 통해 세계 문화를 접하고, 학교 교육이 일상생활 속 경험으로 확장되는 '살아있는 배움'을 경험했다.

하경자 교장은 "의미 있는 행사를 기획하고 운영해주신 학부모님들과 열띤 관심과 사랑으로 행사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번 '다함께樂(락)' 행사를 통해 교과서 속 지식이 일상의 삶과 연결되는 전인교육의 장이 되고, 학생들이 다양한 공동체의 가치를 배우며 성장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지은 기자

Гадаадын оршин суугчдыг хүртэл хамарсан улсын хамгийн том нийтийн номын сан “Гёнги аймгийн номын сан” хаалгаа нээлээ

Гёнги аймгийн (аймгийн захирагч Ким Дон Ён) нийтийн төлөөллийн номын сан болох Гёнги аймгийн номын сан 10-р сарын 25-нд албан ёсоор хаалгаа нээлээ.

Сувон хотын Ёнтунд байрлах энэ номын санг ▲Дэлхийд байхгүй номын сан ▲Номын сангийн номын сан ▲Улсын хамгийн том нийтийн номын сан ▲Уурамьсгалын номын сан гэх мэт олон нэрээр нэрлэж, аймгийн иргэдийн дунд ихээхэн хүлээлт үүсгэсэн. Олон жилийн бэлтгэл хангаж, эцэст нь нээлтээ хийсэн юм.

Гёнги аймгийн номын сан нь зөвхөн ном уншдаг уламжлалт номын сангаас цааш гарч, иргэд хамтдаа суралцаж, бүтээж, туршлага солилцох нээлттэй орон зай, шинэ төрлийн платформ байхаар зорьж байгаа нь өмнөх нийтийн номын сангуудаас онцгой ялгарч байна.

Хүүхдийн боловсролд анхааралтай гадаадын оршин суугч болон олон соёлт гэр бүлүүд хүүхдүүд тэйгээ хамт номын санд тогтмол ирж, ном унших нь чухал. Номд дуртай, унших сонирхолтой хүүхэд сурах чадвартай, манай нийгмийн ирээдүйд чухал үүрэг гүйцэтгэх иргэн болон өсдөг.

Улсын хамгийн том нийтийн номын сан

Гёнги аймгийн номын санг барихад нийт 1,227 тэрбум вон зарцуулсан бөгөөд нийт талбай нь 27,795 м² (газрын дээр 5 давхар, газрын доор 4 давхар) байна. Үнэхээр улсын нийтийн номын сангуудаас х

амгийн том нь юм. Газрын доор 2-4 давхар нь зогсоол бөгөөд зочдод 2 цагийн үнэгүй зогсоолын үйлчилгээ үзүүлдэг. Газрын доорх 1-р давхраас газрын дээрх 1-5-р давхар хүртэлх хэсэг нь уншлага, туршлага, үзэсгэлэн, бүтээлийн орон зайгаар бүрдсэн.

Нийт номын тоо 344,216 бөгөөд үүнээс 148,181 нь хэвлэмэл ном, 196,035 нь цахим ном юм. Гёнги аймгаас цаашид 5 жилийн дотор хэвлэмэл номыг 250,000, цахим номыг 300,000 хүртэл нэмэгдүүлж, нийтдээ 550,000 номтой болохоор төлөвлөж байна.

Гадаадын иргэдийг багтаасан “хамтын орон зай”

Гёнги аймгийн номын сангийн 2-р давхрын “Хамтын орон зай” нь хүүхэд, өсвөр үеийнхэн, олон соёлт гэр бүлүүд хамтдаа чөлөөтэй цагийг өнгөрүүлэх боломжтой нээлттэй орон зай юм.

“Дэлхийн найз номын тосгон”-д англи, испани, франц, вьетнам зэрэг 22 хэл дээр хэвлэгдсэн олон төрлийн ном байршуулагдсан тул номын санд ирсэн гадаадын иргэд чөлөөтэй ашиглах боломжтой.

Хүүхдэд зориулсан шинэ уншлагын үйлчилгээ ч нэвтэрч байна. Үүнийг “ном уншиж өгдөг үйлчилгээ” гэж нэрлэдэг бөгөөд хиймэл оюун (AI) дуу хоолойг сургаж, гэр бүлийн гишүүдийн хоолойгоор хүүхдэд ном уншиж өгдөг. Жишээ нь, ээж тодорхой хэсгийг уншвал AI үүнийг сурч, үлдсэн хэсгийг эсвэл өөр номыг ч мөн адил ээжийн хоолойгоор уншиж ө

гдөг. Аав, эмээ, өвөө гэх мэт бүх гэр бүлийн гишүүдийн хоолойг ашиглах боломжтой.

Номын сан ашиглахад илүү хялбар!

Гёнги аймгийн номын сан нээлтээсээ эхлэн энэ оны сүүл хүртэл туршилтын горимоор ажиллах юм. Даваа-Баасан гаригт өглөө 10 цагаас орой 9 цаг хүртэл, Бямба-Ням гаригт өглөө 10 цагаас орой 6 цаг хүртэл ашиглах боломжтой. Гёнги аймаг туршилтын хугацаа дууссаны дараа иргэдийн саналыг тусган байнгын цагийн хуваарь гаргах болно.

Гишүүнчлэл нь ердийн гишүүн болон аймгийн иргэн гишүүн гэж хоёр төрөлтэй. Бодит нэрээр баталгаажвал ердийн гишүүн, оршин суугаа газраа баталгаажуулбал аймгийн иргэн гишүүн болно.

Туршилтын хугацаанд ердийн гишүүд нэг удаа 3 номыг 15 хоногийн хугацаатай зээлж болох бөгөөд ирэх оноос 1 удаа 5 ном, 7 хоногийн сунгалттай зээлэгийн систем нэвтрэх юм. Ном зээлэлт, буцаалт нь киоск-оор хийгдэх бөгөөд хүүхэд, хөгжлийн бэрхшээлтэй иргэдийн хэрэгцээнд нийцүүлэн өндрийг нь тохируулах боломжтой. Аймгийн иргэн гишүүд ердийн гишүүдийн авах бүх үйлчилгээнд нэмээд цахим номыг 15 хоногийн хугацаатай зээлэх үйлчилгээ авах боломжтой. Үүнээс гадна жирэмсэн эмэгтэй, 12 сар хүрээгүй нялх хүүхэдтэй эцэг эх, бүртгэлтэй хөгжлийн бэрхшээлтэй иргэд номыг үнэгүй хүргэлтээр зээлж, буцаах үйлчилгээг ашиглах боломжтой. www.library.kr <한글 기사 지난호 1면>

โปรแกรมดูแลและให้การศึกษาด้านการแพทย์ของจังหวัดคยองกีที่บุตรของผู้ย้ายถิ่นสามารถใช้บริการได้เช่นกัน!

ศูนย์ดูแลเด็ก, ระบบดูแลเด็กอย่างปลอดภัยตลอด 24 ชั่วโมง

จังหวัดคยองกีได้ขยายจำนวน “ศูนย์ดูแลเด็กทุกเวลา” ซึ่งเป็นสถานดูแลเด็กตลอด 24 ชั่วโมง จากเดิม 11 แห่งเพิ่มเป็น 14 แห่ง

การดูแลเด็ก 360° “ศูนย์ดูแลเด็กทุกเวลา” เป็นสถานดูแลเด็กที่เปิดให้บริการ 365 วัน (24 ชั่วโมง) ไม่ใช่แค่วันธรรมดา แต่รวมถึง วันหยุดสุดสัปดาห์และวันหยุดนักขัตฤกษ์, กลางคืน และเช้ามืด เมื่อมีความจำเป็นต้องดูแลเด็กในสถานการณ์ฉุกเฉิน หรือช่วงที่ ครอบครัวไม่สามารถดูแลได้ สามารถฝากบุตรหลานได้อย่างมั่นใจ

ศูนย์ดูแลเด็กทั้ง 14 แห่ง ตั้งอยู่ใน ▲เมืองบุงซอน ▲เมืองนัมยางจู ▲เมืองคิมโพ ▲เมืองฮานัม ▲เมืองฮ็ชอน ▲เมืองโกยาง ▲เมืองอันชาน ▲เมืองอันยาง (2 แห่ง) ▲เมืองอึยจงบุ ▲เมืองโพซอน (2 แห่ง) ▲เมืองกุนโพ ▲เมืองกวางมยอง เป็นต้น

“ศูนย์ดูแลเด็กทุกเวลา” เปิดให้บริการสำหรับผู้ปกครองที่มีบุตรวัยเด็กเล็กซึ่งอาศัยอยู่ในจังหวัดคยองกี (อายุระหว่าง 6 เดือน ถึงก่อนเข้าเรียนระดับประถม ไม่เกิน 7 ปี) สามารถใช้บริการได้อย่างไม่จำกัด ไม่ว่าจะมาเป็นครอบครัวที่เลี้ยงดูเด็กที่บ้าน, เด็กที่กำลังเข้าเรียนในศูนย์ ดูแลเด็กหรือ

อนุบาล, รวมถึงครอบครัวที่อาศัยอยู่ในพื้นที่อื่น ก็ยังสามารถเข้าใช้บริการได้โดยไม่ต้องจำกัด

ศูนย์เปิดให้บริการตลอด 24 ชั่วโมง โดยสามารถจองใช้บริการได้ต่อเนื่อง 1 ครั้ง สูงสุดครั้งละ 5 วัน ค่าบริการอยู่ที่ ชั่วโมงละ 3,000 วอน หากต้องการใช้บริการสามารถติดต่อที่ “ศูนย์ดูแลเด็กทุกเวลา (โทร. 010-9979-7722)” ทั้งนี้ การใช้บริการในช่วงกลางคืนและช่วงเช้ามืด จำเป็นต้องจองล่วงหน้าภายในเวลา 18:00 น. ของวันก่อนหน้า.

ผู้ปกครอง(ผู้สมัคร) ต้องนำบัตรประจำตัวประชาชน, พร้อมเอกสารที่ยืนยันความสัมพันธ์กับเด็ก เช่น ทะเบียนบ้าน หรือหนังสือรับรอง ความสัมพันธ์ในครอบครัว (กรณีชาวต่างชาติให้ใช้ หนังสือรับรองการขึ้นทะเบียนชาวต่างชาติ) มาด้วย นอกจากนี้ยังต้องเตรียมของใช้ส่วนตัวที่จำเป็นสำหรับบุตรหลาน (ผ้าอ้อมสำเร็จรูป, เครื่องนอนส่วนตัว, เสื้อผ้าสำรอง, ขนม เป็นต้น) มาด้วยเช่นกัน

โรงพยาบาลเด็กดัลมิด, อุ่นใจได้ทุกเวลา

จังหวัดคยองกีได้จัดให้มีการดำเนินงาน “โรงพยาบาลเด็กดัลมิด” จำนวน 37 แห่ง เพื่อสร้างระบบรองรับการรักษาพยาบาลเด็กในช่วง กลางคืนและวันหยุดให้มีความมั่นคงและปลอดภัยยิ่งขึ้น

โรงพยาบาลเด็กดัลมิดให้บริการตรวจผู้ป่วยนอกในช่วง

เวลากลางคืนของวันธรรมดา (ถึงเวลา 23:00 น.) ตลอดจนให้บริการในวันหยุด สุดสัปดาห์และวันหยุดนักขัตฤกษ์ (ถึงเวลา 18:00 น.) จังหวัดคยองกีได้สนับสนุนการขยายจำนวนและการบริหารจัดการอย่างมั่นคง ส่งผลให้จำนวนสถานพยาบาลเพิ่มจาก 5 แห่ง ในปี 2021 เป็น 37 แห่ง ในปี 2025

โรงพยาบาลเด็กดัลมิดให้การรักษามือป่วยเด็กทั่วไปในช่วงกลางคืนและวันหยุด ช่วยลดความแออัดในห้องฉุกเฉินและสร้างสภาพแวดล้อม ที่ทำให้ผู้ป่วยรุนแรงสามารถได้รับการรักษาอย่างทันท่วงที

เมื่อมีการขยายการดำเนินงานของโรงพยาบาลเด็กดัลมิด ระบบเชื่อมโยงการรักษาได้รับการจัดตั้งขึ้น ผู้ป่วยเด็กวิกฤตจะถูกส่งตัว ไปยังโรงพยาบาลผู้รับผิดชอบฉุกเฉินสำหรับเด็ก (เช่น โรงพยาบาลบุนดงซา, โรงพยาบาลมหาวิทยาลัยอจาจู, โรงพยาบาลประกันสุขภาพ แห่งชาติอิลชาน) ในขณะที่ผู้ป่วยเด็กที่มีอาการไม่รุนแรงจะได้รับการรักษาที่โรงพยาบาลเด็กดัลมิดและสถานพยาบาลในพื้นที่โดยโอกาส

ระบบนี้ช่วยให้บทบาทของแต่ละโรงพยาบาลชัดเจน และสร้างโครงสร้างการรักษาฉุกเฉินสำหรับเด็กแบบเป็นขั้นตอนอย่างมีประสิทธิภาพ...<중략, 한글 기사 25면>



전통과 마음 잇는 '레이 그라통 축제'...용인외복 태국 자조모임, 풍성한 행사



용인시외국인복지센터(센터장 김용국)는 지난 10월 9일 센터에서 태국 자조모임과 함께 '2025 레이 그라통 축제'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 앞서 참가자들은 시리깃 왕태후의 서거를 추모하는 시간을 가지며, 태국 국민으로서의 마음을 함께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2025 레이 그라통 축제'는 태국의 대표적인 전통 명절인 레이 그라통(Loi Krathong)을 주제로 열렸으며, 다양한 체험과 문화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 내 다문화 교류의 장을 마련했다. 참가자들은 ▲그라통 만들기 및 콘테스트 ▲솜팜(태국식 과과야 샐러드) 만들기 쇼 ▲태국 전통 의상 체험 ▲미술 체험 ▲태국 전통 음식과 과자 시식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즐기며 태국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었다. 메인 프로그램인 '그라통 만들기'는 참가자들이 바나나 잎, 꽃, 초 등을 활용해

자신만의 그라통을 정성껏 제작했다. 완성된 작품들은 전시를 통해 선보였으며, 우수한 작품에 대해서는 시상식도 진행됐다. 태국의 레이 그라통 축제는 태국 음력 12월 보름에 열리는 대표적인 명절로, 사람들은 물 위에 그라통(작은 연꽃 모양의 조형물)을 띄어 자연과 신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한 해의 근심을 흘려보내며 다가올 새해의 평안과 행복을 기원한다. 태국 자조모임 리더 박티마와 박크리 타폰씨는 "이번 행사를 통해 자국의 향기와 문화를 느낄 수 있어서 매우 기뻐

다"라며 "이러한 의미 있는 자리를 마련해준 용인시와 센터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김용국 센터장은 "앞으로도 이주민들이 모국의 문화를 공유하고 지역사회와 어우러질 수 있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문화 다양성을 확산하고, 지역 내 안정적인 정착을 돕겠다"고 밝혔다. 센터는 이번 행사를 통해 태국 출신 이주민들이 자긍심을 갖고 지역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앞으로도 다양한 국적의 자조모임과 함께 문화 교류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영의 기자

외암민속마을, 현충사 탐방하며 한국 역사 이해...용인외복, 외국인주민 문화탐방 진행

용인시외국인복지센터(센터장 김용국)는 지난 11월 2일 외국인주민 50명을 대상으로 충남 아산 외암민속마을과 현충사에서 외국인주민 문화탐방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외국인주민이 한국의 전통문화와 역사적 가치를 체험하며 이해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이날 참가자들은 전통 가옥과 생활문화를 체험하고 이

순신 장군의 정신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외암민속마을에서 ▲전통 다식 만들기 ▲가마솥밥 체험 ▲한지 손거울.초롱 등 만들기 등의 전통문화 체험에 참여하며 한국 고유의 생활문화를 경험했다. 또한 직접 만든 다식과 가마솥밥을 함께 나누며 참가자 간 교류의 시간도 가졌다. 오후에는 현충사를 방문해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생가와 유물 전시관을 관람하

며 한국의 역사와 애국정신을 경험하는 시간을 통해 한국의 역사적 가치에 대해 이해를 넓힐 수 있었다. 외국인주민 문화탐방 프로그램은 단순한 관광이 아닌, 외국인주민이 한국의 문화와 정신을 직접 체험하며 공감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참가자들은 "책이나 영상으로만 보던 한국 전통문화를 직접 경험해볼 수 있어서

인상 깊었다"라며 "한국에 대한 이해와 애정이 더 커졌다"고 말했다. 김용국 센터장은 "이번 탐방을 통해 외국인주민들이 한국의 전통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역사적 인물의 정신을 이해함으로써 한국 사회에 대한 이해와 공감의 높아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문화교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의 기자



‘글로벌 필리핀 점프 UP’

연천군, 국제교류 공유학교 성공적 마무리



연천군은 (재)연천군청소년육성재단(청소년문화의집)이 운영하는 ‘글로벌 필리핀 점프 UP’ 국제 교류 공유학교 프로그램이 지난 8일 마치면서 청소년 교육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연천교육지원청과 연천군청소년육성재단이 협력해 지난 9월부터 11월 8일까지 진행된 이 프로그램은 지역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방과 후와 주말, 방학을 활용해 집중 운영됐다.

특히 단순 체험이 아닌 단계별 맞춤 교육으로 글로벌 역량과 다문화 이해를 키우는 데 중점을 뒀다.

이 프로그램은 필리핀 문탈반 지역의 문화·기후·생활을 이해하고, 다문화 소통법을 배우며, 연천 지역 문화를 홍보하는 콘텐츠를 제작하는 등 현지와 연계한 실질적인 교류 활동으로 구성됐다.

한국어 기초 교육과 필리핀 친구들의 이름을 한글로 쓰는 명찰 제작, 봉사활동을 형상화한 댄스 공연 등 특색 있는 활동이 참가자들의 높은 만족도를 이끌어냈다. 프로그램 전 안전교육과 사고 대비 비상 연락망 시스템을 구축해 안전을 철저히 관리했으며, 종료 후 사후 평가 워크숍을 통해 참여 역량을 점검하고 소감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송하성 기자

신서면 힐링스테이 5일 문열어

연천군, 낡은 건물 리모델링...전 주민 이용

연천군 '신서 힐링스테이'가 5일 문을 열었다. 신서 힐링스테이는 연천군 신서면 도신리 273-40번지에 위치한 옛 진주 목욕탕 건물을 리모델링한 공간으로 어린이, 청소년, 군장병, 어르신들까지 전 세대가 이용할 수 있다. 다문화가족도 함께 이용하면 좋겠다.

1층에는 지역 주민들의 쉼터와 외출·외박 군장병을 위한 물품·의류 보관함 등이 마련된 도신마루가 있으며, 태양열 집열기와 폐열회수 설비를 갖춘 에너지자립 목욕탕이 운영된다. 2층에는 신서면을 찾는 관광객, 군장병 및 가족 등이 이용할 수 있는 숙박시설이 마련된다. 시설들은 주민협동조합에서 시범운영 한다.

경기도는 신서 힐링스테이 외에도 지역축제 운영, 대표메뉴 개발 컨설팅 등 상권 활력 회복을 위한 사업도 같이 추진하고 있다. 이번 사업을 통해 군장병 가족, 관광객 등의 지속적인 방문과 체류를 유도해 침체된 지역 경제 회복에 실

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연천군 신서면은 경기도 내 가장 심각한 인구소멸 지역 중 하나다. 인구의 꾸준한 감소와 군인 대상 지역상권의 급격한 쇠퇴로 공실상가와 공폐가가 생기기 시작해 지역 활력 회복을 위해 도시재생을 통한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경기도는 2023년 경기 더드림 재생 공모사업지로 신서면을 선정한 후 ▲신서 힐링 스테이 ▲신서지역 축제 운영 ▲지역 대표메뉴 개발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등 도시재생 기반조성 및 상권 활성화를 위한 역량 강화 사업을 추진했다.

안성현 경기도 도시재생과장은 “신서 힐링 스테이는 원도심 내 방치된 유휴 공간을 활용한 도시재생의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며 “지역의 고유 자산을 기반으로 실질적인 변화와 도민 체감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송하성 기자

2025년 연천군가족센터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결혼이민자 입국초기 정착단계 및 한국사회 조기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통번역서비스 제공

지원기간

2025. 1. 31.~2025. 12. 31.

지원 언어

베트남어 지원
(기타 언어는 인근센터와 연계제공)

이용방법

내방, 전화, 이메일, 팩스, 출장(외)등

문의처

Tel 031-835-0093
Mobile 010-3210-5432(센터폰)

지원대상

- 다문화가족
- 외국인·난민가족 또는 다문화가족
- 외국인·난민가족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개인 또는 기관

지원내용

- 입국초기 상담, 정보제공, 교육과정 등 통번역
- 인신·출신·양육 등 생활정보 안내 및 상담 내용 통역
- 위기상황 시 긴급지원 등 통번역
- 공공기관 유관기관 등 이용 시 통번역(공중 제외)
- 보육기관, 교육기관의 가정통신문 및 상담 등 통번역

참고사항

- 모든 서비스는 무료 지원
- 이용자가 내방하는 경우 즉시 서비스를 제공
- 출장통장의 경우 사전예약 필수
- 공중·법적책임을 요하는 확인서 발급 제한



연천군가족센터와 함께하는 FUN FUN 가족여행



상하농원 견학



셀프 바베큐



상하농원 공방 체험

FUF FUN 가족캠프 참여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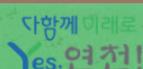
진행 장소 | 전라북도 고창군 상하농원 및 파머스빌리지

진행 일정 | 2025년 11월 19일(수) ~ 11월 20일(목) / 1박 2일 **★**

참여 대상 | 영유아 또는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가 있는 가족

신청 비용 | **★ 전액 무료**

신청문의 | 031-835-0094





새단장 '별양어린이공원' 개장

과천시, 시민 의견 반영...이용자 중심 공원



과천시는 14일, 전면 재정비를 마친 별양어린이공원(별양동 30번지) 개장식을 열고, 시민에게 개방했다고 밝혔다.

이날 개장식에는 신계용 과천시장, 시의회 의원, 지역 어린이집 원아와 학부모,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별양어린이공원 재조성사업은 경기도 '유니버설 디자인 공모사업'에 선정돼 추진됐다. 과천시는 지난해 주민설명회와 어린이집 교사 간담회 등을 통해 시민 의견을 반영해 '너와 내가 함께하는 공원'이라는 주제를 도출하고, 그에 걸맞은 이용자 중심의 공원으로 완성했다. 주거

지역에 있는 1,783㎡ 규모의 해당 공원은 낡은 시설과 출입구 높낮이 차이 등으로 개선 요구가 지속돼 왔으며, 시는 이를 해소하고 모든 세대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재정비했다.

새로 단장된 공원은 다양한 놀이 시설물과 모래 놀이터, 황톳길, 놀이·휴식 복합 공간인 '레몬테라스 카페'·'레몬테라스 가든', 어르신과 주민을 위한 운동 및 휴게 공간 등 세대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복합형 공원으로 구성됐다.

또한 공원 전 구간의 높낮이 차이를 없애고 완만한 경사로를 설치해 장애인과 유모차 이용자도 이동이 편리하도록 설계하는 등 범용(유니버설) 디자인 기준을 반영했다. 다문화가족도 이용해보자.

신계용 과천시장은 "앞으로도 시민 의견을 세심하게 반영해 일상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공원으로 가꿔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한센 피부병 무료 검진 실시

과천시보건소, 18일 선착순 현장 접수 진행



과천시보건소는 오는 18일 오전 10시부터 보건소 2층 보건교육실에서 선착순으로 현장 접수한 시민 120명을 대상으로 한센 피부병 무료 검진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검진은 한국한센복지협회 이동진료반 3명이 과천시보건소를 방문해 진행하며, 한센병을 비롯해 습진, 무좀 등 다양한 피부질환을 진료하고

필요한 경우 약품을 지급한다.

류정현 과천시 질병관리과장은 "이번 검진이 피부질환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감염병 없는 건강한 과천시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예방 중심의 보건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과천시보건소는 지난 10월 25일 중앙공원에서 열린 '감염병 바로 알기' 행사에서도 시민 850여 명을 대상으로 피부병 무료 검진을 하고 약품을 지원한 바 있다. 한센 피부병 검진은 외국인주민에게도 필요한 만큼 관련 사업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 이지은 기자

도심 속 농업 체험 공간 열려

과천시, 도시농업센터 11월 17일 개소 예고

도심 속에서 농업을 배우고 즐길 수 있는 새로운 시민 체험 공간이 과천에 문을 연다.

과천시는 갈현동 168번지 일원(과천시자원정화센터 인근)에 조성한 '과천시 도시농업센터' 개장식을 11월 17일 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도시농업센터(공영도시농장)는 도시농업에 대한 시민들의 높은 관심과 체험 수요에 대응해 조성된 시설로, 총 부지 2,138㎡ 규모로 마련됐다. 이 중 1,630㎡는 시민 분양 텃밭으로, 나머지 공간에는 유리온실 체험농장과 교육·휴게 공간(330㎡)이 들어섰다. 현재 텃밭에서는 원문동과 문원동의 4개 단체가 김장용 무와 배추를 시범 재배하고 있으며, 시는 내년 봄부터 시민 참여형 분양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유리온실 체험농장에서는 지난 9월 심은 딸기 모종이 자라고 있으며, 내년 1월 말부터는 어린이 딸기 수확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약 5평 규모의 수직형 지능형 농장에서는 채소 모종을 재배해 시민들이 첨단 농업기술을 직접 체험하고 도시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운영된다.

과천시는 앞으로 도시농업센터를 거점으로 계절별 농업 체험, 가족 단위 교육프로그램, 지역 단체 연계 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도시농업 참여 문화를 확산할 방침이다. 과천시 관계자는 "도시농업센터는 다양한 세대가 함께 참여하고 배우는 열린 공간으로, 도시와 농업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과천의 새로운 상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문화가족도 이용해보자. 이지은 기자



2025 결혼이민자 역량강화교육 지원 * 다문화가족 초기 정착지원

내 친구의 한국어 교실 & 나눔장터

2025년 11월 28일 (금) 13:00~15:00

과천시가족센터 2층

신나는 한국어 중강식도 참여하시고, 나눔장터에서 득템하세요.

참가 대상
한국어 교육 학습자와 친구
다문화가족 누구나
(나눔물건이 있으면, 11/28(금) 가져오세요.)

프로그램
나의 이름, 나의 언어로 이름표 만들기
한국어 중강식
- 2025년 우리
- 신나는 레크레이션
- 포토월 앞 사진 촬영
나눔장터
- 물품 나눔 접수
- 나한텐 안 쓰는 물건, 너한텐 보물!

접수 및 문의
QR코드 접수 (11월 25일까지)
문의 02.503.0070

다문화 자녀의 언어 능력 평가하고 발달 지원해요!

화성시가족센터, 다문화자녀 대상 무료 언어발달지원서비스 제공



화성시가족센터(센터장 박미경)는 다문화가족 자녀의 언어 능력을 평가하고,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아동을 대상으로 무료 언어발달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센터에서는 아동의 나이와 의사소통 수준 등을 고려해 적합한 평가도구를 선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아동의 현재 언어 발달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

평가 결과 언어교육이 필요한 아동에게는 어휘 및 구문 발달 촉진, 대화 및

사회적 의사소통 능력 향상, 읽기 및 이야기하기 능력 강화 등 개인별 맞춤형 언어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부모 상담 및 교육을 통해 주 양육자에게 아동의 언어발달 단계에 대한 시각적 자료와 가정에서 실천할 수 있는 언어촉진 방법을 안내하고, 부모의 언어지도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번 언어발달지원사업 소그룹 부모교육은 총 2회기로 진행됐다.

1회기는 '그림책과 놀이를 활용한 언어

자극 방법'을 주제로, 그림책과 놀이를 통해 아이의 언어발달을 촉진하는 방법을 배우고 가정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언어 놀이 팁을 나누었다.

2회기는 '신명 나게 그림책 읽고, 몸과 마음을 다독이는 놀이 치유'를 주제로, 언어발달의 어려움으로 인해 몸짓이 거칠어진 아이와 스트레스를 겪는 부모의 마음을 함께 풀어주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교육을 통해 부모들은 자녀의 언어발달을 도울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을 배우고, 아이와의 소통에서 즐거움과 치유를 경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화성시가족센터는 앞으로도 다문화 가정 아동의 언어발달을 지원하고, 건강한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화성시가족센터 특성화사업팀(070-8831-8622)으로 하면 된다. 김영의 기자

부모.자녀 함께하며 의사소통.친밀감 UP

화성시가족센터(센터장 박미경)는 오는 11월 29일과 12월 6일 부모와 자녀의 의사소통 및 친밀감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부모와 자녀 간의 건강한 관계 증진을 위해 마련됐다. 그림책테라피를 통한 부모.자녀 친밀감 향상 프로그램은 ▲TA드라이버 카드로 양육스타일 확인 및 건강한 양육방법 알아보기(부모 대상) ▲미술치료를 통한 자아존중감 향상하기(자녀 대상) ▲색채심리 및 팝아트로 가족애자 만들기(부모.자녀 대상) 등이 운영됐다. 1차 프로그램은 9월 20일, 2차 프로그램은 9월 27일 진행됐다. 박미경 센터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를 증진하고 친밀감을 향상해 화성시 가족의 기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070-7774-7088

김영의 기자

부모-자녀 친밀감 향상 프로그램

가족의 시간속으로

본 프로그램은 부모와 자녀가 함께 그림책 및 미술을 매개로 의사소통 및 친밀감을 향상시키고 건강한 가족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입니다.

모집기간	11월5일(수) ~ 선착순 마감
대 상	화성시에 거주하는 부모(1명)와 자녀(7~10세 /1명) 9가족
운영장소	화성시가족센터 다목적실(항남읍 평2길 16)
비 용	전액무료(도시락 & 간식제공)
신청방법	화성시가족센터 홈페이지(부모/자녀 가입 필수) hsfc.familynet.or.kr

구분	일정안내				
운영 일시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20%; text-align: center;">2025.11.29 (토) 10:00~15:00</td> <td> ★ 그림책테라피~ - 가족의 시간속으로(과거로의 여행) - 그림책을 통한 부모와 자녀의 마음속 들여다보기 - 빛그림책을 통한 의사소통 향상(현재와 미래로의 여행) </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2025.12.06 (토) 10:00~17:00</td> <td> ★ 우리가족 행복만들기~ - 나의 양육스타일 찾기(부모대상) - 자존감이 쑥쑥 커지는 미술치료(자녀대상) - 팝아트와 함께하는 가족애자 만들기(부모+자녀대상) </td> </tr> </table>	2025.11.29 (토) 10:00~15:00	★ 그림책테라피~ - 가족의 시간속으로(과거로의 여행) - 그림책을 통한 부모와 자녀의 마음속 들여다보기 - 빛그림책을 통한 의사소통 향상(현재와 미래로의 여행)	2025.12.06 (토) 10:00~17:00	★ 우리가족 행복만들기~ - 나의 양육스타일 찾기(부모대상) - 자존감이 쑥쑥 커지는 미술치료(자녀대상) - 팝아트와 함께하는 가족애자 만들기(부모+자녀대상)
2025.11.29 (토) 10:00~15:00	★ 그림책테라피~ - 가족의 시간속으로(과거로의 여행) - 그림책을 통한 부모와 자녀의 마음속 들여다보기 - 빛그림책을 통한 의사소통 향상(현재와 미래로의 여행)				
2025.12.06 (토) 10:00~17:00	★ 우리가족 행복만들기~ - 나의 양육스타일 찾기(부모대상) - 자존감이 쑥쑥 커지는 미술치료(자녀대상) - 팝아트와 함께하는 가족애자 만들기(부모+자녀대상)				

문의전화 ☎ 070-7774-7088

가족사랑의 날 ESG챌린지 11

우리가족! 주토피아로!

상영작
주토피아2

일시
2025년 11월28일(금)
19시

장소
화성시 작은영화관
(마도면 마도북로 387
마도문화센터 3층)

- **신청일** : 2025년 11월 10일 (월) 14시~
- **신청방법** : 화성시가족센터 홈페이지 (참여자 전원 회원가입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 **대상** : 화성시거주 다양한 2인 이상의 가족(70명) (신규가족 & 온가족참여 우선접수)
- **문의** : 가족사랑의 날 담당 070-8831-3469

신청 바로가기

* 상기 일정은 센터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참여자에 한해 확정 문자 안내 예정입니다.
 * 신규 가족 기준은 화성시가족센터 프로그램을 처음 이용하시는 가족(홈페이지 최초 가입)입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해 동의서를 받고 프로그램 사진 등을 센터 홍보(홈페이지, SNS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피해 불법체류 외국인, 강제퇴거 두려움 덜었다”

11월 6일부터 통보의무 면제 제도 시행되지만 미흡... 실질적인 구제 대책 마련되어야

한국에서 불법체류 외국인은 늘 단속의 대상이 되어 불안감에서 살고 있어요. 특히 일을 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에 사업주를 신고하기도 어려워요.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하다가 외국인의 불법체류 사실을 알게 되면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알리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이에 법무부는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로환경 조성 및 임금체불 피해 최소화를 위해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11월 6일부터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 통보의무 면제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어요.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외국인의 불법체류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 지체 없이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이로 인해 임금체불 등 피해를 당한 외

국인 근로자가 강제출국 우려 때문에 권리구제를 위한 신고를 주저하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어요.

이에 법무부는 임금체불 등의 피해를 입은 외국인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의 통보의무를 면제하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했어요.

사실 기존에도 다음 5가지 유형의 경우 통보의무를 면제하는 규정이 있었어요.

▲외국인이 유치원 및 초·중·고 재학생인 경우 ▲공공보건의료기관 환자 ▲아동복지시설 아동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 아동 ▲범죄피해자 및 인권침해 구제 대상 등이예요. 이 유형에 임금체불 외국인도 이번에 포함된 것이예요.

이에 대해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번 제도 시행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이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다”며, “앞으로도 법무부는 근로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호에 힘쓰겠다”고 밝혔어요.

하지만 이로써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예요. 임금을 받지 못한 불법체류 외국인이 사업주를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사업주가 보복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를 신고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임금체불 사실에 대한 조사를 하고 나온 외국인 근로자가 고용노동부 앞에서 잡혀가는 경우도 있어요.

따라서 임금을 받지 못한 불법체류 외국인이 실질적으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더 구체적인 조치가 필요해요.

〈베트남어 5면, 러시아어 11면, 영어 15면, 몽골어 36면, 캄보디아어 18면〉 경기외국인SNS기자단

Цагаачдад чиглэсэн бодлогыг улс даяар хамгийн түрүүнд тогтолцооны түвшинд хэрэгжүүлж буй Гёнги аймаг. 전국에서 가장 앞선 이주민정책 제도화!

Гёнги аймаг өнгөрсөн 10-р сарын 28-нд Үндэсний Ассамблейн байрны 2-р бага хурлын танхимд, улсын хэмжээнд анх удаа батлагдсан “Цагаачдын хүний эрхийг хамгаалах 3 үндсэн журам”-ын хэрэгжилтийг сайжруулах, цагаач иргэдийн оролцоог нэмэгдүүлэх, төв засаг болон орон нутгийн хамтын ажиллагааны тогтолцоог бий болгох арга замыг хэлэлцсэн “Цагаачдын эрхийг хамгаалах тогтолцоо байгуулах бодлогын хэлэлцүүлэг”-ийг зохион байгууллаа.

Гёнги аймагт 9-р сард батлагдсан 3 үндсэн журам нь: “Гёнги аймагт цагаач гаралтай оршин суугчдын эсрэг ялгаварлан гадуурхалтыг хориглох, хүний эрхийг хамгаалах журам”, “Гёнги аймагт дүрвэгчдийн хүний эрхийг хамгаалж, амьдралын үндсэн нөхцөлийг баталгаажуулах журам”, “Гёнги аймагт төрсний бүртгэлгүй гадаад хүүхдийг илрүүлж дэмжих журам” зэрэг болно.

Энэ арга хэмжээ нь Пак Хэ Чол, Со Ми Хва (Ардчилсан нам) болон Юн Жон О, Сон Сол (Прогрессив нам) зэрэг УИХ-ын гишүүдтэй хамтран зохион байгуулагдсан бөгөөд уг өдөр Гёнги аймгийн Захиргааны дэд дарга Ким Дэ Сүн, аймгийн хурлын гишүүн И Ин Э, Хүний эрхийн үндэсний комиссын төлөөлөл, гадаадын оршин суугчид зэрэг нийт 100 орчим хүн оролцсон байна.

Гёнги аймгийн дэд дарга Ким Дэ Сүн хэлэхдээ: “Гёнги аймагт гэхэд л 810,000 цагаач иргэн амьдарч байна. Солонгос улс аль хэдийн олон угсаатны, олон соёлт нийгмийн зам руу орж байна. Одоо бол зөвхөн журам батлахад хязгаарлагдах бус, бодит өөрчлөлтөд хүрэх ёстой. Өнөөдөр хэлэлцэгдсэн а

суудлуудыг бодлогод тусган, цагаач иргэдийг хүндлэлтэйгээр хамт амьдрах боломжтой нийгмийн орчныг бүрдүүлэхийг зоринго.”

УИХ-ын гишүүн Пак Хэ Чол хэлэхдээ: “Журмын ахиц гарсан хэдий ч цагаачид амьдралын өдөр тутмын нөхцөл байдалд тулгарч буй бодит байдал одоо ч хүнд хэвээр байна. Би цагаач иргэдийг тэгш эрхтэй нийгмийн гишүүн гэж хүндэтгэдэг нийгмийг бүрдүүлэхэд хувь нэмрээ оруулах болно.”

Аймгийн хурлын гишүүн И Ин Э хэлэхдээ: “Энэ удаад батлагдсан 3 үндсэн журмын хэрэгжилтийг дээшлүүлэхийн төлөө бүхнээ зориулна. Цагаач иргэдийг нийгмээс гадуурхахгүйгээр өсч хөгжиж, амьдрах боломжийг бүрдүүлэхийг дэмжинэ.”

Энэ өдөр зохион байгуулагдсан арга хэмжээний даргаар И Жа Сымин, Солонгосын Соёлын Олон Янз байдлын байгууллагын захирал ажилласан байна. Солонгосын Жөнбүг их сургуулийн нийгэм судлалын тэнхмийн профессор Соль Дон Хун “Солонгосын цагаач нийгмийн өөрчлөлт ба хүний эрхийг хамгаалах тогтолцоо байгуулах шаардлага” сэдвэр илтгэл тавьсан.

Профессор Соль хэлэхдээ: “Солонгосыг аль хэдийн олон соёлт, цагаач нийгэм гэж үнэлж байгаа ч хүний эрхийг хамгаалах тогтолцоо нь эхний шатандаа байна. Гёнги аймгийн журам батлах нь хүний эрхийн бодлогын жишиг болж чадна, мөн улсаар тархаахад суурь болж болохуйц юм.” Үүний дараах хэлэлцүүлэгт төв засаг, орон нутгийн засгийн газрын үүрэг, хүний эрхийг хамгаалах тогтолцооны тогтвортой байдал, талбарт төвлөрсөн бодлогын сайжруулалтын арга замуудыг хэлэлцэв.

Чой Сёри, Цагаачлалын бодлогын судалгааны хүрээлэнгийн судлаач, хэлэлцүүлэгт оролцож хэлэхдээ: “Төв засгийн газрын цагаачлалын бодлогыг системтэйгээр удирдах болон орон нутгийн засгийн газрын талбарт төвлөрсөн интеграцийн чухлыг онцолж байна.”

О Кён Сок, Гёнги аймгийн Цагаачдын нийгмийн интеграцийн дэмжлэгийн төвийн захирал хэлэхдээ: “Цагаачдын хүний эрхийг хамгаалах энэ ойлголтыг хууль, журмаар баталгаажуулах нь хялбар байгаагүй. 3 үндсэн журмыг боловсруулахдаа нэг жил гаруй хугацаанд олон цагаач дэмжих байгууллага, гадаад иргэд, Гёнги аймгийн хурлын гишүүд, хуульчид, академичид, олон улсын байгууллагуудтай хэлэлцэн, энэ үр дүнд хүрсэн.”

О Кён Сок мөн хэлэхдээ: “Гёнги аймгийн хүний эрхийг хамгаалах журмын хэрэгжилтийг сайжруулахын тулд улсын хэмжээнд тогтолцооны шинэчлэл хийх, бүс нутгийн түвшний удирдлагын тогтолцоо байгуулах шаардлагатай. Улсын хэмжээнд хамгийн түрүүнд цагаачдын бодлогыг тогтолцоонд оруулж, хэрэгжүүлж буй Гёнги аймаг бахархалтай.”

Гёнги аймаг энэ хэлэлцүүлэгт хэлэлцэгдсэн асуудлуудыг үндэслэн цагаачдын хүний эрхийг хамгаалах бодлогын талбарт хэрэгжилтийг сайжруулах, цагаачдын оролцоог нэмэгдүүлж удирдлагын тогтолцоо байгуулах, төв засаг болон орон нутгийн засгийн газар хоорондын хамтын ажиллагааны тогтолцоог бүрдүүлэх зэрэг ажлыг хэрэгжүүлэхээр төвлөж байна.

〈한글 기사 지난호 1면〉

경기외국인SNS기자단



"김장김치로 외국인주민과 따뜻한 정 나뉘요"
화성외복과 '함께하는 사랑밭', 김장김치로 함께하는 식사' 진행

화성시외국인복지센터(센터장 손병희)는 지난 11월 9일 이주노동자 가족을 위한 김장 체험교실 '마음 버무리기'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사단법인 함께하는 사랑밭(대표이사 정유진)이 주관하는 '김장김치로 함께하는 식사' 공모사업에 선정돼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총 15가정 39명이 참여해 약 500kg의 김치를 담갔다. 완성된 김치는 지역 내 1인가구 이주노동자 100

명에게 전달돼 이웃과 따뜻한 나눔으로 이어졌다. 또한 몽골, 방글라데시,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중국, 필리핀 등 다양한 국적의 가족이 음식을 가지고 와 접심으로 포틀럭 파티를 열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우정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

손병희 센터장은 "이번 김장 프로그램은 이주노동자 가족이 단순한 수혜자가 아닌 직접 참여 주체로 나서는 의미 있

는 시도였다"라며 "가족 간 유대가 깊어지고 지역사회에 대한 소속감이 더욱 커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업을 지원한 사단법인 함께하는 사랑밭은 1987년 시민 참여로 설립된 국내 자생 NGO로, 돌봄, 교육, 위기 가정, 의료사각지대 등 다양한 영역에서 사회적 연대와 맞춤형 복지 지원을 실천하고 있다.

김영의 기자

미얀마공동체 지역 사회 봉사활동 진행



화성시외국인복지센터(센터장 손병희)는 지난 10월 2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장애인 생활시설 '돌다섯해누리'에서 미얀마공동체와 함께하는 지역사회 참여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활동에는 미얀마공동체 회원 15명과 담당자 1명이 참여해, 시설 이용자들을 위한 봉사활동과 선물 나눔을 통해 따뜻한 마음을 전했다.

이번 봉사활동은 미얀마공동체가 자발적으로 지역사회에 참여함으로써 외국인 주민으로서의 소속감과 책임 의식을 높이고, 공동체 구성원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손병희 센터장은 "이번 봉사활동은 외국인 공동체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함께 나누고 실천하는 소중한 자리"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속에서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의 기자

한식으로 배우는 한국문화, 다문화 소통의 장 마련



화성시외국인복지센터(센터장 손병희)는 11월 한 달간 매주 일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센터 3층 요리교실에서 '문

화다양성 만들고 나누기-한식요리교실'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외국인 주민이 한식을 직접 배우며 한국의 전통문화를 이해하고, 음식을 함께 만들며 센터 방문 학습자들에게 나눔의 의미를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한식요리교실은 성인 외국인 주민을 대상으로 ▲11월 2일 '오색대하찜'을 시작으로 ▲9일 '오리훈제무삼말이', ▲16일 '고구마 맛탕과 경단'이 진행됐다. 또한

▲23일 '꼬치전', ▲30일 '바람떡 만들기'가 운영된다. 매 회차 계절 식재료의 특징과 전통음식에 담긴 상징적 의미를 배우고, 완성된 요리를 함께 시식하며 한국의 음식문화를 체험하게 된다.

손병희 센터장은 "이번 과정을 통해 외국인 주민들이 한국문화를 깊이 이해하고,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의 기자

스리랑카공동체와 함께 '크리켓 경기'

화성시외국인복지센터(센터장 손병희)는 지난 10월 26일 오후 12시부터 6시까지 화성드림파크야구장에서 스리랑카공동체 회원 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스리랑카공동체 체육교류활동 크리켓 경기'를 성황리에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스리랑카공동체 구성원들이 모국 대표 스포츠인 크리켓을 통해 친목을 다지고, 건강한 여가문화 속에서 공동체 의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발안축산농협에서 집결 후 경기장으로 이동해 단체사진 촬영과 안전수칙 안내로 시작됐다. 이후 두 팀으로 나뉘어 진행된 크리켓 경기는 열띤 응원 속에 활기를 더했으며, 중간에는 휴식과 간식 시간을 함께하며 즐거운 교류의 장이 이어졌다.

손병희 센터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외국인 공동체가 문화와 스포츠를 통해 지역사회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의 기자

화성외복, 내외국인 함께 즐기는 다문화 체험 진행



화성시외국인복지센터(센터장 손병희)는 지난 11월 2일 향남2지구 1호광장에서 열린 '제9회 다누리축제'에 참여해 '문

화다양성 이해 캠페인' 부스를 운영했다. 이번 행사는 내,외국인이 함께 다양한 문화를 체험하며 상호 존중과 공존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센터는 자원봉사자 20명과 함께 ▲문화다양성 인식개선 퀴즈 ▲마트료시카 만들기 ▲세계국기 팔찌 만들기 등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참가자들은 직접 만들기 활동과 퀴즈를 통해 세계 여

러 나라의 문화를 배우고, 문화 다양성의 의미를 자연스럽게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손병희 센터장은 "다누리축제는 화성시가 가진 다문화적 가치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행사"라며 "앞으로도 외국인 주민과 지역사회가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영의 기자



창작 뮤지컬 '멋진 어린이 선발대회' 화성시가족센터, 친구 관계 형성과 정서 발달 증진

화성시가족센터(센터장 박미경)는 지난 11월 8일 화성시 관내 아동과 학부모가 참여하는 '멋진 어린이 선발대회' 뮤지컬 공연을 진행했다.

이번 공연은 다문화가족 자녀 기초학습지원사업인 '한글·수학 꿈씨앗 교실' 문화 체험 프로그램으로, 또래 친구 관계 형성과 정서 발달 증진을 위해 마련됐다.

참여 아동들은 뮤지컬을 통해 등장인물의 감정과 상황을 이해하고 친구의 감정을 공감하는 법을 배웠다. 또한, 노래, 대사, 몸짓을 통해 언어적, 비언어적 표현을 배우고 무대, 음악, 의상, 연기 등을 통해 상상력과 창의력을 키울 수 있었다.

다문화 자녀들은 "잘난 체만 하고 친구를 괴롭히던 뽀순이가 뽀치와 꽃님의 도움을 받아 함께 사이좋은 친구가 되어서 기뻐다"라며 "나도 꽃님처럼 친구를 이해하고 도와주는 멋진 어린이가 되고 싶다"고 소감을 말했다. 이날 자녀와 함께 공연을 본 학부모는 "재미있고 유익한 뮤지컬을 지역에서 편하게 볼 수 있어서 행

복하고, 아이와 친구 관계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며 소통할 기회가 되어서 좋았다"라며 "가족이 참여할 수 있는 문화 공연을 준비한 화성시가족센터에 감사하다"고 했다.

박미경 센터장은 "교실에서 배우기 어려운 용기, 정직, 존중 등 인성 교육 내용을 음악과 노래 등 뮤지컬을 통해 전달하면서 감정 중심의 학습 효과와 흥미를 높일 수 있었다"라며 "타인을 배려하고 협력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어린이로 성장하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형태의 문화 프로그램을 지속해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화성시가족센터는 학교생활과 지역사회 적응을 위해 다문화가족 자녀 기초학습지원사업 '한글·수학 꿈씨앗 교실'을 운영 중이다. 또한, 정서적 발달과 인성 발달을 위한 부모교육, 체험 학습 프로그램도 지원하고 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화성시가족센터 친화사업팀(070-8831-8626, 031-352-1214/2번)으로 하면 된다.

김영의 기자

화성외복, "빛과 우정의 명절, 네팔 전통문화로 하나 됐어요"



화성시외국인복지센터(센터장 손녕희)는 지난 10월 26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센터 3층 강당에서 네팔공동체 회원 2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네팔 자국문화교류 행사-띠하르 명절 축제'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네팔의 대표 명절인 띠하르를 함께 기념하며 공동체 구성원 간의 유대감을 다지고, 지역사회에 네팔의 전통문화를 소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띠하르 소개를 시작으로 센터장 인사말, 내빈 축사, 네팔 전통춤과 노래 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또한 참석자들이 준비한 플라워, 셀로티, 어짜르, 블랙 밀크티 등 네팔 전통 음식을 나누며 고향의 맛과 정을 함께 나누었다.

손녕희 센터장은 "이번 띠하르 문화교류 행사는 네팔공동체 구성원들에게는 자긍심과 소속감을, 타국 주민들에게는 네팔 문화를 이해할 소중한 기회를 제공했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나라의 공동체가 자신들의 문화를 공유하고 교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화성시외국인복지센터는 앞으로도 외국인 주민들이 서로의 문화를 배우고 이해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자국문화교류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영의 기자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무료 이용해요"

화성시가족센터, 베트남어와 태국어 통번역 서비스 제공



화성시가족센터(센터장 박미경)는 결혼이민자의 안정적인 한국 사회 정착과 자립능력 향상 및 주체적 역할 강화를 위해 '무료 통번역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무료 통번역서비스는 병원, 은행, 공공기관, 학교 등에서 필요한 동행 통역 서비스를 비롯해 가정통신문 및 각종 서식, 한국의 일상생활 관련 문서, 체류기관 서류, 자녀 양육 관련 서류 등을 지원하고 있다. 단, 법적 책임이나 공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서비스를 지원하지 않

는다. 통번역서비스 지원 대상은 다문화가족, 외국인, 난민가족 및 이들을 직,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개인 또는 기관이다. 신청은 내방, 전화, 이메일, 팩스, 파견(출장)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파견(출장), 통역, 번역서비스는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며, 당일 접수의 경우 기관 사정에 따라 즉시 처리가 어려울 수 있다.

화성시가족센터는 올해 상반기부터 태국어 통번역사를 배치해 베트남어와 태국어 통번역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이는 입국 초기 결혼이민자가 겪는 언어 소통의 어려움 해소 및 가족·사회생활 적응 지원을 위한 것이다. 통번역서비스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점심시간 12시~13시, 주말 제외) 이용할 수 있다.

통번역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화성시가족센터 특성화사업팀(베트남어 070-8831-8622, 태국어 070-8831-9104)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영의 기자

경기교통공사, 화성시 팔탄면 일원 '똑버스' 시범운영 시작

경기교통공사가 10일부터 경기 화성시 팔탄면 일원에 '똑버스'를 시범 운영하고 오는 17일부터 정식 운영을 개시한다. 다문화가족도 똑버스를 이용해 보자. 화성시 똑버스는 팔탄면까지 운행범위를 확대하며 화성시 내 총 5개 권역에서 운행하게 된다. 팔탄면 똑버스는 △항남환승터미널~해병대사령부(덕우리 경유) △항남환승터미널~해병대사령부(가재리 경유) △화성통합푸드지원센터~기천보건진료소 등 3개의 노선을 운행하며 지역 주민의 이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화성통합푸드지원센터~기천보건진료소 노선은 덕우공업단지를 경유해 팔탄면과 봉담읍을 연결하는 노선이다. 운행 차량은 14인승 VBUS60 3대로 운행된다. 운행 시간은 매일 오전 5시 30분부터 오후 11시 30분까지며 호출 마감 시각은 오후 11시다. 이용 요금은 시내버스 요금과 동일한 성인 1650원, 청소년 1160원, 어린이 830원이며 수도권 통합환승 할인이 적용된다. 똑버스는 '똑타' 앱을 이용하면 된다. 김영의 기자



진로 탐색 돕고 사회적 역량 키워요!

화성시가족센터, 다문화가정 자녀 성장지원 '다재다능'

화성시가족센터(센터장 박미경)는 지난 11월 8일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진로 탐색과 사회적 역량 향상을 지원하는 '다재다능' 프로그램의 하반기 운영을 마무리했다. 부모-자녀 관계향상 숲체험 프로그램과 함께 수료식도 진행했다.

'다재다능'은 상반기 우정읍 밀알지역아동센터와 연계해 운영됐으며, 하반기에는 센터 인근 거주 다문화가정 자녀들을 대상으로 7월부터 11월까지 격주 토요일 진행됐다. 프로그램은 ▲자기이해 및 발표 활동 ▲푸드아트 테라피 감정 표현 ▲성격유형 기반 진로 탐색 ▲전문 직업체험(화성시문화관광재단 꿈의무용단 연계 '무용가 직업체험') 등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자신을 이해하고 능동적으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마지막 회기에서는 부모와 자녀가 함께 참여하는 숲체험 활동이 진행돼 자연 속에서 소통하며 관계를 회복

하는 시간을 가졌다. 수료식은 활동 영상 상영, 만족도 조사, 가족사진 액자 전달, 단체 촬영 등이 진행됐다.

참여 아동들은 "내가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을 찾을 수 있었다"라며 "무용가 체험이 특히 재미있어서 다음에도 참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날 함께 한 학부모는 "아이의 변화뿐 아니라 부모로서 함께 배우고 공감할 수 있어 의미 있었다"고 했다.

박미경 센터장은 "다재다능은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자아 형성과 진로 탐색을 돕는 의미 있는 과정이었다"라며 "아이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체험과 교육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화성시가족센터는 다문화가정이 지역사회 안에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2026년에는 가족 구성원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선보일 계획이다.

김영의 기자

화성시가족센터, '두근두근 입학준비교실'



화성시가족센터(센터장 박미경)는 지난 11월 1일, 2026년 초등학교 입학에 앞둔 다문화가정 예비 학부모를 대상으로 '두근두근 첫 입학준비교실'을 운영했다.

'두근두근 첫 입학준비교실'은 자녀의 초등학교 생활 준비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총 15가정이 참여했다.

이번 교육은 현직 초등학교 교사가 직접 강사로 참여해 ▲입학 절차 및 준비물 안내 ▲학교생활 전반 이해 ▲담임교사와의 소통 방법 ▲학기 초 자녀 학습·언어 적

응 지원 등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했다. 특히, 한국어·학교 문화 등에서 상대적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가정의 현실에 맞춰 부모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해 호응을 얻었다.

부모가 교육을 받는 동안 프로그램에 참여한 자녀들은 별도 공간에서 그림책 <알밤 소풍> 읽기 및 가을 열매 클레이 만들기 활동을 진행하며 돌봄 공백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센터는 특히 이날 교육 참여 가정에 초등학교 입학 준비물 세트를 제공하며 교육 이후에도 가정에서 자녀와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번 교육에 참여한 한 부모는 "막연히 불안했던 초등학교 입학 준비가 정리되어 마음이 한결 놓였다"라며 "다문화가정도 학교와 더 가까워질 기회였다"고 말했다.

박미경 센터장은 "입학 준비는 아이뿐 아니라 부모에게도 큰 전환점"이라며 "앞으로도 다문화가정이 지역사회 안에서 안정적으로 적응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교육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의 기자

"Цалингаа авч чадаагүй учраас хууль бус оршин суугч болсон гадаад иргэд албадан гаргагдах айдас буурч эхэллээ"

Солонгост хууль бусаар оршин суудаг гадаад иргэд байнгын дарамт, айдсын дор амьдардаг. Ялангуяа ажил хийж байгаа мөртлөө цалингаа авч чадахгүй үедээ, ажил олгогчийг Хөдөлмөрийн яаманд мэдээлэхэд хэцүү байдаг. Учир нь төрийн албан хаагч ажил үүргээ гүйцэтгэх явцдаа тухайн хүний хууль бус оршин сууж буйг мэдвэл Цагаачлалын албанд заавал мэдээлэх үүрэгтэй.

Үүнтэй холбогдуулан, Хууль зүйн яам гадаад ажилчдын тогтвортой ажиллах орчныг бүрдүүлэх, мөн цалин хөхрийн асуудлыг бууруулах зорилгоор 11-р сарын 6-наас эхлэн "Гадаадын иргэн, харьяатын тухай хуулийн хэрэгжилтийн журам"-ыг өөрчлөхөөр мэдэгдэв.

Одоогийн хуульд улсын болон орон нутгийн захиргааны албан хаагч үүрэг гүйцэтгэхдээ гадаад иргэн хууль бусаар оршин сууж байгааг мэдвэл дараахиас үл хамааран даруй орон нутгийн Цагаачлалын газарт мэдэгдэх ёстой гэж заасан байдаг. Иймээс цалингаа авч чадаагүй гэх мэт хохирол амссан гадаад ажилчид албадан гаргагдах айдсаас болж цалин шаардсан гомдлоо гаргах аас татгалздаг байна.

Үүнийг шийдвэрлэхийн тулд Хууль зүйн яам "цалин хөлсний үл төлөлт зэрэг хохирлыг мэдээлж байгаа гадаад ажилчдад Цагаачлалын албанд мэдээлэх үүргээс чөлөөлөх" заалтыг журамд тусган өөрчиллөө. Үнэндээ өмнө нь ч дараах таван төрлийн тохиолдолд мэдээлэх үүргээс чөлөөлөх заалт байдаг байсан. Гадаад иргэн цэцэрлэг болон бага-дунд-ахлах сургуулийн сурагч байх тохиолдолд ▲нийтийн эрүүл мэндийн байгууллагад эмчлүүлж буй хүн ▲хүүхдийн халамжийн байгууллагад байгаа хүүхэд ▲өсвөр насныхны зөвлөгөө, хамгааллын төвд зөвлөгөө авч буй хүүхэд ▲гэмт хэргийн хохирогч болон хүний эрхийн зөрчлийн хохирлыг барагдуулахад хамрагдах хүн зэрэг юм. Энэ ангилалд цалингаа авч чадаагүй гадаад ажилчин ч энэ удаад багтдаг болсон.

Энэ талаар Жон Сон Хо Хууль зүйн яамны сайд хэлэхдээ: "Энэ журмыг хэрэгжүүлснээр гадаад ажилчдын хамгийн бага эрхийг хамгаалах боломжтой орчин бүрдлээ. Цаашид Хууль зүйн яам ажилтны ажлын байран дээр үүсэж буй асуудалд идэвхтэй хандаж, нийгмийн эмзэг бүлгийн эрх ашгийг хамгаалахад бүх хүчээ дайчлан ажиллах болно." гэж мэдэгдэв. Гэвч энэ нь асуудлыг бүрэн шийдсэн гэсэн үг биш юм. Учир нь цалингаа авч чадаагүй хууль бус оршин суугч гадаад ажилчин ажил олгогчийг Хөдөлмөрийн яаманд мэдээлэхэд... <Зураг, 한글 기사 33면> 경기외국인SNS기자단